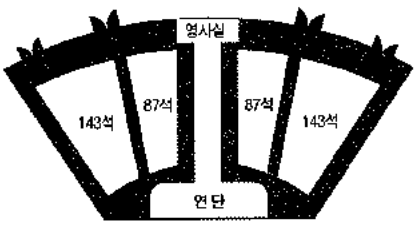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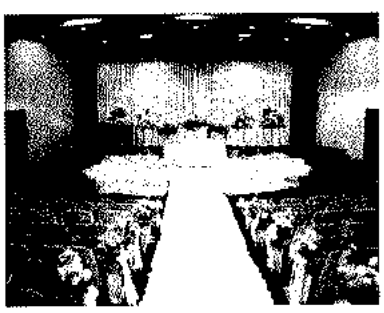
建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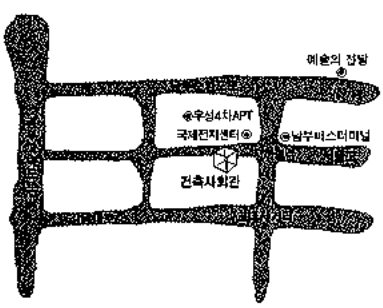
K.I.R.A | vol. 40 | 2018 04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대관 안내



대강당(460석)





약 도

▣ 대 강 당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 / 세미나 / 강연회 / 교육 / 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　　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석(좌석수)

• **부속설비** : 녹음 / 음악 / 영사실 / 무대 / 무대영사막 / 흑판 / OHP / VPM / SP

1. 사용료

(단위 : 원, VAT별도)

구 분	좌 석 수	사 용 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요금(시간당)
대강당	460석	400,000	80,000

※ 사용기간 :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

(연 30일 또는 연 10회 이상)의 경우 상기금액의 30% 할인

※ 야간 및 토요일 오후, 공휴일의 경우 상기금액의 20%를 할증

※ 예식행사 : 90,000원

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890cm × (세로) 90cm

▣ 대 관 문 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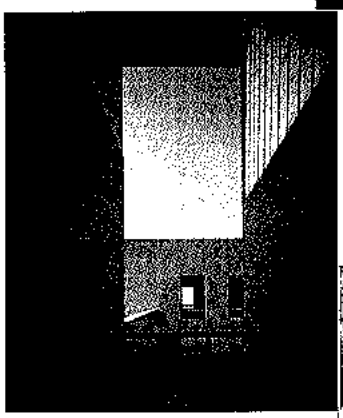
Tel _ 581-5711~4

Fax _ 586-8823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3년 4월호. 통권408호

건 축 사

차례 2003 4 408호



평양면옥(박영준 作)

컬럼	건축설계시장 개방 상황 및 대응방안	이용락	20
건축만평		유원재	23
회원작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영희 · 정영균	24
	마포 장애인 복지관	이성관	32
	상선재(上善齋)	김효만	40
	취어지는 집	김인철	50
	평양면옥	박영준	58
계획작품	갤러리 힐	김효만	66
작품노트	하동 삼신마을	문철수	72
기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실습(2)	문홍길	78
	사찰 체험 기행	이종호	84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87
	해외잡지동향		92
	현상설계		98
	세무안내		104

발행인: 이세훈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취재 · 편집: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 //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문의: 대한건축사협회(이홍식 팀장)

■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Korean Architect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Contents Vol. 408 April 2003

Column

A Briefing and Countermeasures on Architectural Design Market Opening	Lee Yong-Lark	20
Cartoon	Yoo Won-Jai	23

Works

Seoul Development Institute	Lee Young-Hee & Jeong Young-Kyoon	24
Mapo Handicapped Persons Welfare Center	Lee Seong-Kwan	32
Sangsunjai	Kim Hyo-Man	40
The Bent House	Kim In-Cheurl	50
Pyeongyang Myeonok	Park Young-Jun	58

Process works

Gallery Hill	Kim Hyo-Man	66

Design note

Hadong Samsin Village	Moon Cheol-Soo	72

Feature

Practice for District Unit Plan	Moon Hong-Kil	78
Experiences in Buddhist Temple	Lee Jong-Ho	84

Architects' Plaza

Archi-Net 87

Overseas Journal 92

Competition 98

Taxation business 104

Publisher: Lee Se-Hoon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건축설계시장 개방 상황 및 대응방안

A Briefing and Countermeasures on Architectural Design Market Opening

이용락 / 건설교통부 건축과장
by Lee Yong-Lark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농산물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폭 넓은 의제를 포괄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출범을 담은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가 채택된 이래 본격적인 건축설계 서비스 분야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 동안 각 국 상호간 최초 양허요구(REQUEST) 및 양허(OFFER) 사항 등을 밝히는 과정을 거쳐 이제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서비스 협상의 진행상황 및 우리의 대응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1947년에 설립된 GATT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대체되었다. 과거 GATT가 주로 상품교역을 관장해 온데 반해 WTO는 상품교역은 물론 서비스(GATS) 및 지적재산권(TRIPS) 등 폭 넓은 의제를 포함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체제이다. WTO는 출범당시 상품교역부문에 관하여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하여 각 국의 개방내용 및 일정을 대부분 확정시켰으나 농업 및 서비스 부문은 회원국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농산물 · 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 출범하게 되었으며, 이후 각 국의 협의를 거쳐 2001년 11월 농산물 · 서비스 부문의 개방의 원칙과 일정을 정한 도하개발아젠다가 카타르 도하에서 채택되게 되었다.

DDA서비스협상 일정을 보면, 2002년 6월말까지 각 국은 특정 상대국에 대하여 최초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를 제출하고, 2003년 3월말까지 자국의 최초 양허계획서(Initial offer)를 제출하여 양허요청서 및 양허계획서를 토대로 양자협상 및 다자간 협상을 진행한 후 2004년 12월 31일까지 협상을 종결하기로 되어 있다. 협상은 모든 의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동시에 종결하는 일괄타결방식(package deal)으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6월 29개 외국에 대하여 추가 양허요청을 담은 양허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양허수준이 우리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를 상대로 우리수준 만큼의 양허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반면 18개 외국으로부터는 현재 수준보다 추가로 양허할 것을 요청 받았는데, 주로 상업적주재 요건을 폐지하고 국내 입국체류 대상 인력 범위를 확대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WTO에 외국의 요청에 대한 우리나라의 양허안(Offer)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현행 양허수준을 유지하여 추가로 양허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건축설계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방협상은, 외국 거주 건축사로부터 설계서비스를 받아 국내에서 건축하는 경우(국경간 공급 - M1), 내국인이 외국에서 설계서비스를 제공받아 해외에서 건축하는 경우(해외소비 - M2), 외국의

건축설계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공급을 위해 국내 주재하는 경우(상업적 주재 - M3), 건축설계서비스 공급을 위해 외국인이 국내로 이동하는 경우(자연인의 주재 - M4)등 각각의 경우별로 외국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접근을 제한하는지(MA)와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지(NT) 여부에 대한 각 국의 양허 내용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협상의 기초 자료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경간공급(M1)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시장접근에 대하여 상업적주재를 전제로 양허(이는 외국서비스 공급자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건축서비스를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공급하여 국내에서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임)하고 있으며, 자연인의 주재(M4)와 관련하여는 입국체류 허용대상을 임원 · 상급관리자 · 전문가 등으로 일정기간만 체류하는 자로 한정(이는 서비스업 전 분야 공통사항으로서 인력이동 및 출입국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관장하는 사안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한 사항이외에는 전면양허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외국건축사가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축사예비시험 과목 중 건축법규와 건축사자격시험 과목 중 설계과목을 합격하면 외국건축사도 국내 건축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가로 양허하고 있다.

한편, 외국은 우리나라가 외국서비스 공급자에게 상업적주재 요건을 부여하고 외국인의 출입국 대상을 한정하는 제한에 대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양허폭을 확대(추가 또는 전면양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부는 설계업무의 특성상 건축사는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건물주 · 시공자의 자문에 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설계자의 설계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업적주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또한 서비스업 전반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인력이동 및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연인의 이동 대상을 확대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도 현행 양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허협상이 국내 설계시장의 전면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설령 양허표상 M1,2,3,4 모두 전면 양허한다 하더라도 건축설계서비스와 같이 자격 또는 면허가 요구되는 업종은 자격(또는 면허)의 상호인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는 상대국 시장진출이 불가능하다. 현재 건축사자격인정문제가 WTO 협상의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WTO협상의 목적을 감안할 때 향후 이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아직 이러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DDA협상이 2005년까지 일괄타결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설계시장이 외국 건축사에게 잠식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건축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우

러의 건축사자격을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 국제건축가연맹(UIA)이 1999년 6월 북경총회에서 채택한 "건축사자격에 관한 국제기준"이 목표가 될 것이다.

UIA 건축사자격 권장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증된 대학교육을 5년이상 이수하고, 2년(향후 3년) 이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수련기간을 거쳐 전문기관에 의한 시험합격 후 재교육을 통해 등록갱신하는 것 등으로서, 현재 미국 · 중국 · EU 국가는 이에 상당히 부합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동 권고기준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나 우리 건축계의 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가급적 국내 제도도 동 기준에 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래 우리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5년제 대학교 건축학제를 도입(2002년)하고,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고졸이상으로 강화(2001년 법령개정, 2010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교육인증제 및 수련제의 도입, 학력요건 추가 강화 등의 조치가 점진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하에 DDA 협상의 주요사안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그 추진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건축사협회 · 건축가협회 · 건축학회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WTO대책반", 업계 · 학계는 물론 소비자단체까지 포함하는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이다. 그 동안 WTO대책반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의 추가양허 요구에 대하여 더 이상 양허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바 있는데, 최근의 회의에서는 인도의 건축사자격 상호인정협정(MRA)체결 제의에 대하여 저임금을 앞세운 인도건축사 인력이 유입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DDA협상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건축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개선 시 추진 방법과 속도 등을 신중히 조절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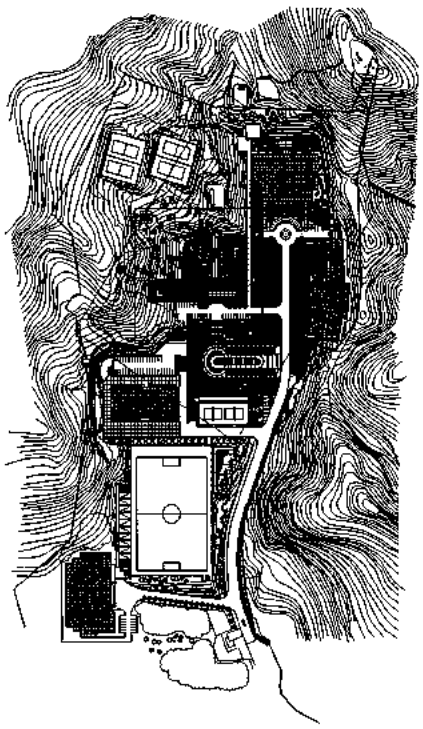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선 조치는 국제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서, UIA 권고기준이 마치 당장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또는 이를 무시함으로써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오류를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우리가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나아가 국내건축사 수준을 제고하여 국제시장 개척도 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국가적 이익이 도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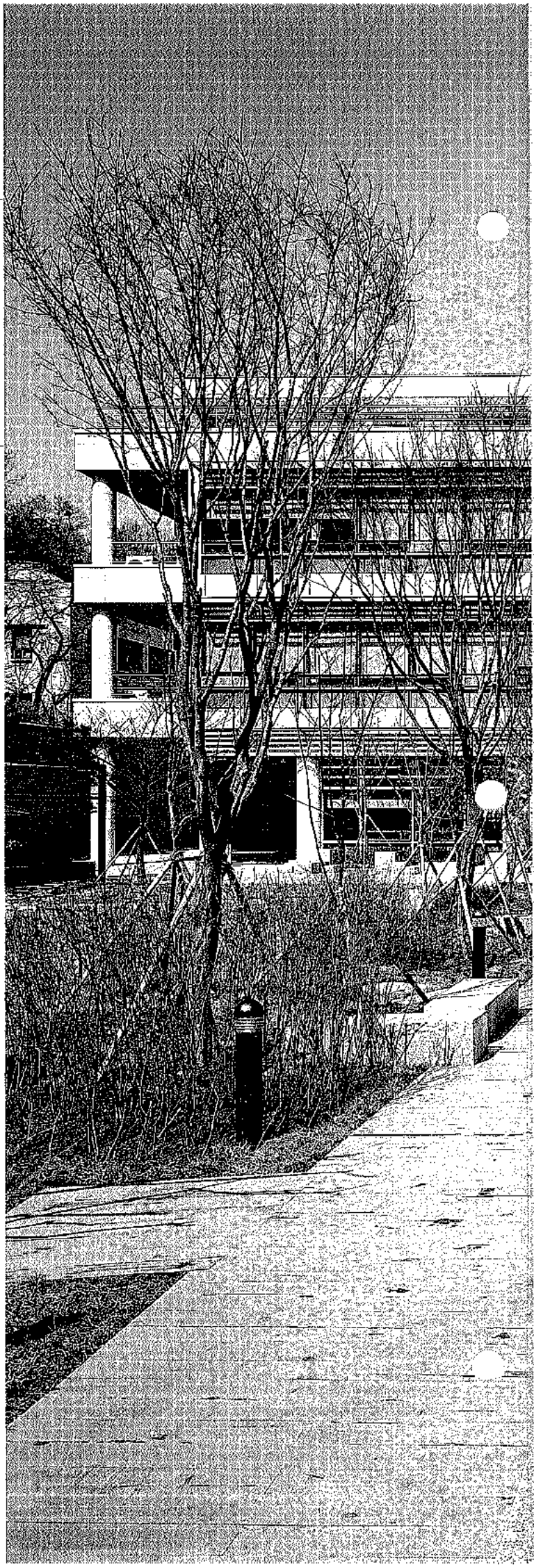
이영희 · 정영균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ung-Hee & Jeong Young-Ky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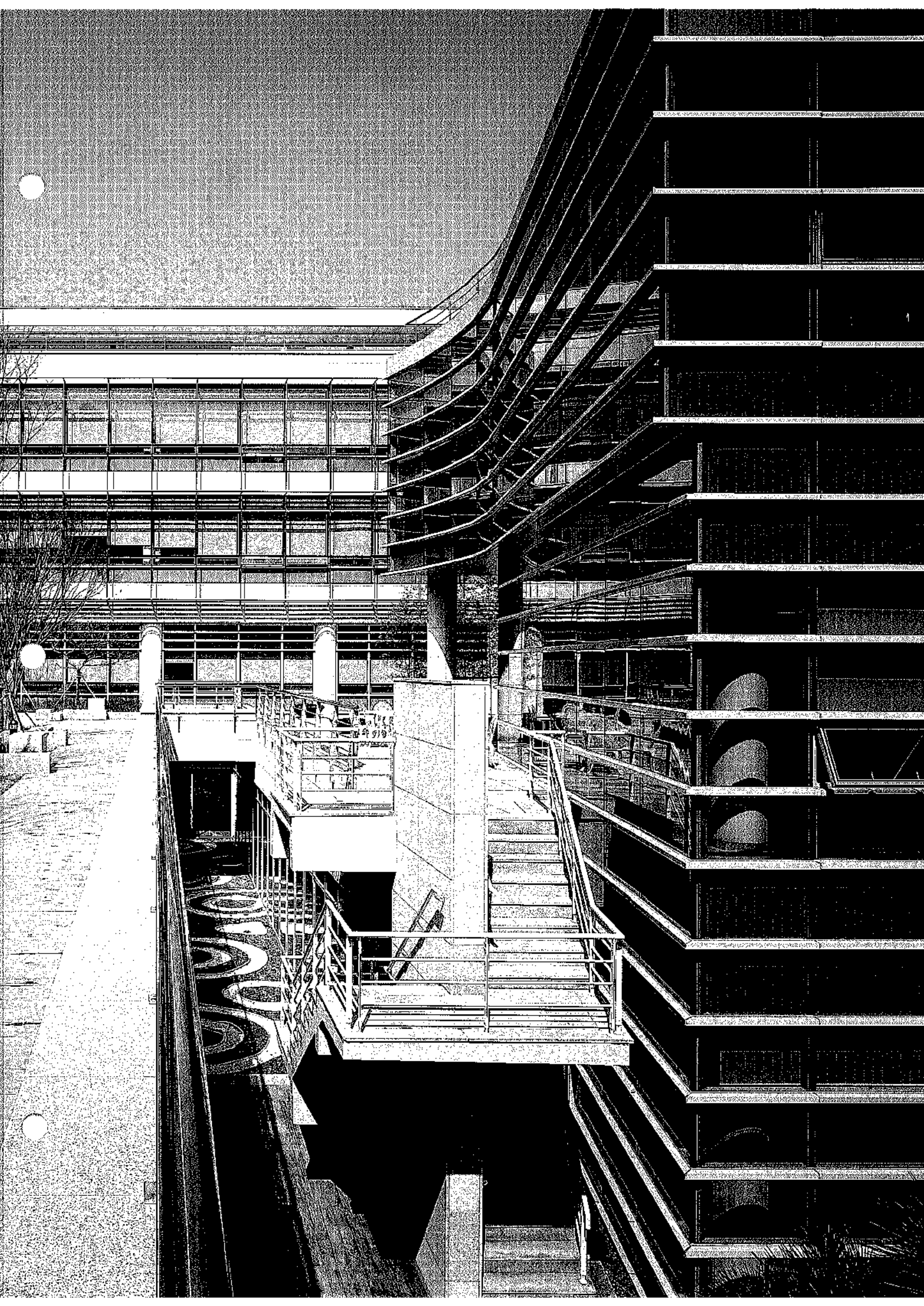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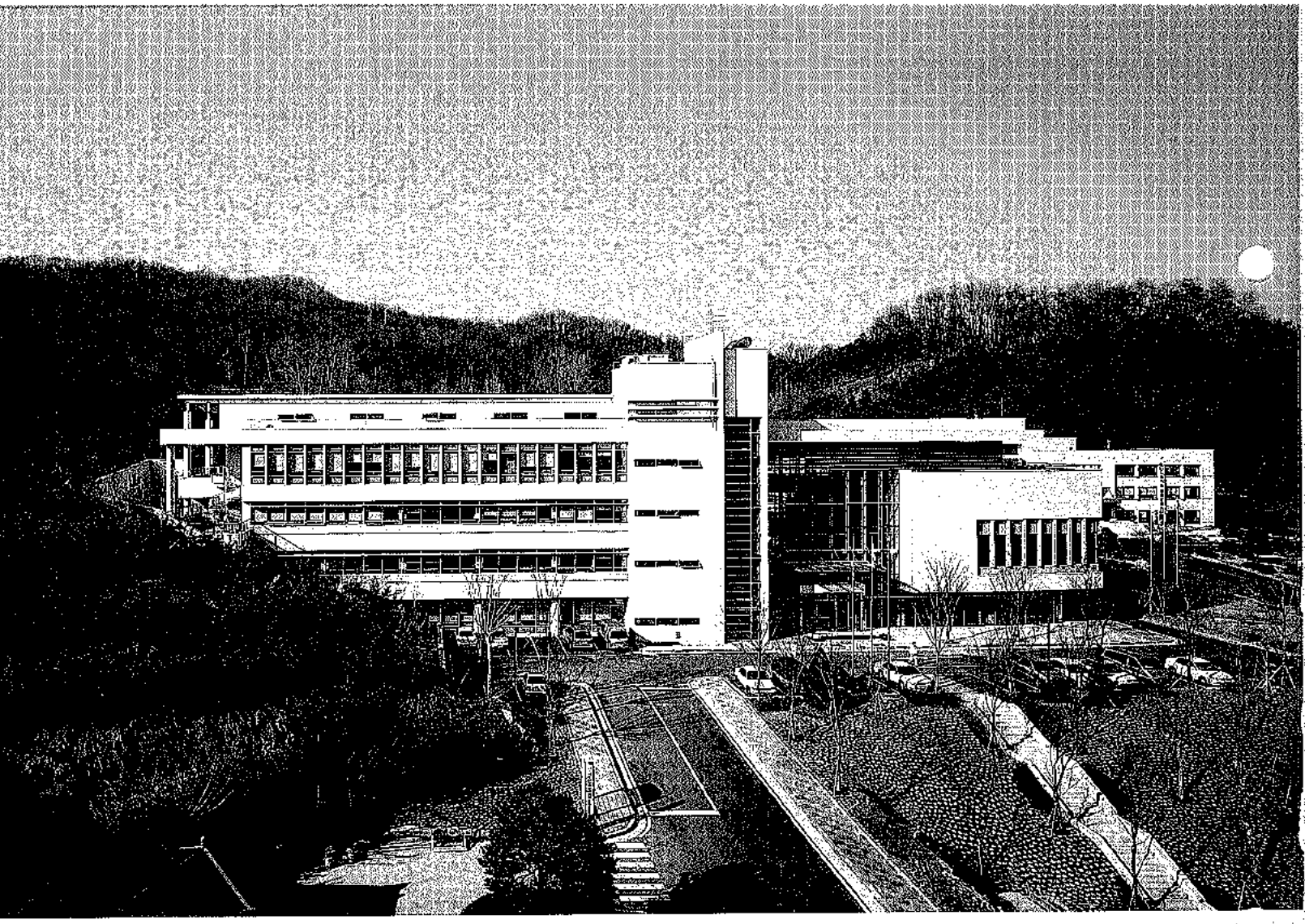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13,040㎡
건축면적	1,959.87㎡
연 면 적	8,025.74㎡
건 폐 율	13.44%
용 적 률	27.67%
규 모	지상5층, 지하1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화강석, 컬러복층유리
구 조	크로스구조연구소
설 비	(주)우원
전 기	나라기술단
인테리어	(주)인디자인
설계기간	2000. 6 ~ 2001. 2
공사기간	2001. 3 ~ 2003. 2
설계담당	임동건(디자인 디렉터), 심재춘, 최지인, 김광범, 김재철, 최재영, 김용권, 홍관선(CG)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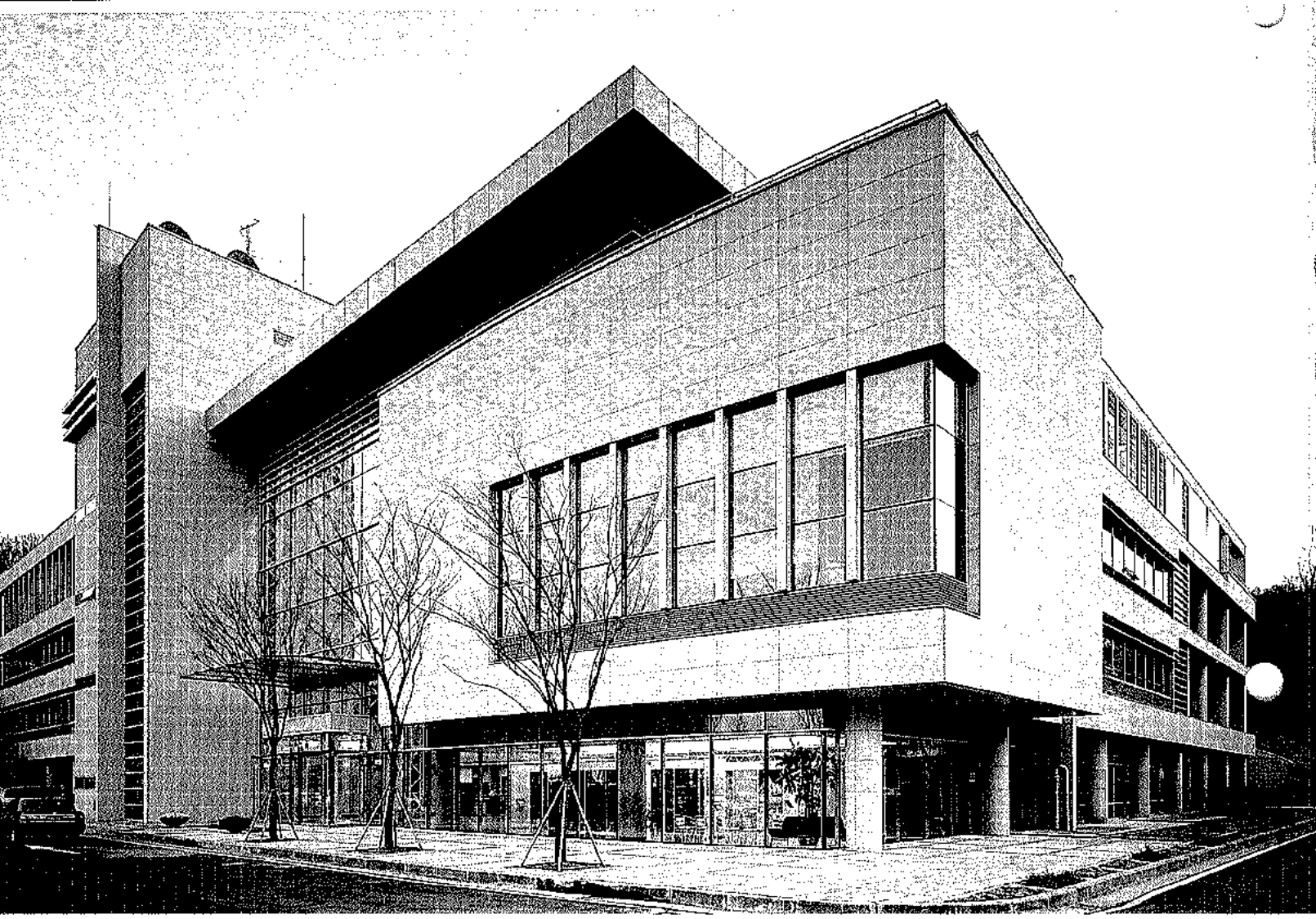


배치도









공무원 교육원은 현재 서초구 서초동 우면산 자락에 위치해 있고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주변 경관이 양호한 곳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 교육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단지내 각 시설물들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정문에서 본관으로 접근하는 주도로를 따라서 체육공원, 중앙광장, 가로수 광장 등을 만들어서 넓은 옥외공간을 많이 확보했고, 본관의 전면에는 본관전면광장과 원형 로터리를 만들어서 차량 및 보행자의 영역과 동선을 정리했다. 중앙광장에서는 각종 옥외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지하에는 대규모 지하주차장을 계획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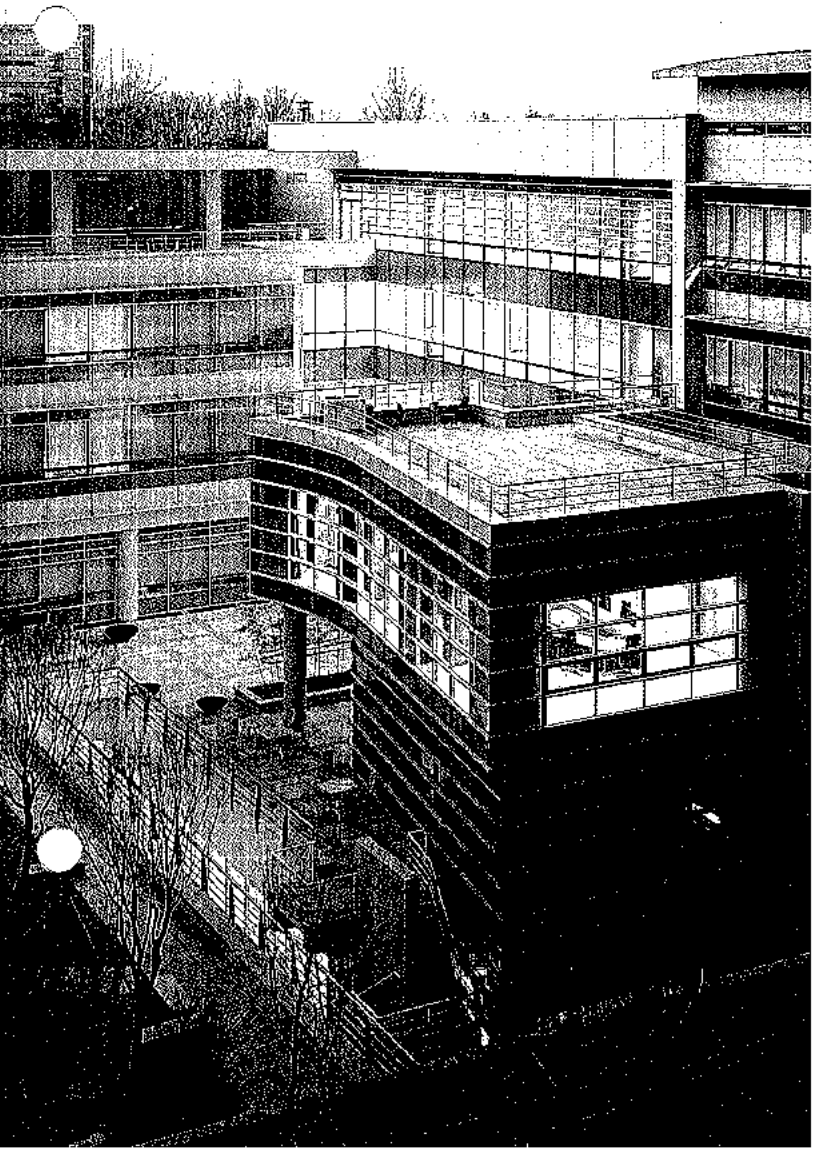
시정개발연구원 신청사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공무원 교육원 대지내에서의 조화와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계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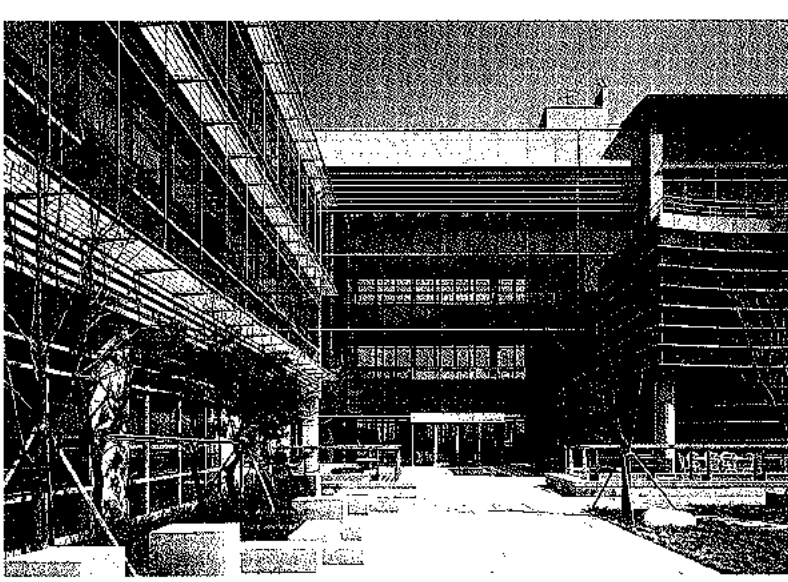
우선 주축을 주변건물과 일치되게 배치하였고, 건물의 주입면을 정문과 중앙광장 방향으로 배치하여 정면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개방된 조망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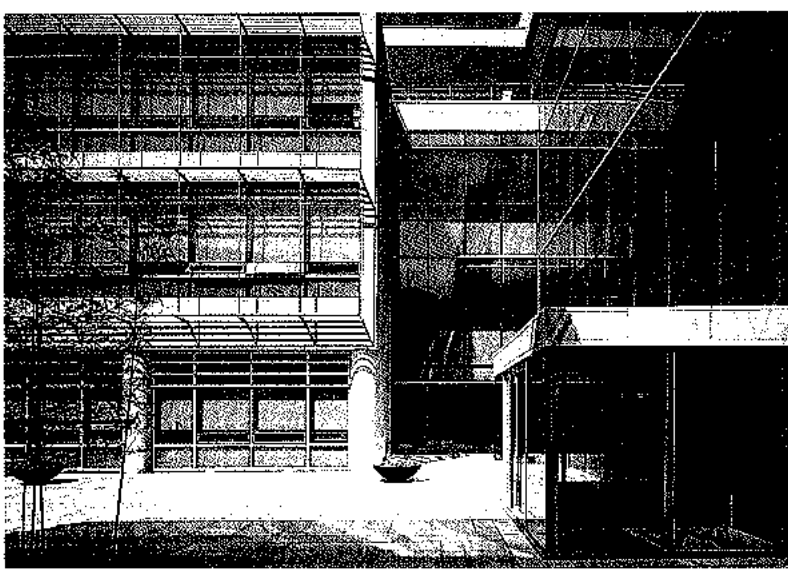
특히 남측에 위치해 있는 기존 녹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ㄱ자 형태로 배치하여 건물과 녹지공간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중정공간을 만들었고, 선큰가든과 친수공간 등을 다양하게 설치했다. 또한 건물매스로부터 휴게실 공간을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중점 및 선큰과 맞물리도록 계획함으로써 휴게공간의 기능을 강조하고 연구원 신청사의 주요휴식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주축의 매스는 녹지공간속으로 관입시켜 3층 단부의 발코니를 통해 산책로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해서 녹지공간과 좀 더 가깝게 연결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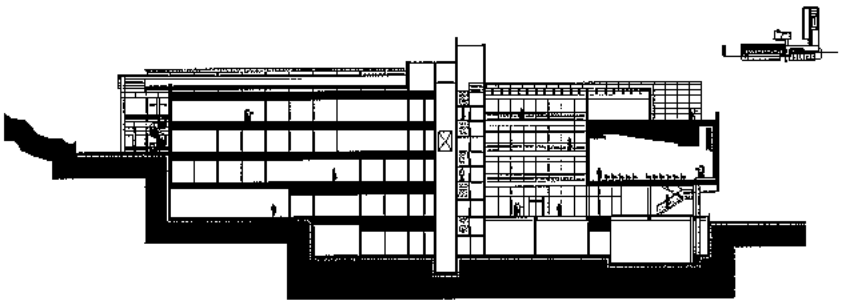
주출입구가 있는 로비공간은 전층을 아트리움으로 계획하여 실내의 개방감을 높이는 동시에 측면을 전면유리의 커튼월로 계획하여 중정과 건물 전면의 넓은 중앙광장이 투명한 아트리움 공간을 통해서 상호 연결되도록 했다.

건물의 입면은 산속에 위치한 공무원 교육원의 자연환경에 맞추어 수평적인 느낌을 살려서 디자인함으로써 편안한 느낌으로 주변과 어울리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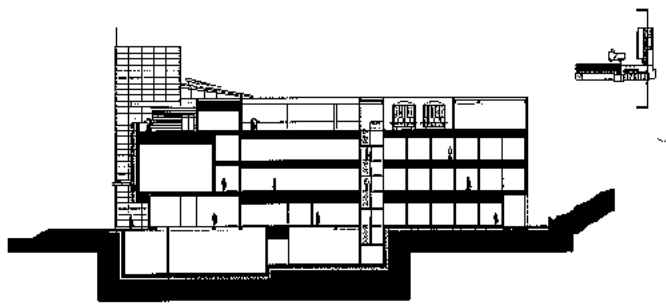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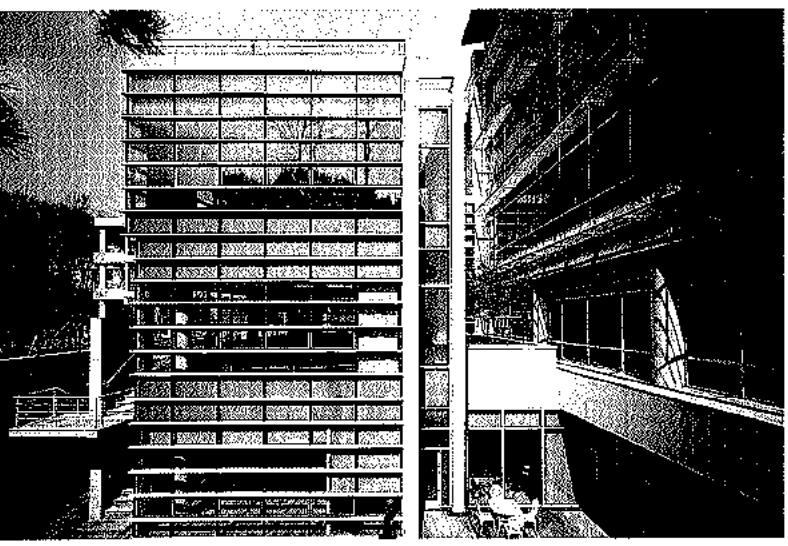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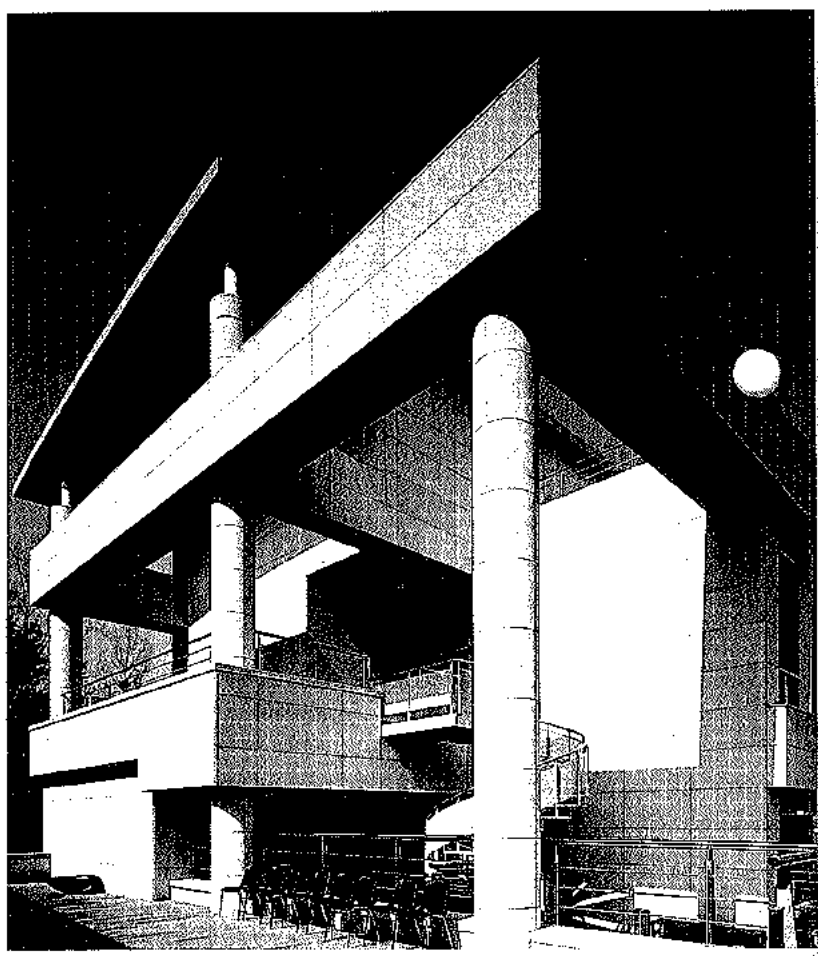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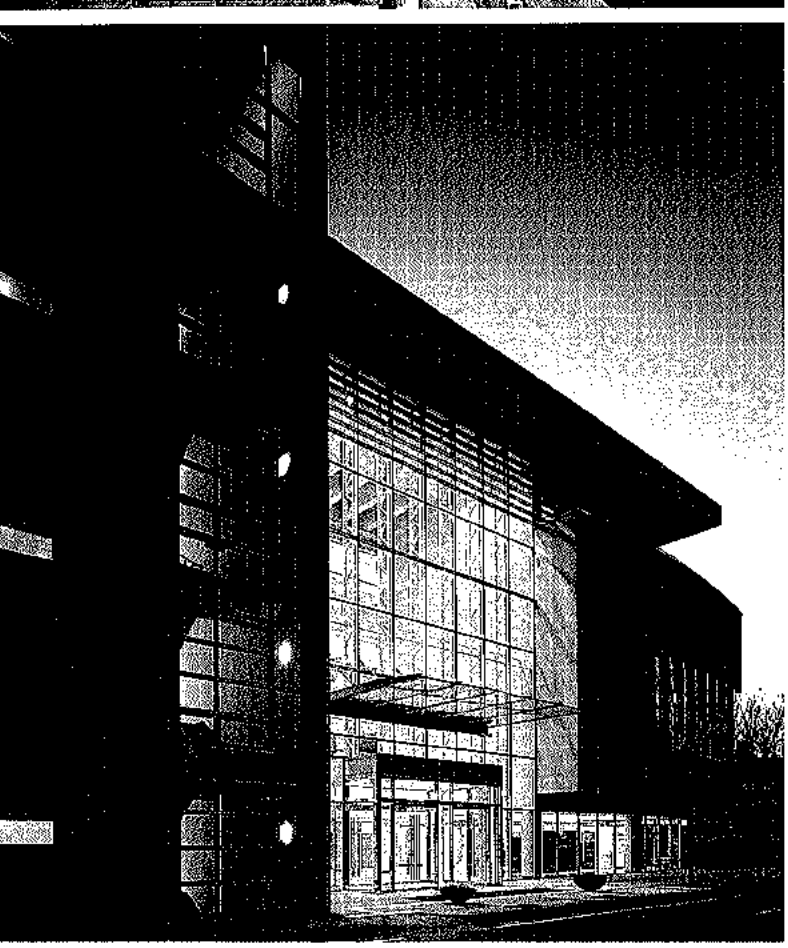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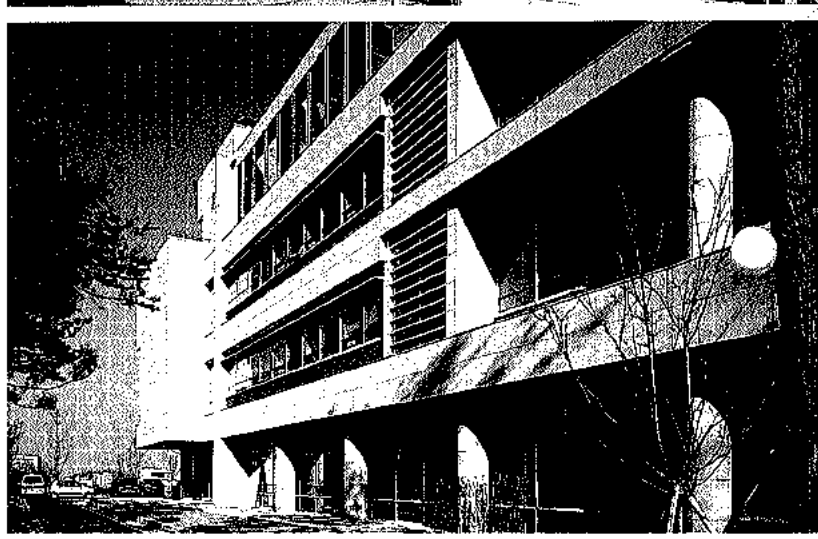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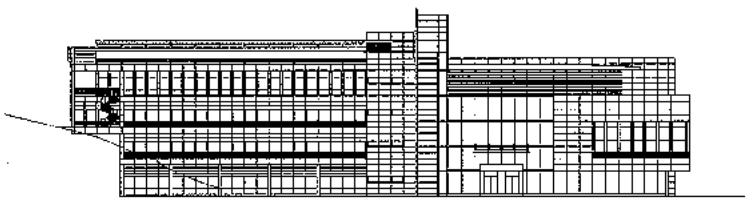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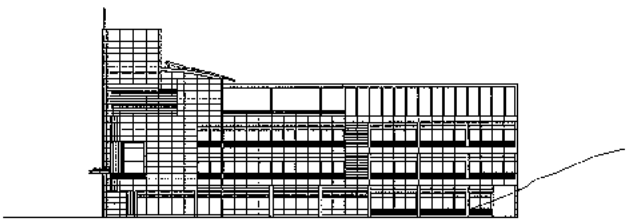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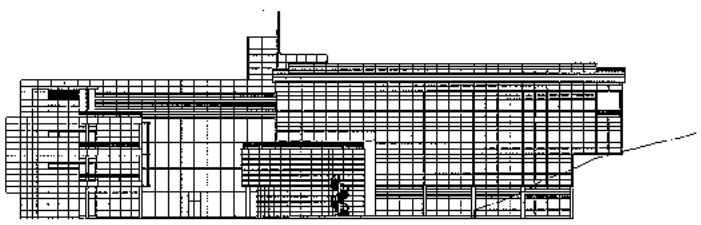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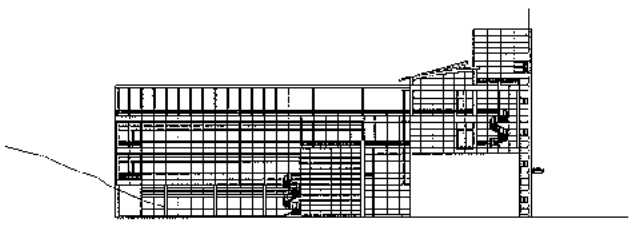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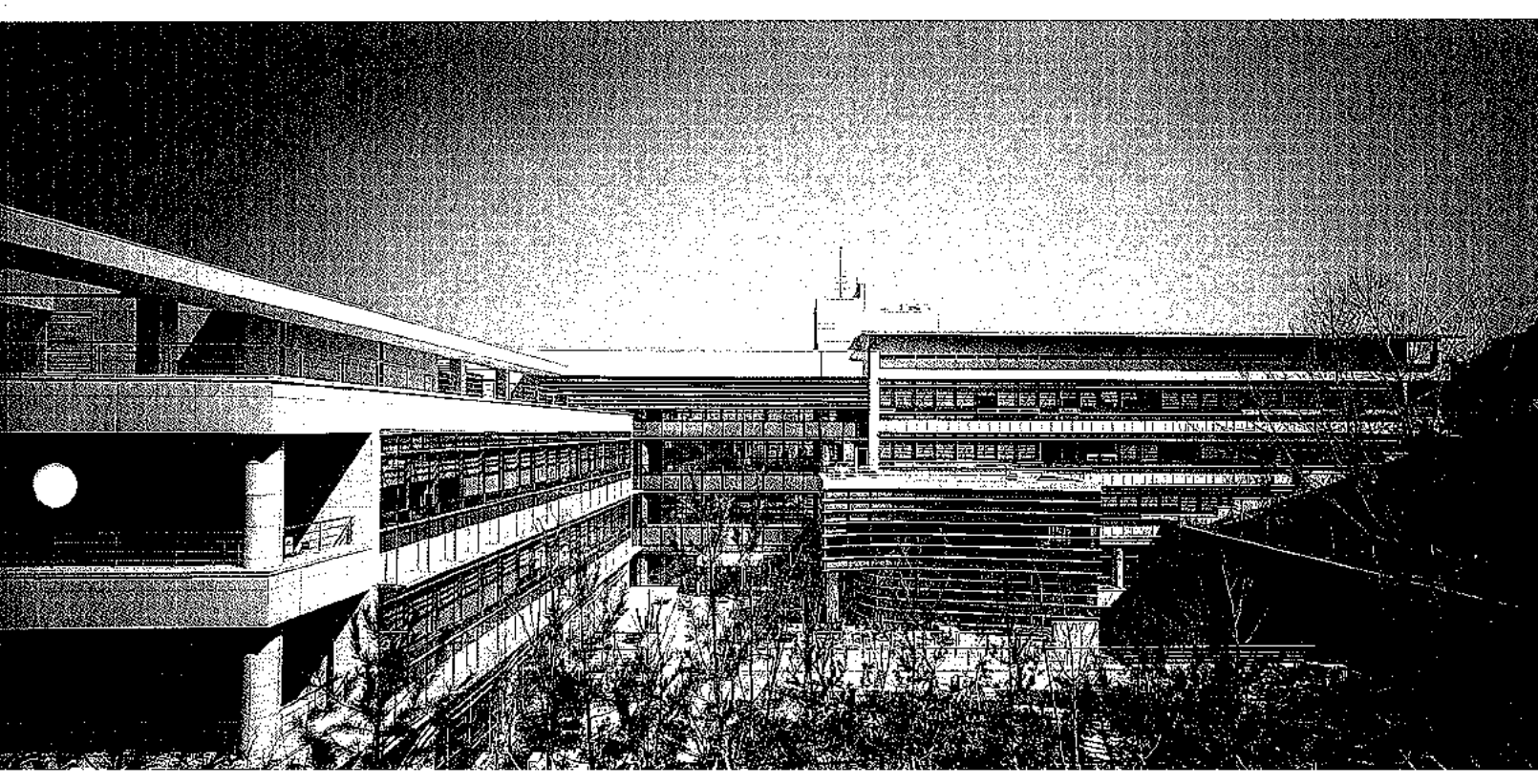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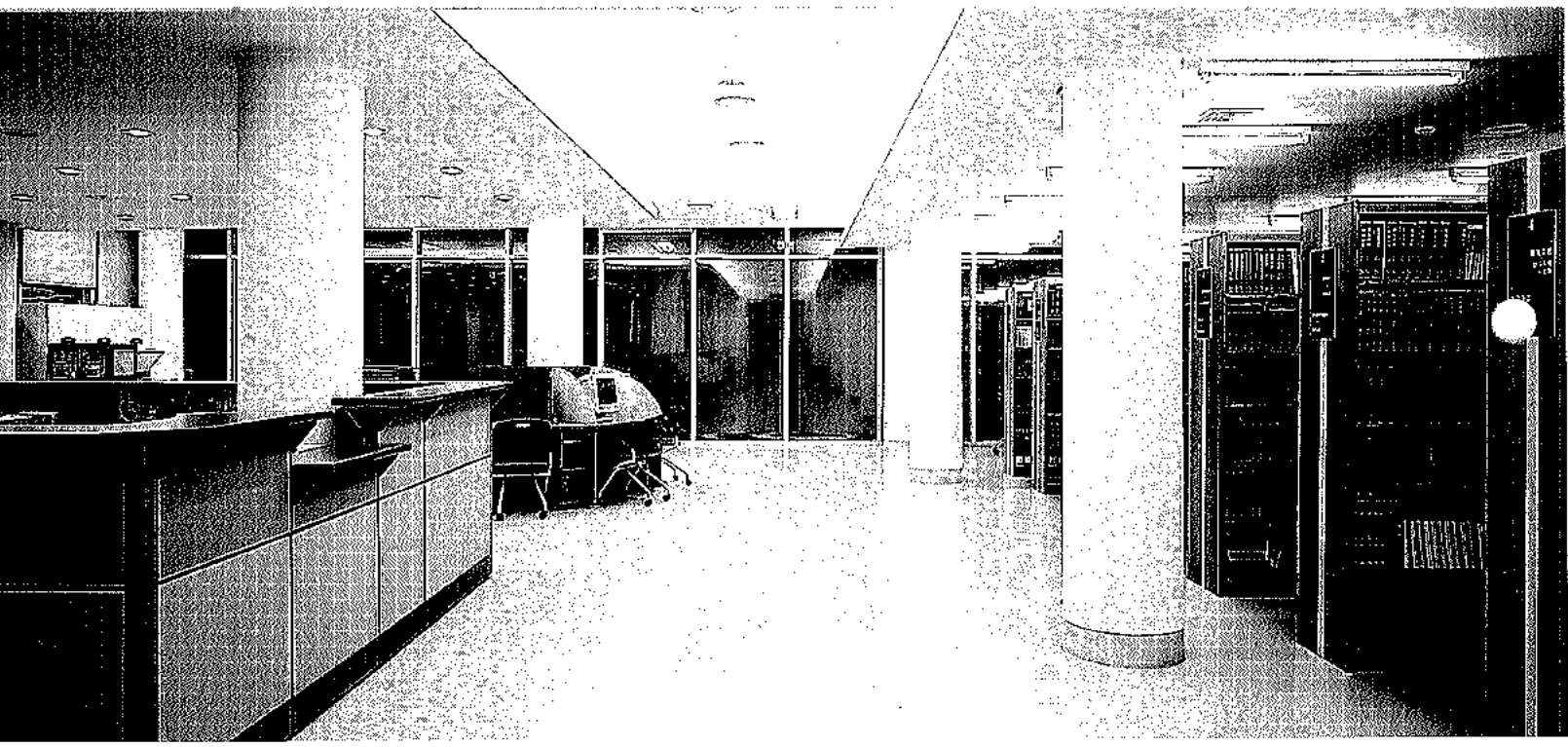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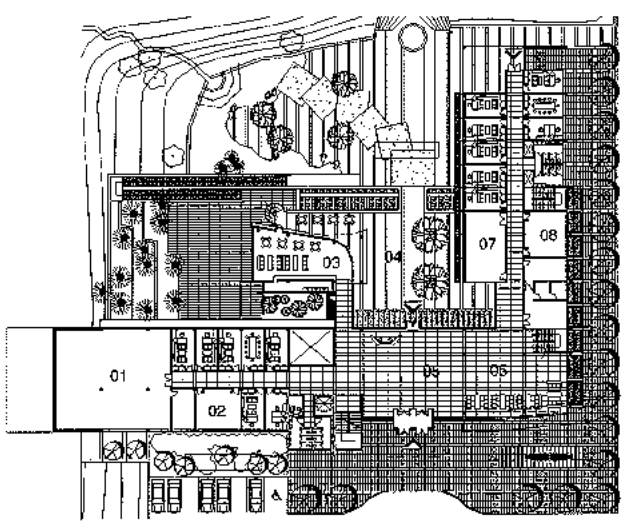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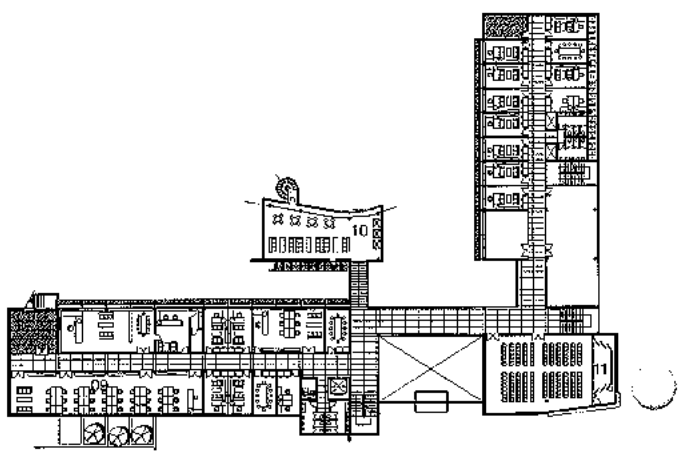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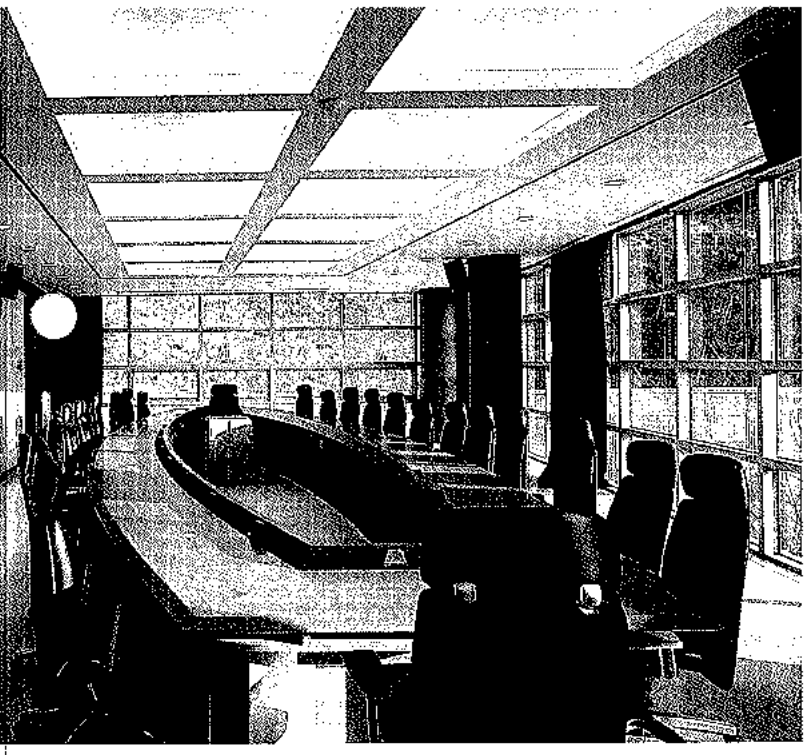
01_ 전산실
02_ 연구실
03_ 휴게실
04_ 중정
05_ 로비
06_ 홍보라운지
07_ 공동프로젝트실
08_ 위촉연구실
09_ 행정사무실
10_ 중회의실
11_ 대회의실
12_ 공중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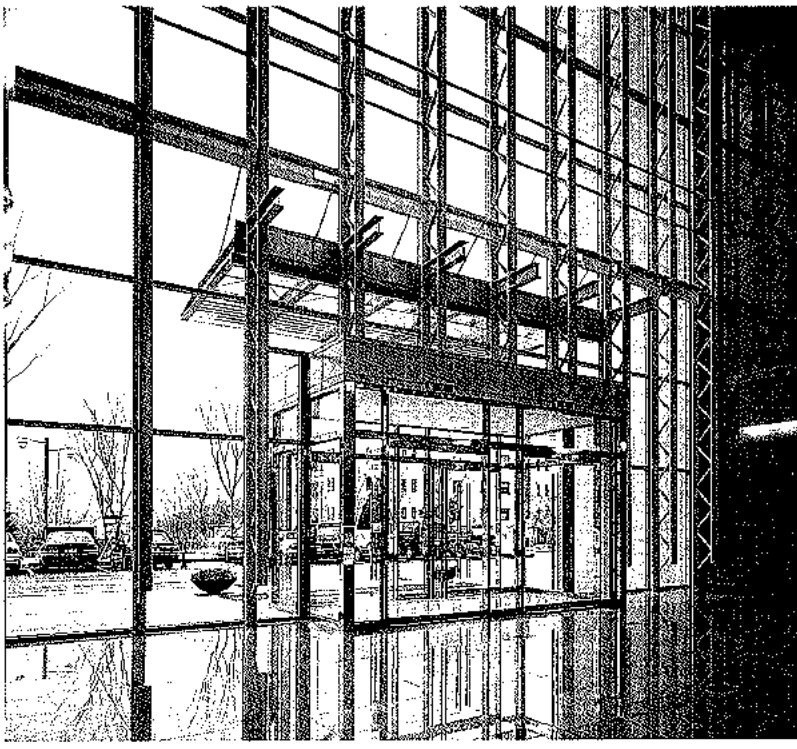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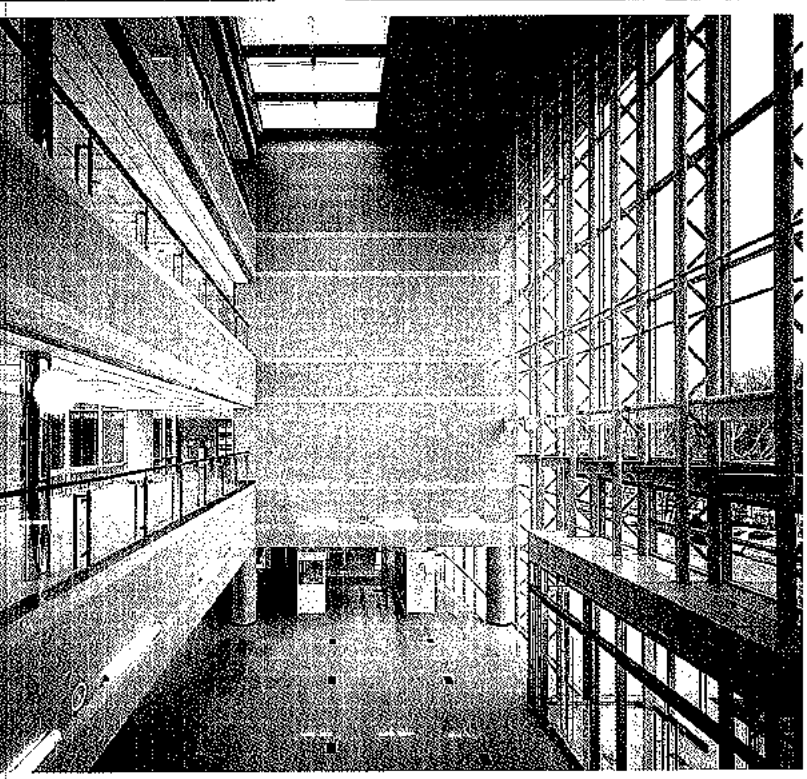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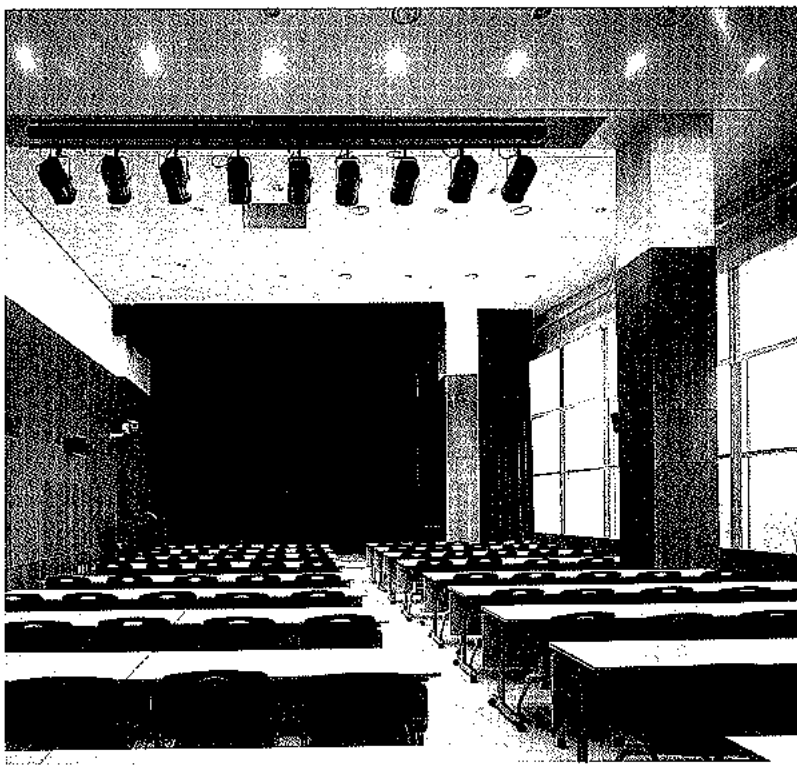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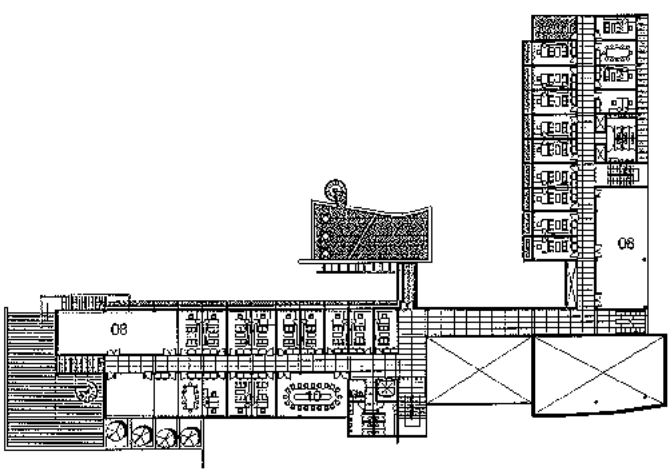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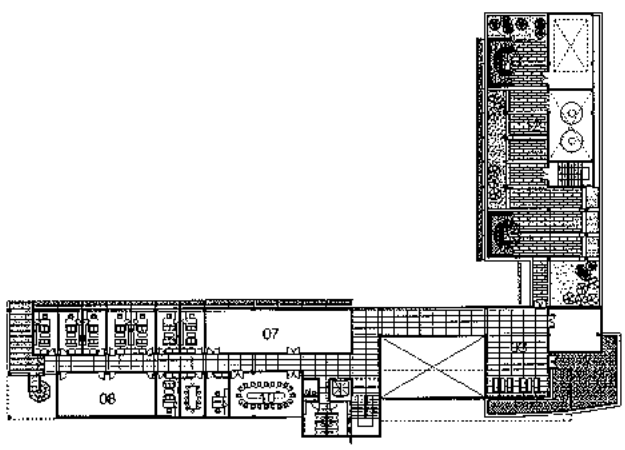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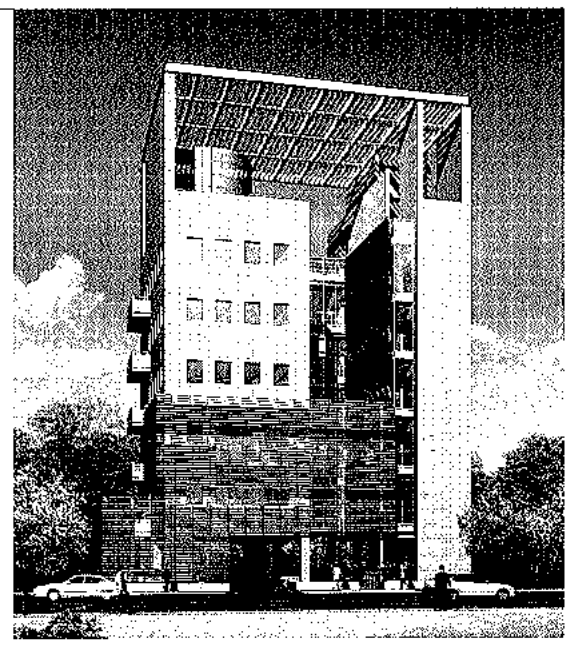
4층 평면도

마포 장애인 복지관
Mapo Handicapped Persons Welfare Center

이성관 /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Designed by Lee Seong-Kwa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95-1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대지면적	399.5㎡
건 폐 율	55.54%
용 적 률	287.15%
규 모	지하1층, 지상7층(지상1층 필로티)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최고높이	27.6m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커튼월
주 차	7대(지상)
구 조	한국구조 (곽규상)
설 비	성일 E&C (김윤성)
전 기	영광전기 (김남신)
설계담당	이재익, 손준익, 차종연, 김정순, 박일권, 박종한, 전보경, 서지영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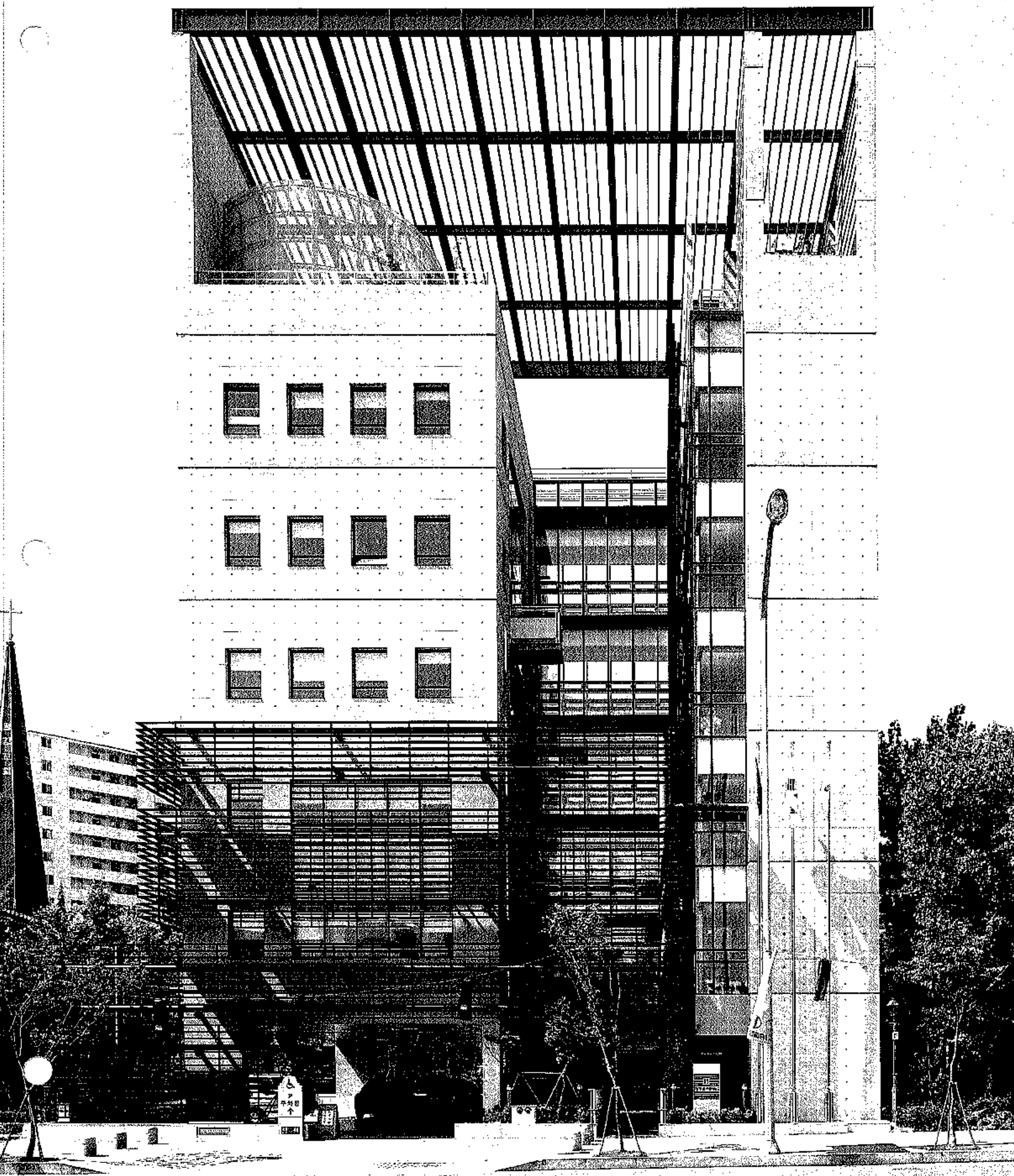
프로그램 · 로케이션 · 이미지 (Program · Location · Image)

이 시설은 마포구 관내의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속의 한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종합재활복지관이다. 프로그램은 진단, 판정, 상담지도, 재활치료, 특수교육 및 직업재활 등을 포함하며, 모든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하되 시각장애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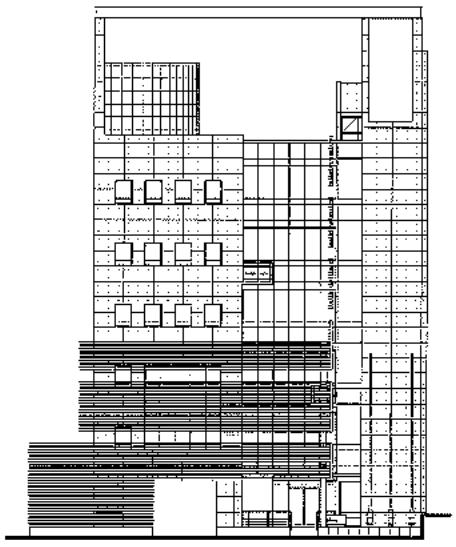
건물전체의 디자인 작업은 내부프로그램의 도식적 표출보다는 대지의 위치에 따른 지정학적인 잠재력을 표출하는 입장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건물 내부에서는 장애자를 위한 기능적 배려를 충분히 해주되, 외관상으로는 '장애자' 또는 '재활치료' 등에서 관습적으로 연상될 수 있는 어떠한 도식적 이미지도 철저히 배제하려 했다. 장애자를 위한 건물의 이미지는 별도로 존재치 않고 우리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익명적 또는 보편적 건물의 이미지가 바로 장애자를 위한 시설의 이미지라는 생각이었다. 다시 말해 바로 그 위치에 가장 자연스럽게 있을 법한 차림과 자세로 서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건물의 부지는 상암구장으로 향하는 합정로의 종착점인 상암교 바로 직전에 위치한 필지로써 어린이 놀이터가 인접해 있고, 광로변은 아파트와 비교적 저밀도의 일반건물군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서북측으로는 불광천 건너편의 상암구장과 함께 난지공원의 탁 트인 녹지가 한 시야에 들어온다. 도시성격상 불광천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두 영역은 상암교를 중심으로 연결되며 이곳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천이점 또는 관문적 성격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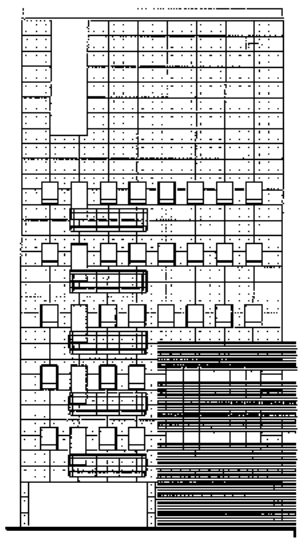
이 시설은 사적 성격과 근린성을 가지는데 비해, 지정학적으로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대로상에 면해 있어 프로그램과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외관이미지의 접근 전략은 이러한 불균형적 만남을 최대한 완화시키려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전체 이미지는 견고한 각질의 외피 속에 연질의 프로그램이 보호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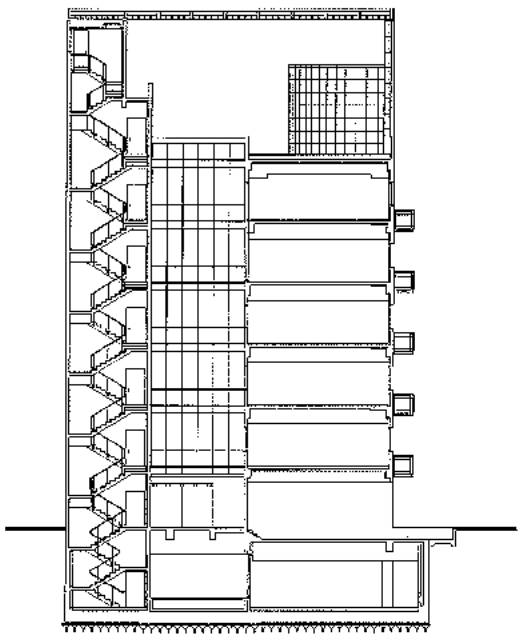
담겨진 형국이다. 주어진 프로그램 면적보다 다소 과장된 체적은 부지가 갖는 관문적 성격상 문주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도시적 제스처로 의도되었고, 가운데의 공허부와 투명한 켜는 북측으로부터의 역광 실루엣 진입의 부담을 줄이고 남측의 녹지 분위기를 본 건물로 끌어들이고자 함이었다. 저층부의 스크린 역할을 하는 목재 루버 켜는 전면도로의 강한 광역성을 여과시키고 내부에 근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공사감리를 할 수 없었던 점과 윌드컵기간과 맞물려 외장공사 기간이 단축된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글/이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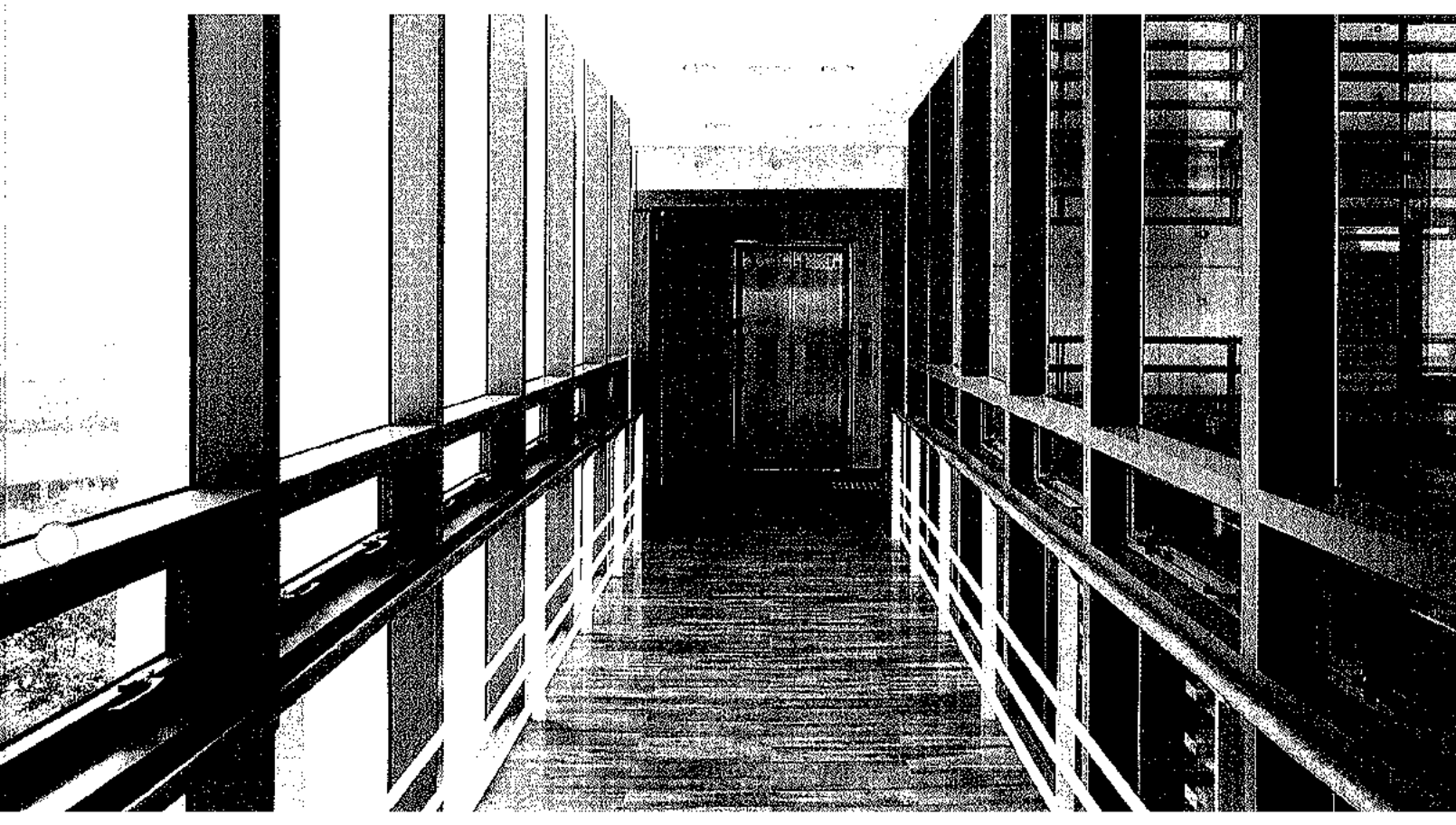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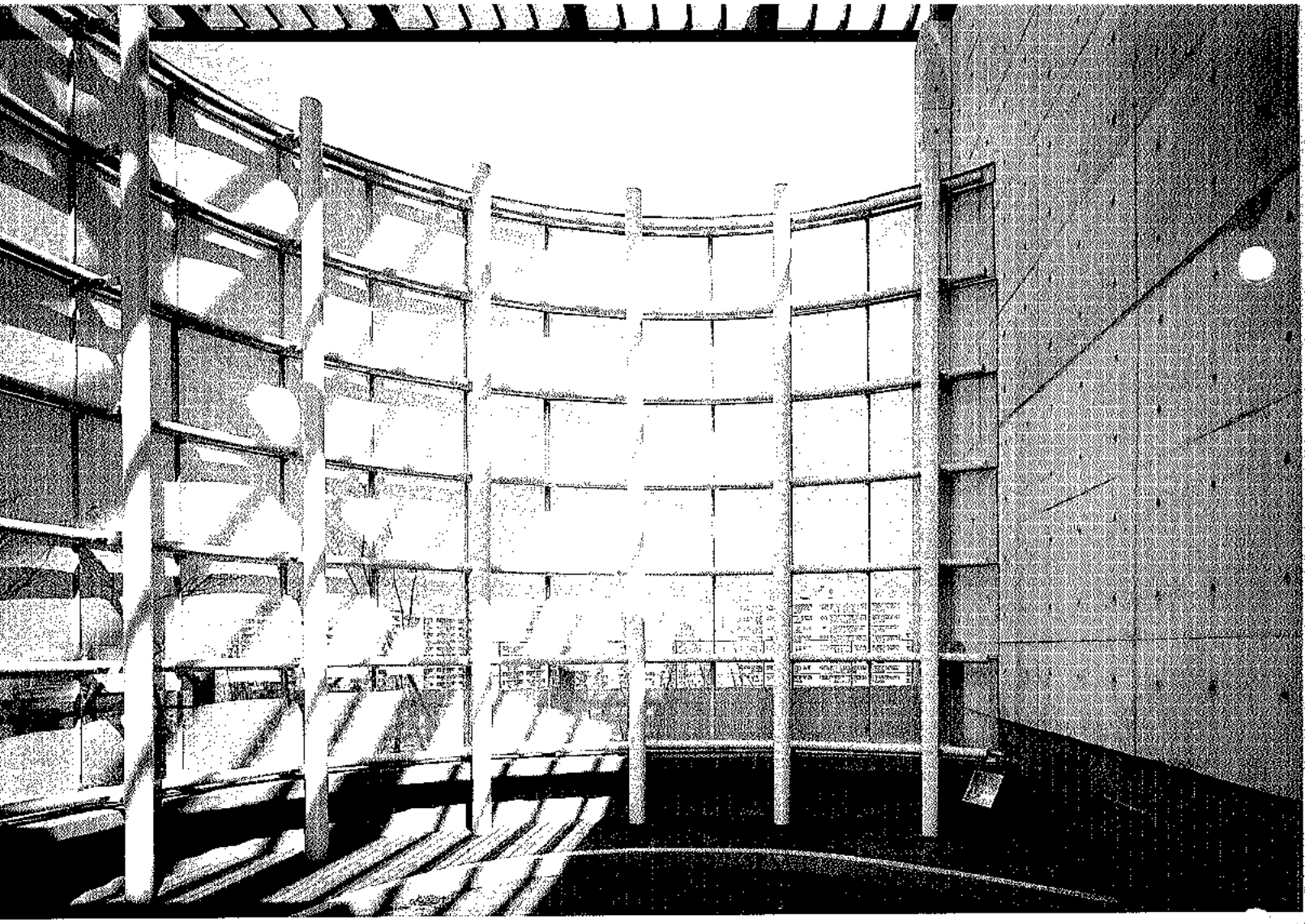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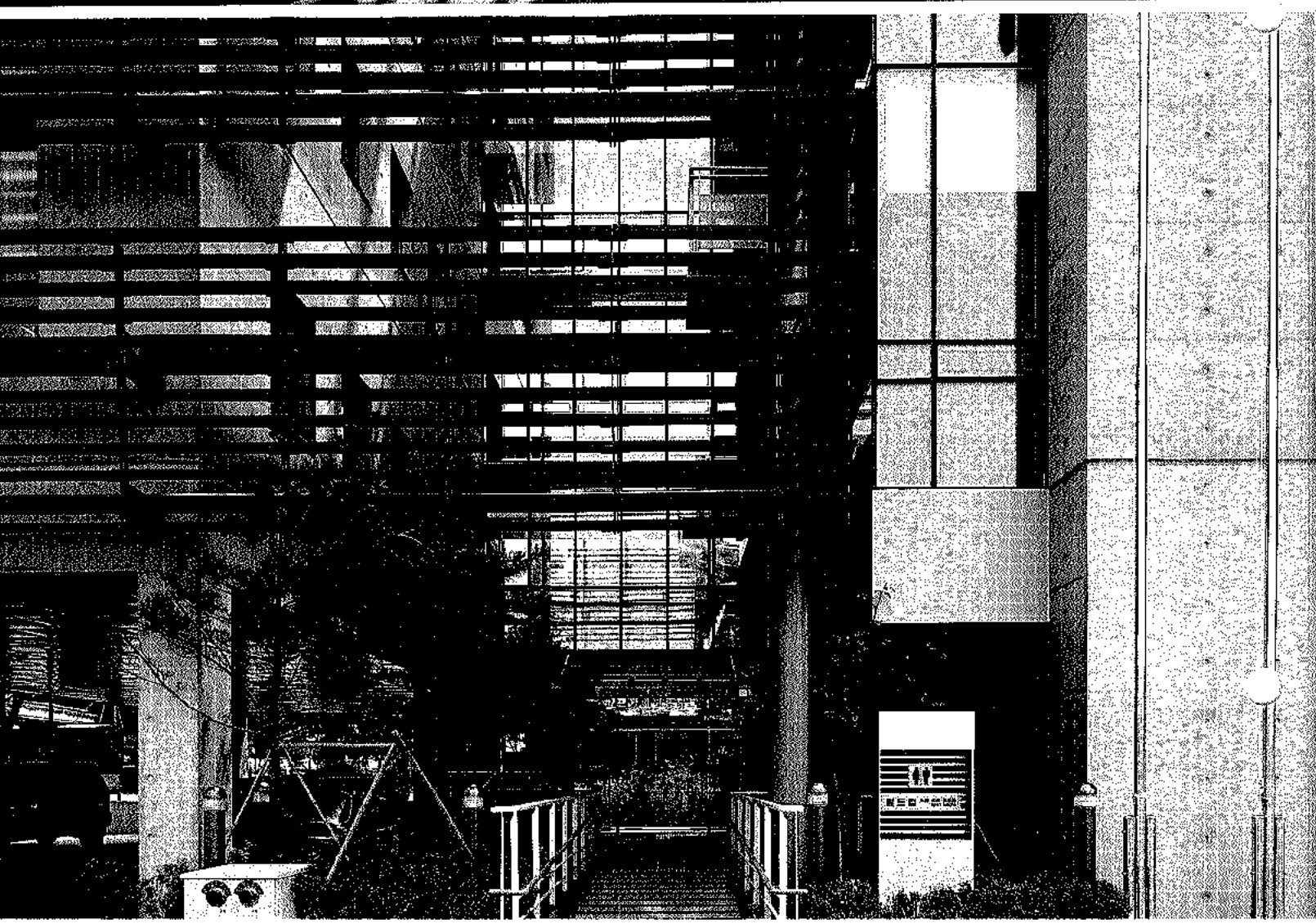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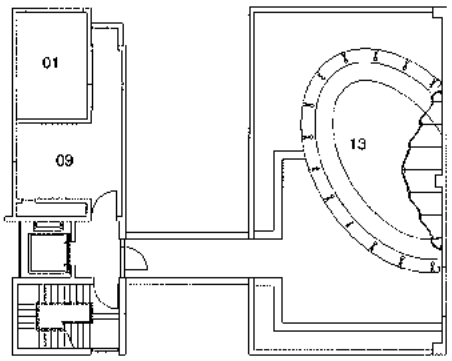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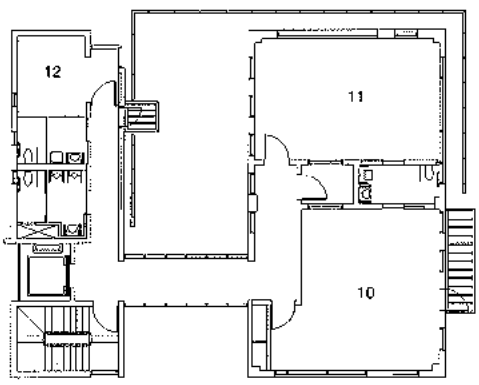
미포장애인종합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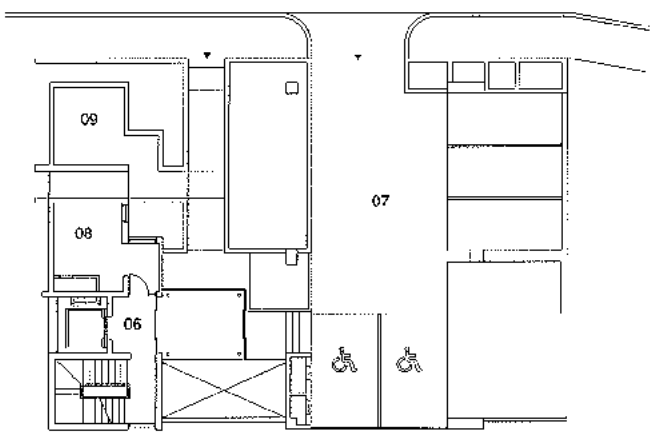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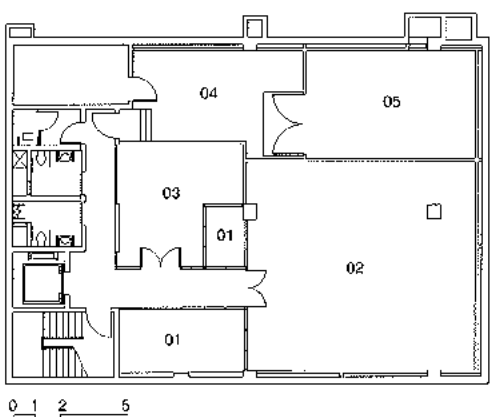
7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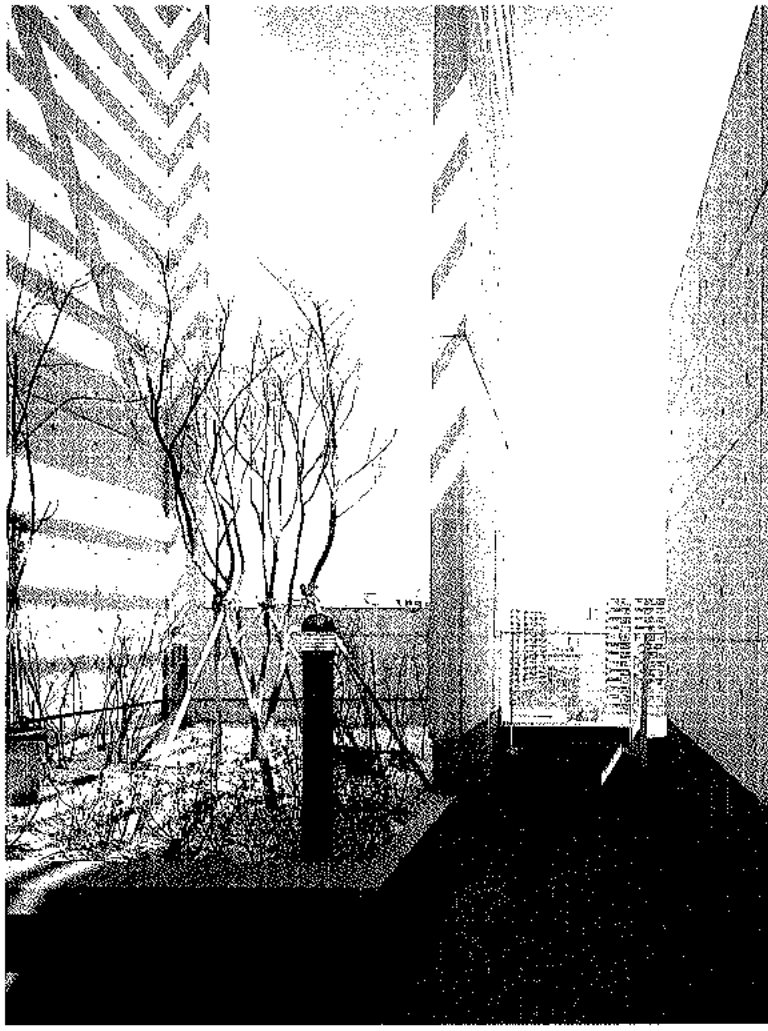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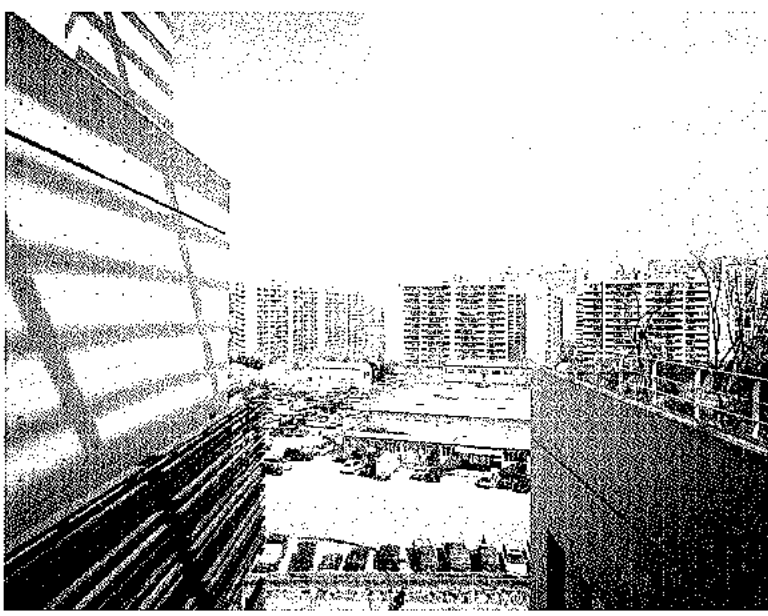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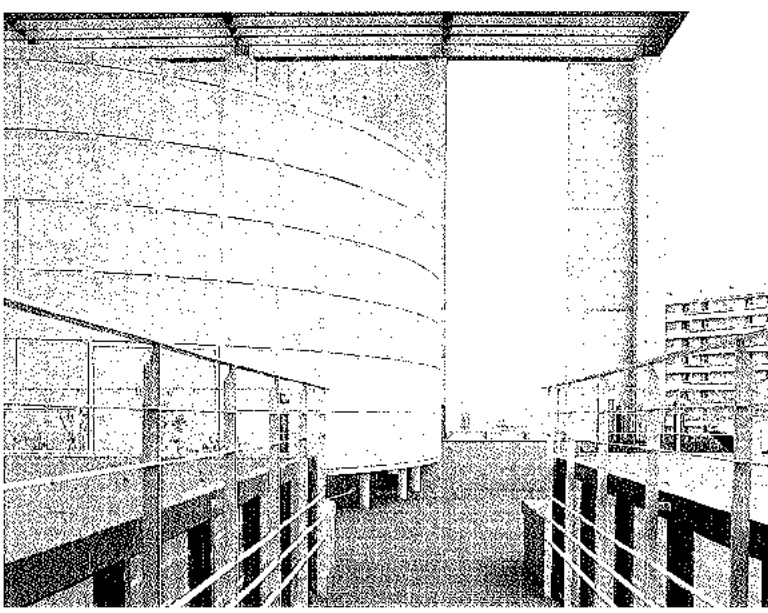


01_ 조경
02_ 재활작업장
03_ 체력단련실
04 기계실
05_ 전기실
06_ 홀
07_ 주차장
08_ 안내실
09_ 휴게실
10_ 물리치료실
11_ 집단활동실
12_ 에너실
13_ 심리치료(암벽등반, 국기)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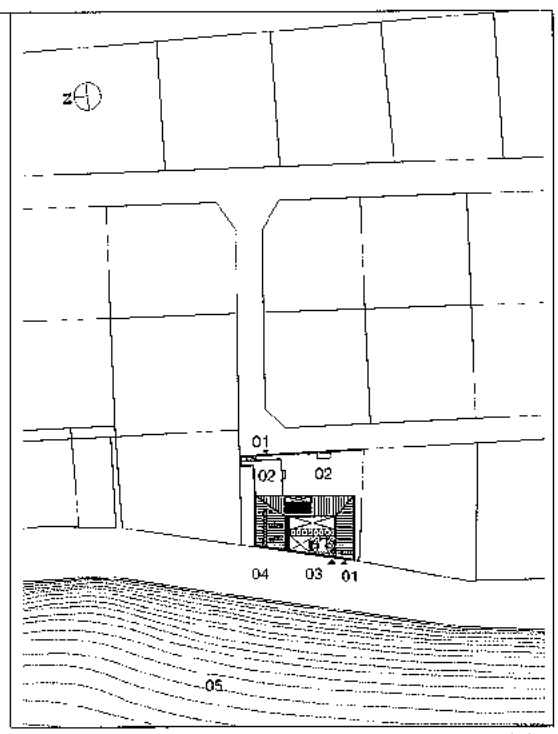


상선재(上善齋)
Sangsunjai

김효만 / 이로재 김효만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yo-Ma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번지 595호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주요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324㎡
건축면적	96.60㎡
연 면 적	244.92㎡
건 폐 율	29.81%
용 적 율	65.65%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구 조	철골조
내부마감	바닥 - 지정리노륨 벽 - 미송판/무광락카, 벽지, 압출성형시멘트판 천장 - 스틸데크플레이트/우레탄페인트, 천정지
외부마감	지붕 - 스텐레스판 거멀접기 벽 - 내후성강판, 스텐레스거멀접기
설계담당	한지원
구조설계	전광민
조 명	LITEWORK
건 축 주	황선배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01_ 주차 02 마당 03_ 대문 04_ 12m도로 05_ 이대뒷산 배치도

이화여대 뒷산과 바로 면하며, 봉원산을 가까이 보는 이 북아현동의 대지는 오랫동안 풍치지구를 유지해왔으며, 앞으로 이 지역이 더욱더 상업화되어 개발되어도, 이 대지가 면한 도로 주변은 오랫동안 자연 풍치적 면모를 유지하며 남아있을 것으로 확신될 만큼, 이 대지는 그 위치가 주거지와 봉원산의 경계선상에 있다.

현대인은 도심속 한가운데에 있는 자연속에 거주하는 쾌감을 추구하는 것 같다. 기능적 도시속에서 생활의 편리함을 영위하면서도, 동시에 자연속에서의 본능적인 삶을 구가하기 위함일 것이나, 도시속에 이제는 그러한 땅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다.

남산타워를 중심으로한 서울시내 전경을 앞으로 하며, 측면과 후면의 산에 면해있는 이곳은 아직도 전형적인 주거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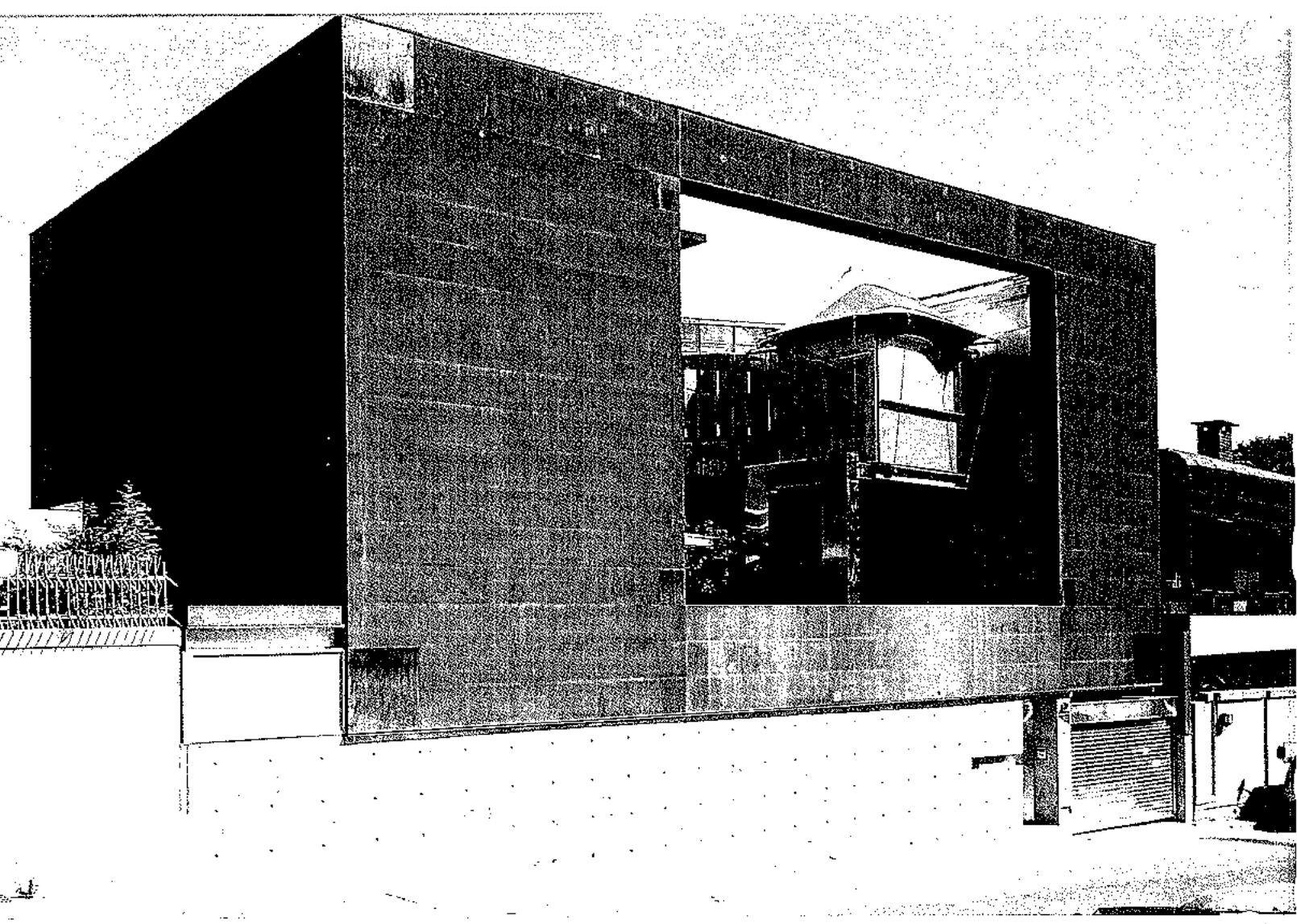
이 북아현동은 아주 오랜동안 주거지로서의 명맥을 유지해온 동네이어서, 그 주변의 주택들도 그 지나온 역사를 말해주듯이,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도시적 중후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서울시내에서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과거의 도시적 삶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성 깊은 동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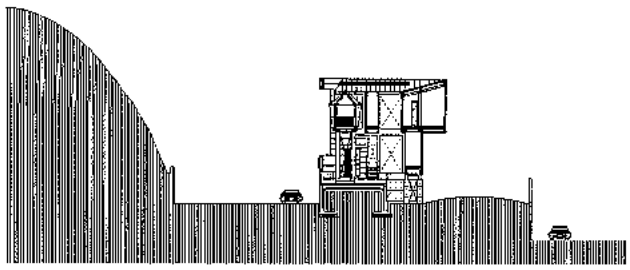
이 주택은 기존 주택의 지하층과 축대를 그대로 두고 새로운 주택을 증축하는 일이었으며, 그것은 배치 계획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계획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했던 것들은, 첫째 봉원산과 서울시내 전경을 흡수하면서, 이 자연과 도시를 모두 껴안는 풍부하고 다양한 공간적 사건을 수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수개의 "마당"을 만듦과, 램프등을 통한 "건축적 산책로"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다.

둘째는 공사비의 절감이었으며, 이 방안으로서 기본적으로 철골의 골조를 그대로 노출시켜, 구조재가 동시에 마감재가 되는 방식을 취하여 경제성을 획득하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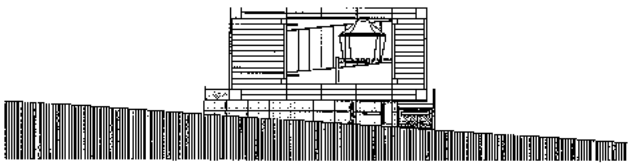
셋째는, 주변 주택들이 구성하고 있는 오래된 빛깔의 도시적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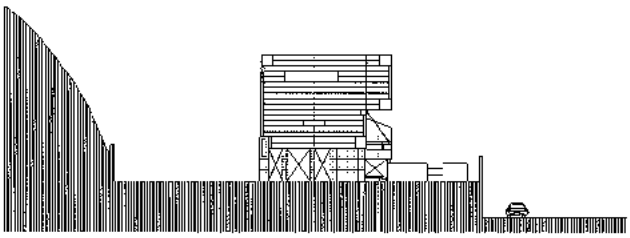


0 1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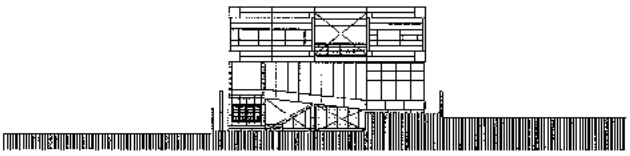
단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락 속에 자연스레 동참될 수 있는 재료와 형태에 대한 고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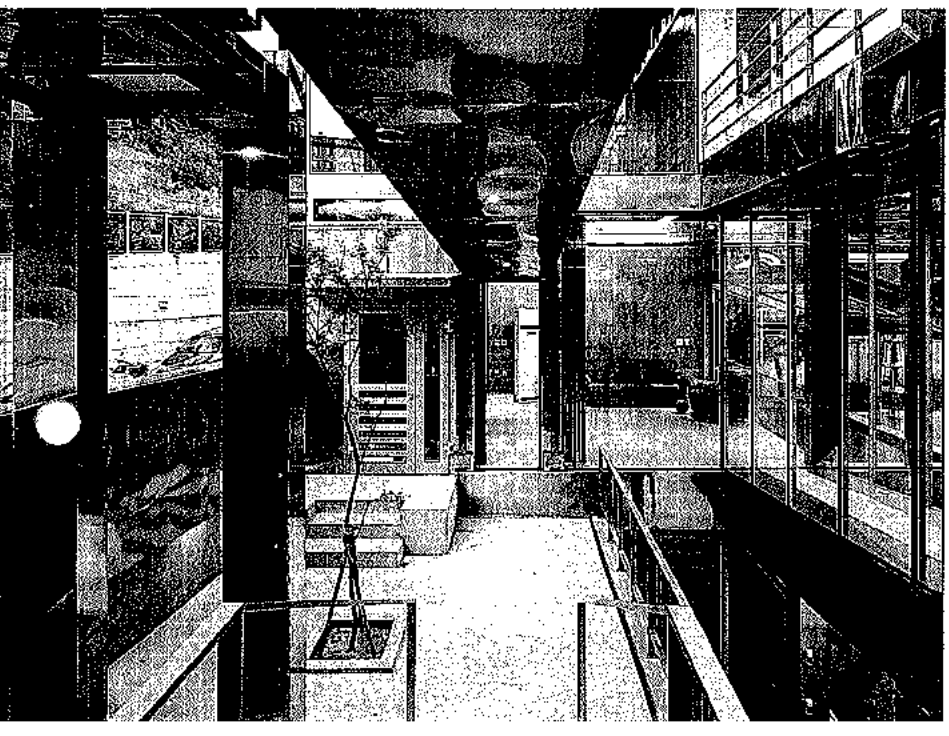
이의 해결로서, 처음부터 나이들어 있는 재료인 녹슬은 내후성 강판으로 표면이 구성되어 있는 단순한 상자형 MASS가 기본형이 되었으며, 이는 과거의 역사를 머금은 오래된 것이 되어주기를 바람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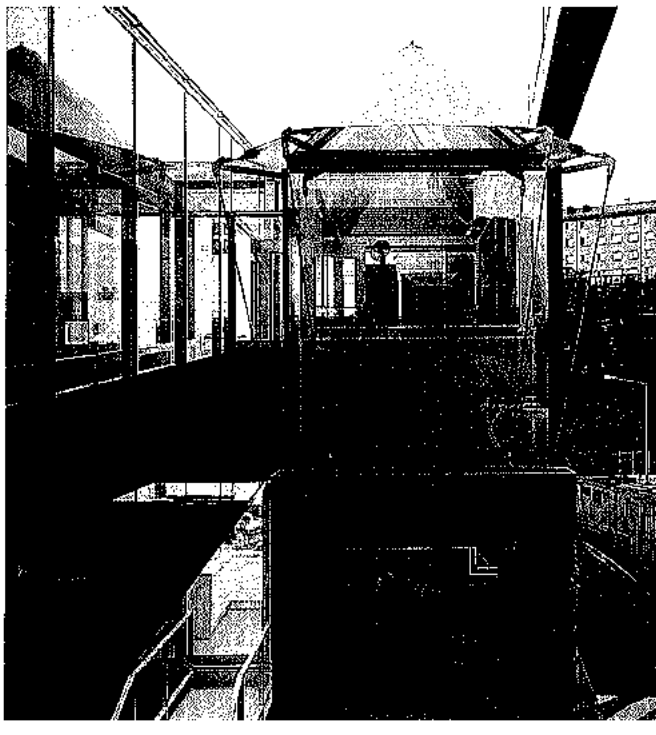
이 녹슬은 MASS의 내부는 의도된 삶의 형식에 따라 여러 "마당"의 공간이 뚫리게 되어 새롭고 풍요로운 삶의 이야기가 피어나기 시작할 것이며, 이 뚫린 주변의 내부 표면이 될 속살은 현대적 표현인 스텐레스로 구성되면서, 이것은 이제부터의 새로운 삶의 역사를 의미하게 되어, 외곽 도로측과 인접대지변은 내후성 강판으로, 내부 마당측변 벽면은 스텐레스로 구별되면서, 두 재료를 통해 시간의 차이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결국, 내외부가 전체적으로 메타릭한 분위기를 구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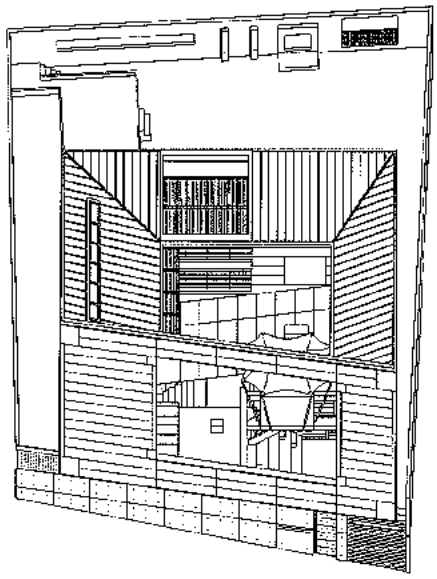
친구의 동생이며 젊은 사업가인 건축주와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대지도 같이 구입했다. 내후성강판이라는 생소한, 그리고 어느 정도 거부스럼기한 재료의 수용은, 주변의 맥락속에서 튀기 싫어하는 그의 성향과 젊은 감각이 작용한 것일 것이며, 내후성강판 외벽에 부분적으로 녹슬지 않은 색채로 강조되어 보이는 부분들은 그의 아이디어에 의해 실현될 정도로 그는 매사 꼼꼼하면서 기술적 디테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렸을 때부터 전통 한옥에서 생활해온 그의 경력은 "마당"에 대한 적극적 수용의 원인이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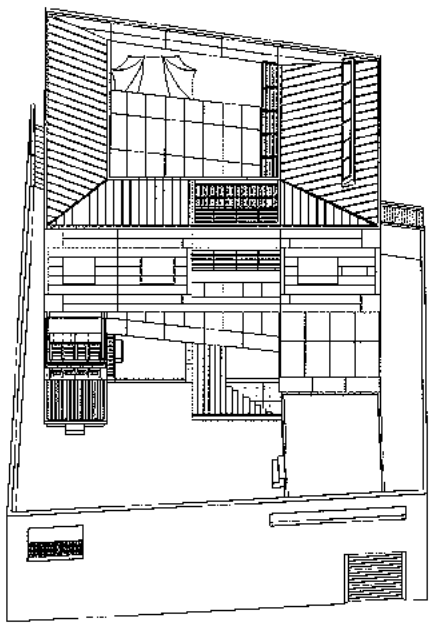
상선재는 그가 지은 이름이며, 그 근원은 그가 좋아하는 노자의 "상선약수"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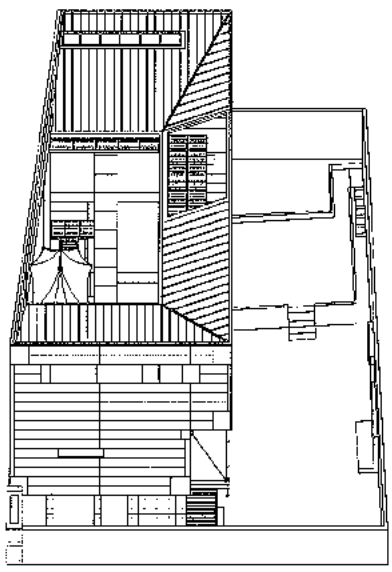
도시속 한가운데의 남아있는 자연을 배경으로 한, 오래된 도시속에, 오래된 듯함으로 주변 맥락에 동참하며, 철골재의 고유한 물성을 통해, 메타릭한 현대적 감각을 지니면서 동시에, 그로인해, 저렴한 공사비로 지어져야 할, 풍부한 삶의 공간적 프로그램을 가진 한 도시주택에 관한 연구였다.(글/김효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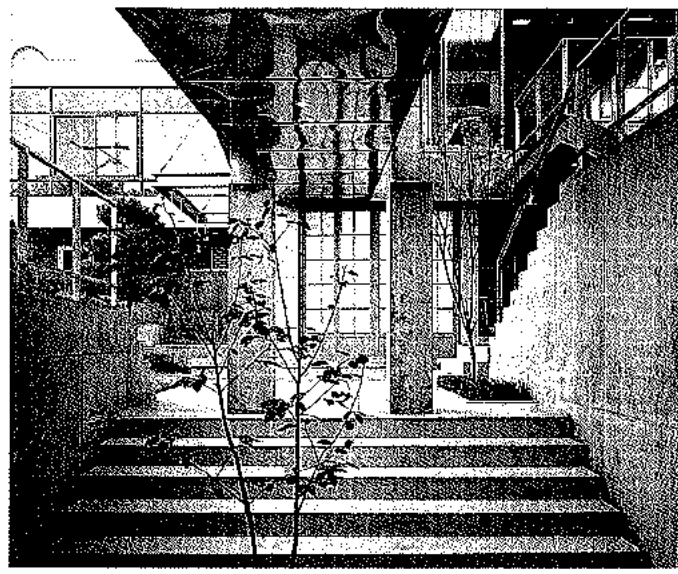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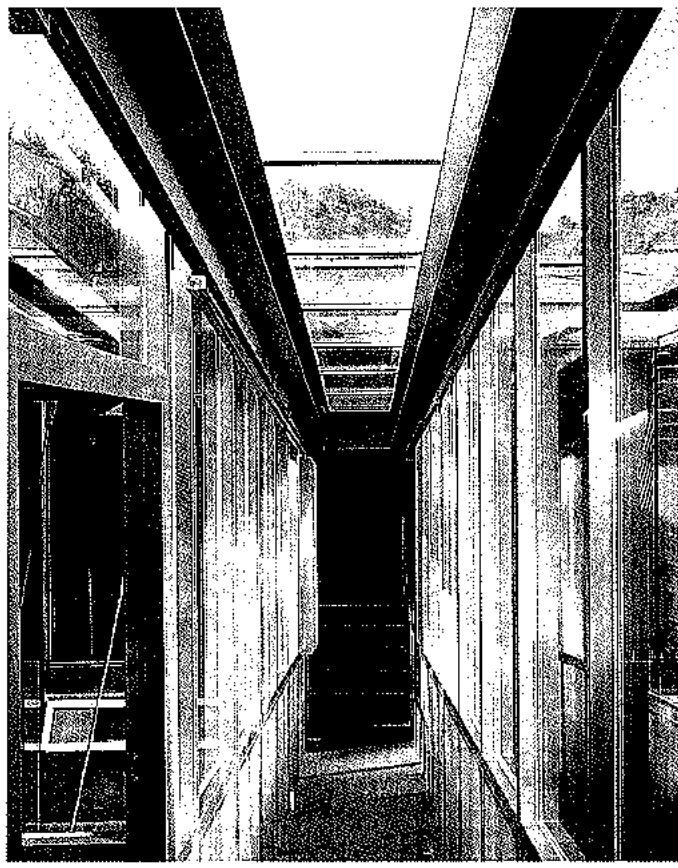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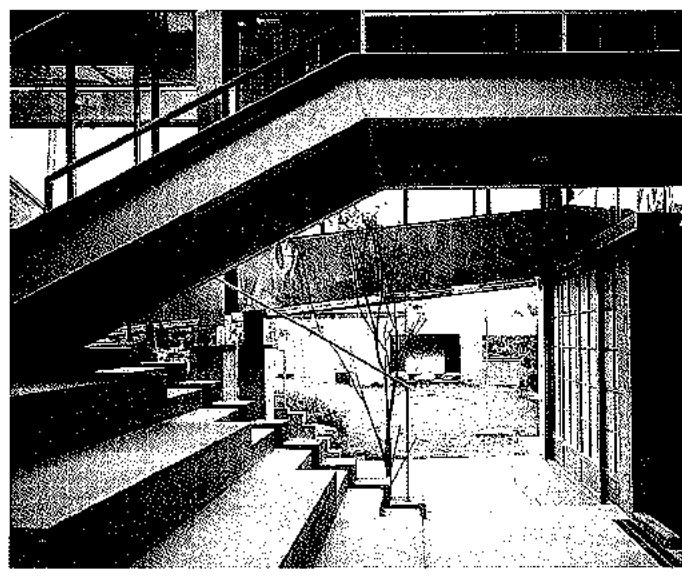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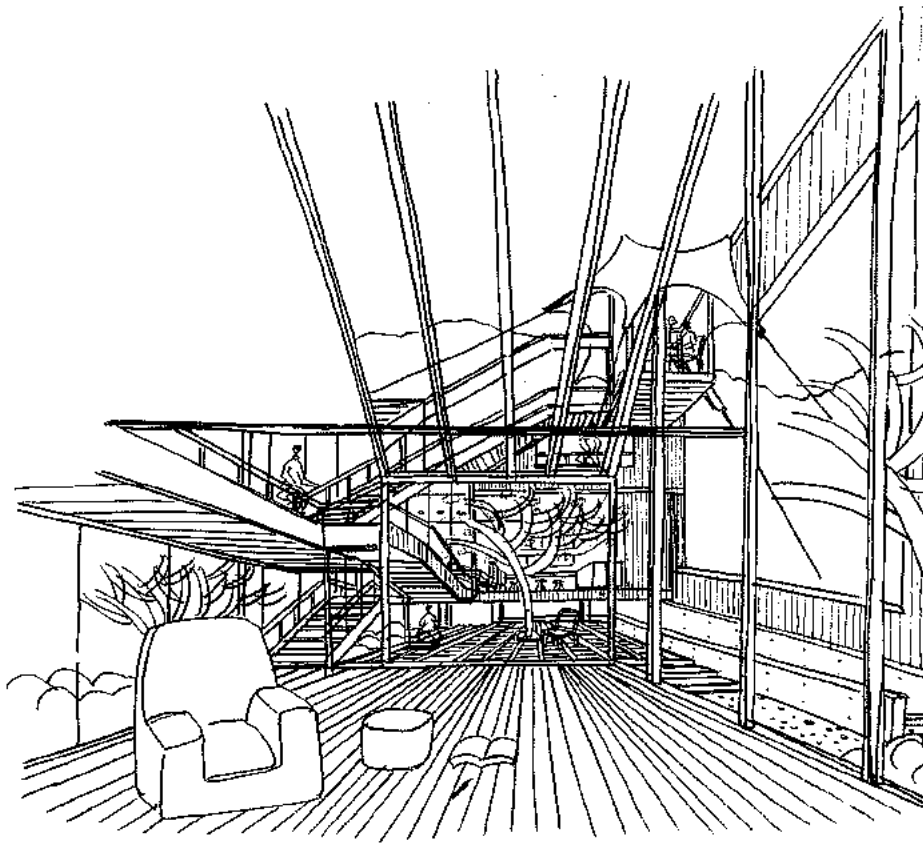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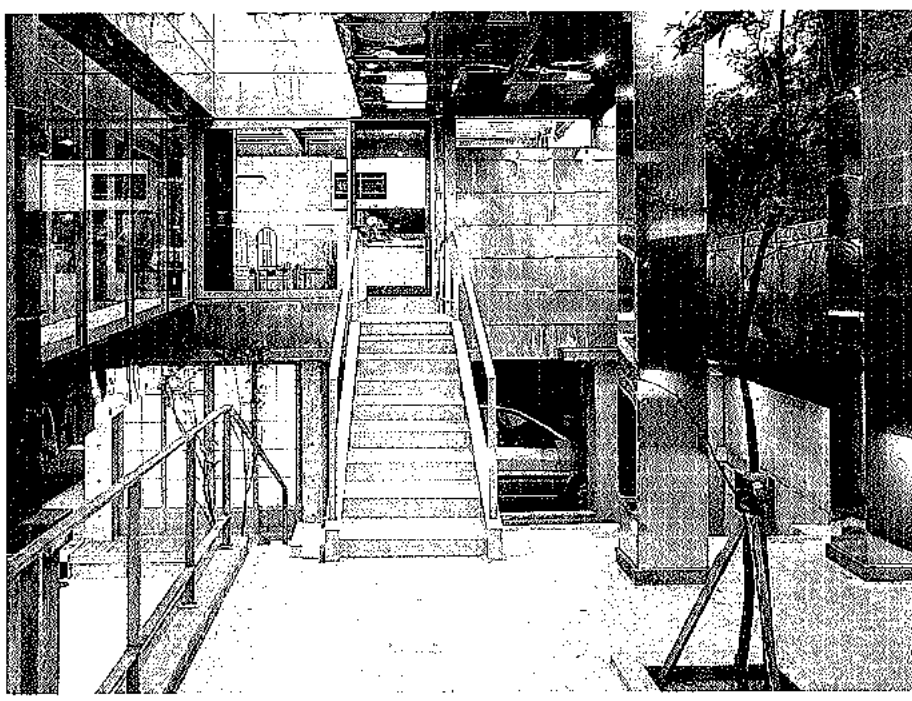
액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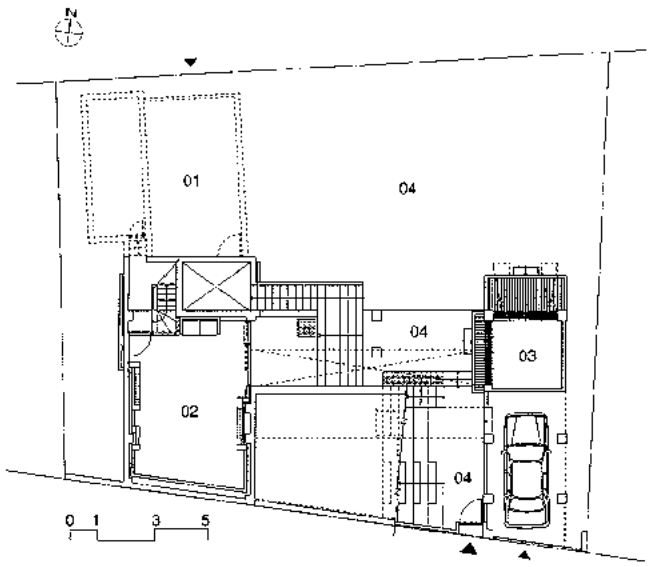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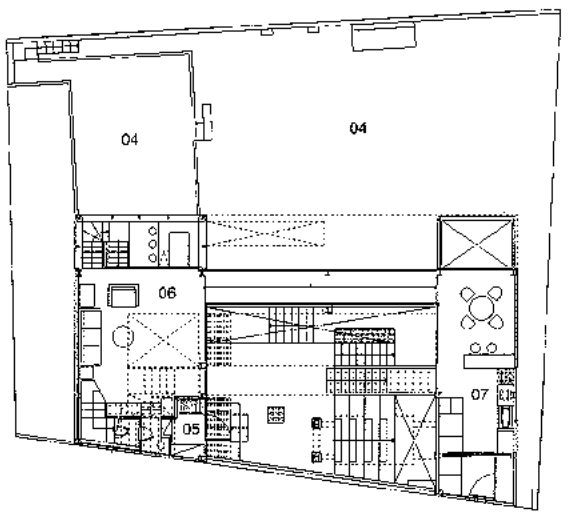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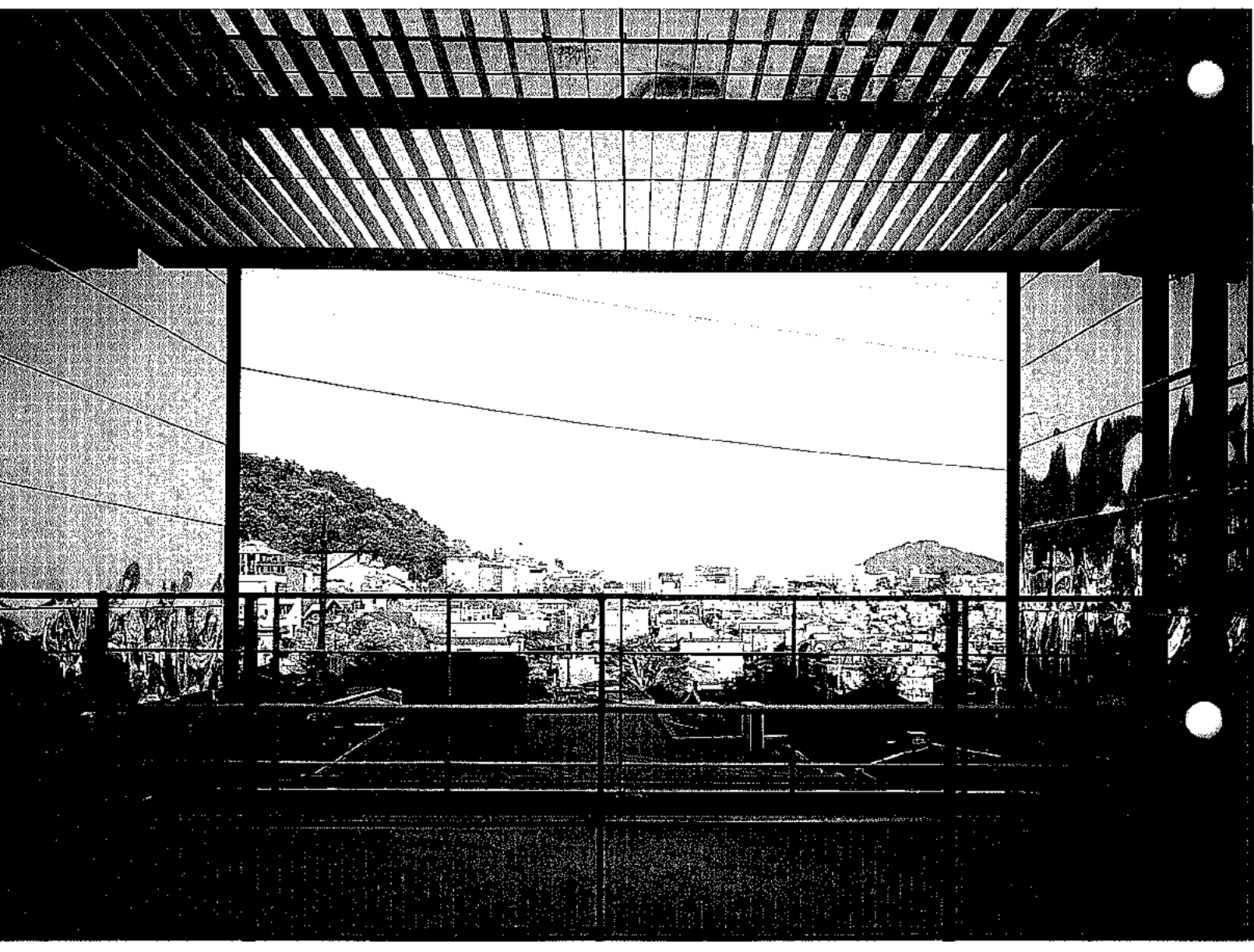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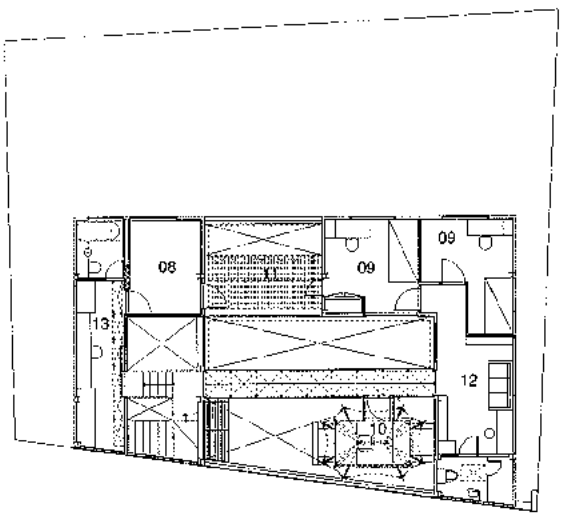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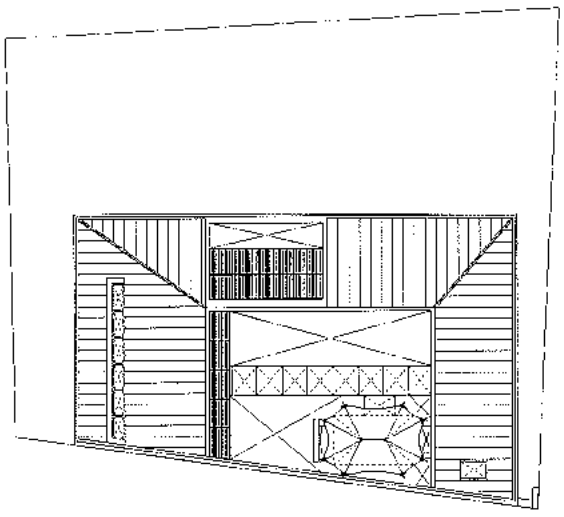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01_ 기존지하창고
02_ 체육실
03_ 손님방
04_ 마당
05_ 현관
06_ 거실
07_ 주방
08_ 주인침실
09_ 아이방
10_ 서재
11_ 옥상마당
12_ 가족실
13_ 드레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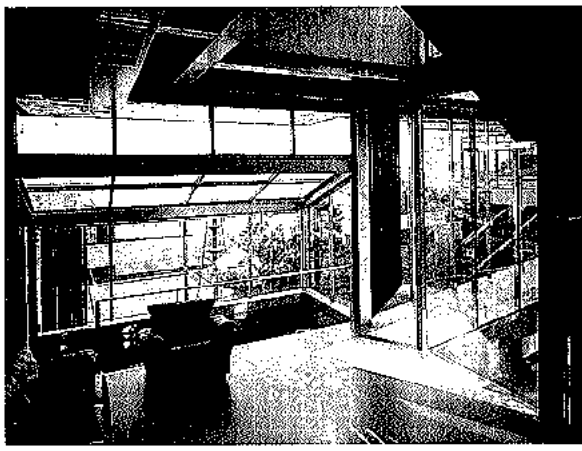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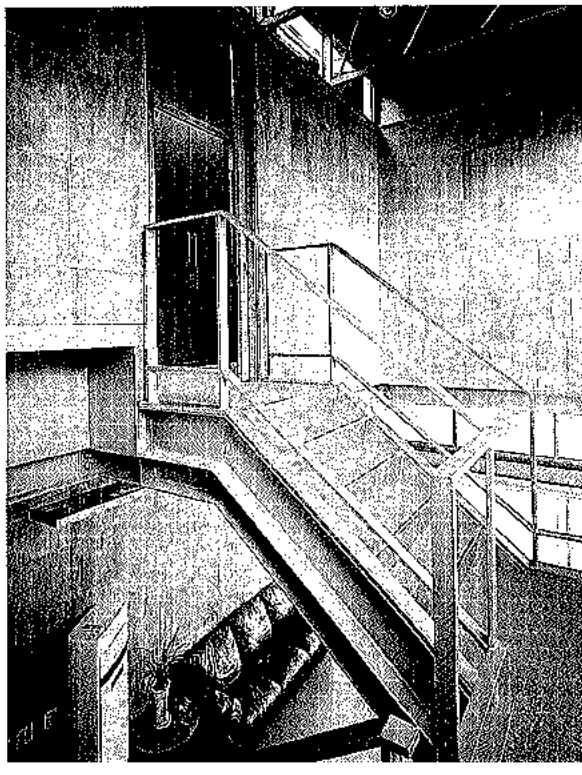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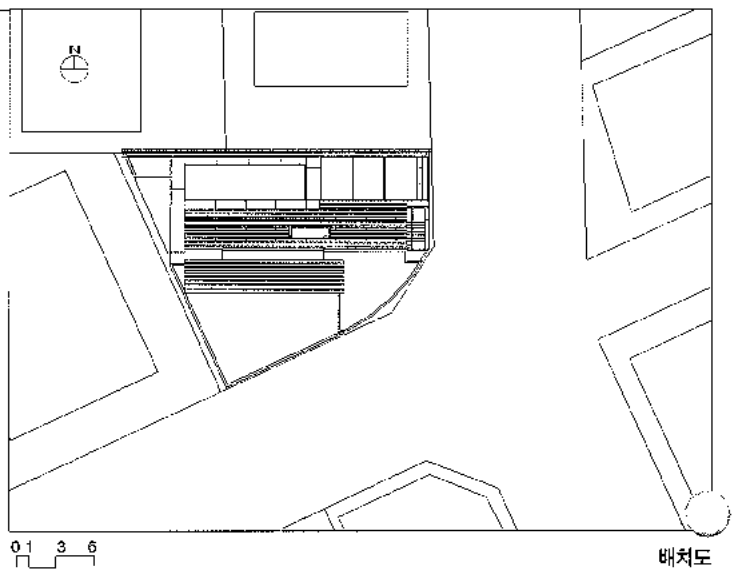


휘어지는 집
The Bent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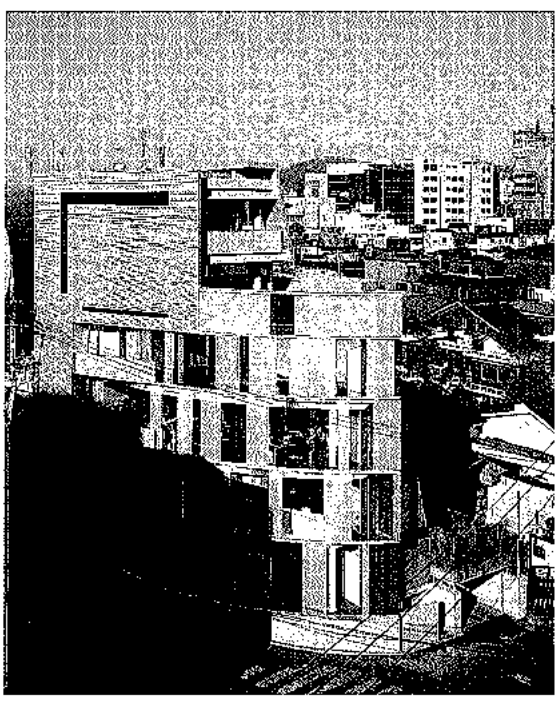
김인철 / (주) 건축사사무소 아르키움
Designed by Kim In-Cheurl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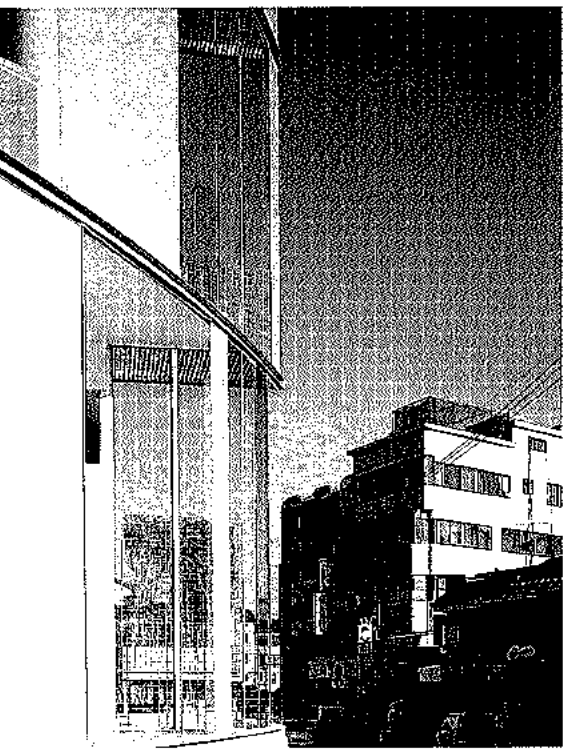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9-18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대지면적	305.90 ㎡
건축면적	173.80 ㎡
연 면 적	1,222.50 ㎡
건 폐 율	56.82 %
용 적 률	235.89 %
규 모	지하 2층, 지상 6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최고높이	19.11 m
외부마감	T10 접합유리, T0.6 아연도 골강판
내부마감	석고보드 2겹 위 착색락카
주요설비	개별냉난방방식
설계담당	김용오
인테리어	아르키움, 랄랄라(이정라)
구 조	홍익대학교 구조연구실
설 비	미래설계
전 기	협인전기
조 경	성심조경
A / V	CRISS
조 명	신광조명
시 공	유창공사
감 리	아르키움
건 축 주	채상병, 전영임
설계기간	2001. 6 ~ 2001. 9
공사기간	2001. 10 ~ 2002. 11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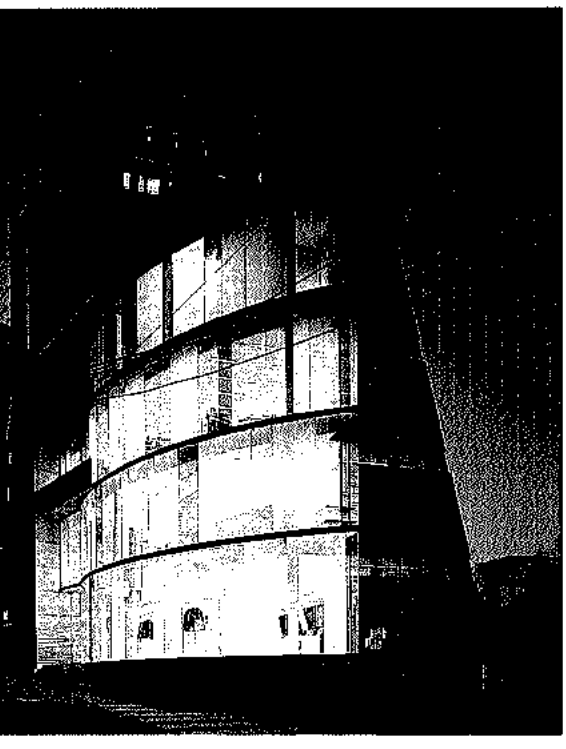


배치도



강남 지역은 길의 폭으로 도시의 밀도가 조절되는 기형적인 도시계획의 산물이어서 주 도로와 이면 도로의 풍경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도회적 풍경과 마을의 풍경이 한 겹의 켜로 나뉘어 있다. 주 도로와 면한 반대편의 구역은 고층과 저층이 맞닿아 고밀과 저밀의 경계를 이룬다. 50미터 폭에서 10미터 미만의 폭으로 갑자기 축소되는 구조로 인한 가로 스케일의 부조화는 결국 계획도시의 다이아그램이 평면적이었던 결과이다. 길을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구획의 방법으로 다루었으므로 블록은 완고한 덩어리가 되어 내부의 경색은 감춰진 채 표피만으로 도시의 풍경을 만들고 있다. 그 내부인 이면 도로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큰





길의 포화상태 때문이기도 하지만 갈등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자생적인 욕구가 대안을 찾고 있어서 이다. 도시의 에너지가 표피를 지나 내부로 스며들며 주거용의 개별적인 건축들을 소규모 공용 시설로 변환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웅크리듯 숨어 있던 건축들이 담을 허물고 내용과 표정을 바꾸어 길과 소통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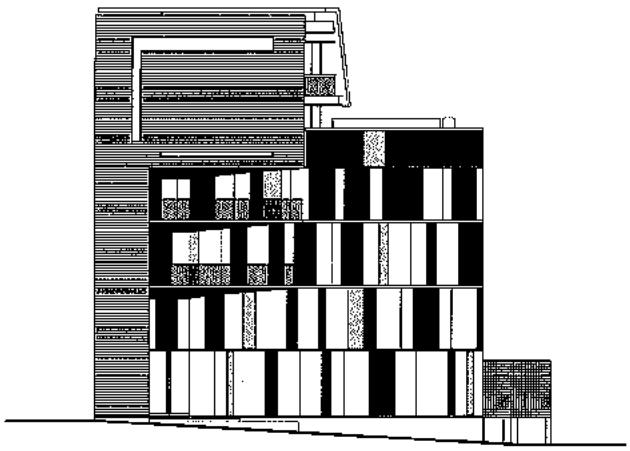
도산대로와 압구정동을 이어주는 이면 도로는 지름길을 찾는 차량들로 매우 분주하다. 이면의 도로 모퉁이에서 큰길에 반쯤 드러나는 위치인 대지는 작은 규모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자가의 효용성을 확보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주거지역의 코드를 적용해야 하므로 자유로운 여유를 전혀 갖지 못한다. 기업의 규모가 아닌 부띠끄이지만 패션 디자인의 모든 프로세스와 주거까지 포함되어야 하므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치를 확보해야 하나 도로 폭의 조건보다 일조의 사선제한이 심각하였으므로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의 절대 값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집을 놓아야 하는 위치와 크기와 형태가 정해진 상태에서 공간 만들기는 덧붙이는 조소이거나 조각의 파내는 작업이 된다. 결국 조형 작업이 되는 것이다. 주거용으로 나누어진 필지에 상업용의 공간과 기능을 넣어야 하는 모순이 만드는 태생적인 결과이다.

땅의 모양대로 형태는 이미 주어져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형상을 만들어야 하였다. 재료의 물성과 디테일을 파고들면 그 한계를 넘어가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철골을 구조로 택한 것은 골격이 드러나더라도 최소치이도록 하려는 것과 철골의 단면이 갖고 있는 여분의 공간을 이용하면 공간의 한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설재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을 외벽과 칸막이의 뼈대로 삼아 무게를 덜고 좁은 길에 부담을 더하지 않도록 주름진 골 강판으로 외부를 마무리했다. 전면의 휘어지는 벽은 완벽한 열림을 위해 투명하게 만들었다. 맨 유리의 면으로 거리를 향한 커다란 쇼윈도가 되는 창틀이 없는 유리만의 벽이다. 여러 가지 크기로 유리를 나누고 색과 투명성의 그라데이션을 주면 내부의 풍경-디자인 작업이 투영되는 효과와 함께 입면의 우연적인 다양함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정해진 틀의 입면-형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입면이 변화한다면 곧 틀을 벗어나는 형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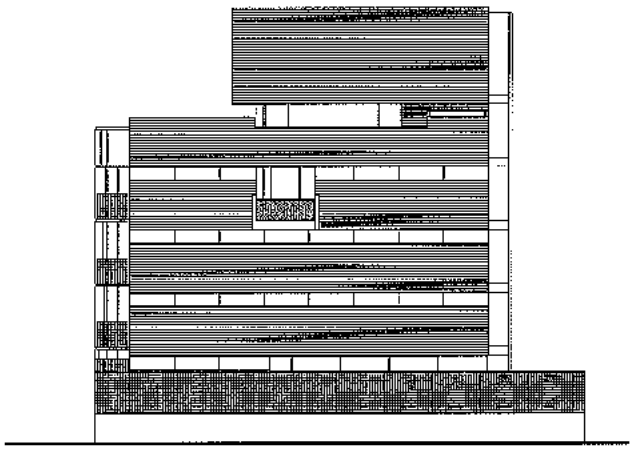
유리에 대하여

건축은 땅(a place)을 장소(the place)로 만드는 작업이다. 장소성이라는 명제로 그 땅의 의미를 읽어 건축화 하려는 것과 다른 의미에서 건축으로 땅을 의미화 시킬 수 있다. 포세이돈 신전이 그곳에 놓여져 있지 않다면 수니온은 그저 해안의 절벽에 지나지 않지만 그 곳에 그 것이 있다는 사실로 그 곳은 땅이 아니라 장소가 된다. 그 땅의 코드로부터 건축과 연결되는 고리를 찾는 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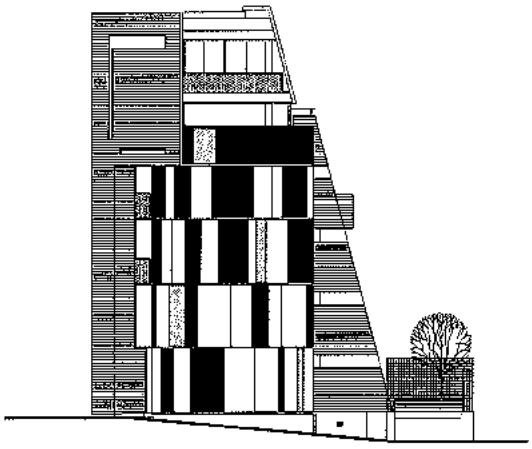
ZEPPELIN



남측면도



북측면도



동측면도

전에 건축은 이미 땅의 의미화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곳에 무엇을 놓는다는 것은 놓여진 것이 그 곳과 어떤 연결을 이루는가에 의해 의미를 갖게 되므로 건축은 결국 땅에 놓여지는 의미이다.

건축에 담겨지는 기능은 그를 해결해야 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주제가 되지 못한다. 건축이 하드웨어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의 내용인 프로그램은 결코 결정적이지 않다. 프로그램만의 해결이라면 기계적 장치만으로 충분하다. 휴게소의 기능은 자판기로 가능하고 수술실의 기능은 온갖 장비들로 해결된다. 건축은 프로그램의 배경일 뿐 그 해결에 주도적인 개입은 불가능하다. 기계적 해결을 위해 동원되는 하드웨어로서의 용도를 건축의 목적으로 삼으면 의미 없는 껍질만 있게 된다. 건축은 그것들을 모두 담아내는 한편 그것으로 의미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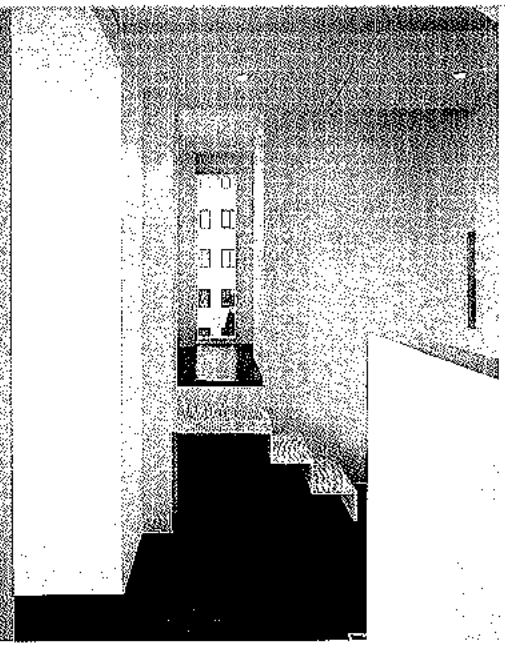
건축은 상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므로 매우 사실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동원되는 기법과 구사하는 재료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다. 세우고 쌓고 막고 붙이고 끼우고 칠하는 등등의 과정을 통해 상상이 드러나지만 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재료의 물성이 감추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려 한다. 작업의 방법론으로서 기법과 재료는 수단이지만 그것으로 하려는 목적은 의미의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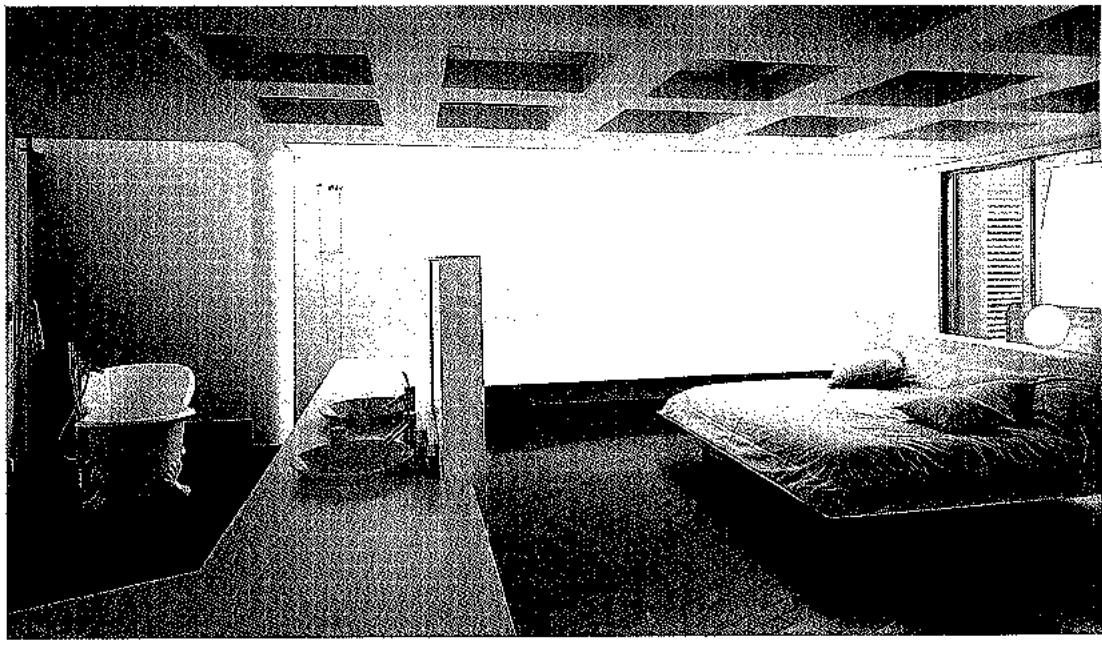
유리에 주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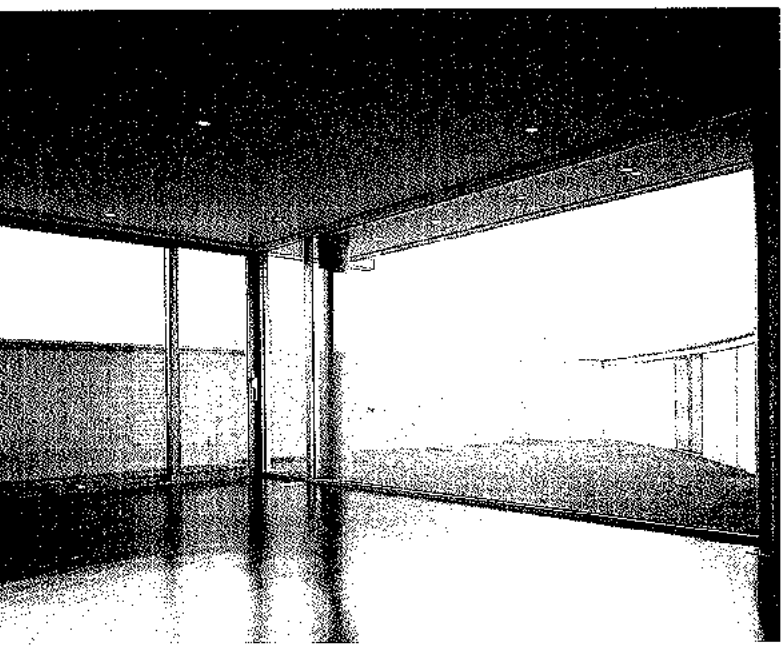
투명이라 특징지어지는 속성보다 가리기 위한 것이되 가려지지 않도록 하려는 이중성에 관심을 둔다. 가리려는 것은 방을 만드는 원초적인 요구이다. 둘러 세우고 닫아서 강고하게 안을 보호하는 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틈이 필요한 것은 스스로 원한 구속이 결코 편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으로 만들어졌으나 밖과 연결되지 않으면 안은 제대로 안이 되지 못한다. 가리더라도 열어서 가리려는 계략에 동원되는 수단이 유리이다. 비바람을 막더라도 빛과 공기가 통하며 풍경을 끌어들이고 속 모양을 보여주는 유리는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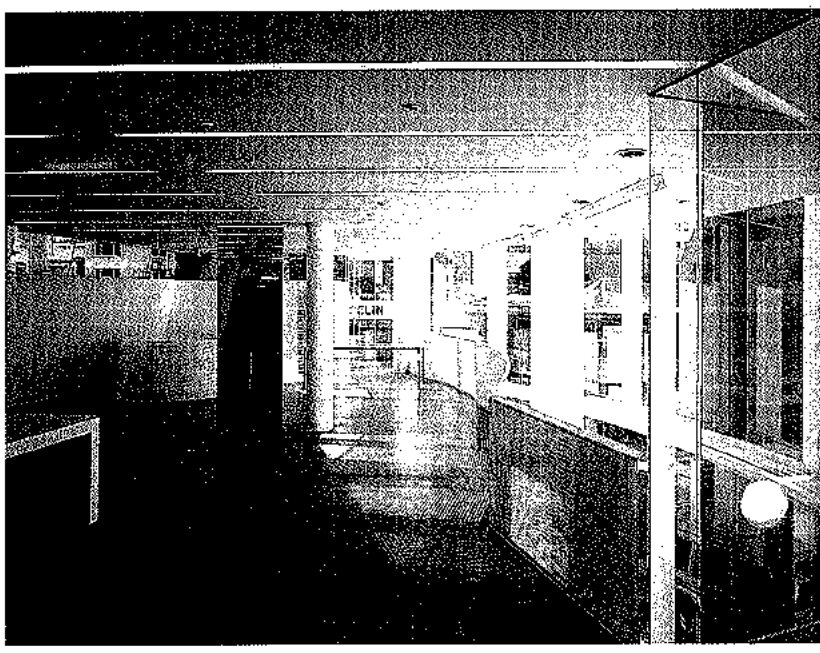
투명한 껍질인 유리는 막히되 열린 형국이 되어 특징적인 요소가 된다. 그 극단적인 적용은 액자에 끼어진 유리판이다. 그림에 덧씌워져 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유리의 존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합성수지의 투명 코팅처럼 투명함은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장치로서 쇼 케이스나 쇼윈도우 역시 유리로 만들어진 구조이나 막을 이루는 유리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드러나 보인다는 것이 그리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면 유리의 속성에 충실하게 의지해야 한다. 투명과 반투명과 불투명의 차이를 썩어 놓아 보임과 가림의 영역을 선택의 문제로 제안한 것은 그러한 구분이 건축의 몫이기 보다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이 영위할 그 곳의 일상의 것이라 생각했다. 건축의 표정이 건축으로 디자인되어 고정되기보다 그 속의 일상이 투영되어 만들어진다면 거리의 풍경이 살아 움직일 것이다.(글/김인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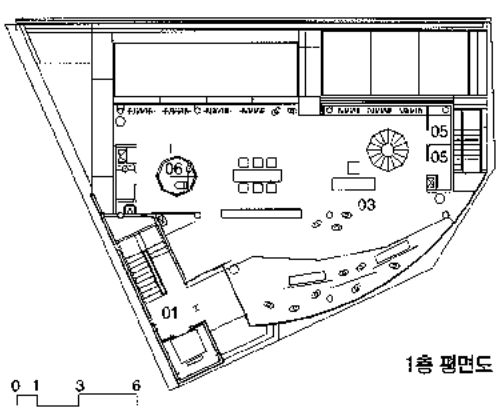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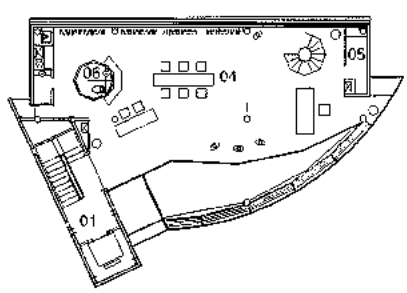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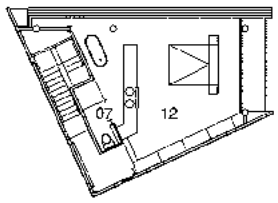
01_ 홀
02_ 사무소
03_ 쇼룸
04_ 크리에이티브룸
05_ 탈의실
06_ 화장실
07_ 욕실
08_ 방
09_ 식당
10_ 부엌
11_ 거실
12_ 주인침실
13_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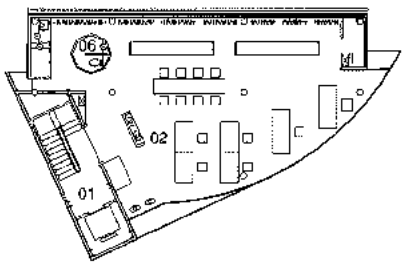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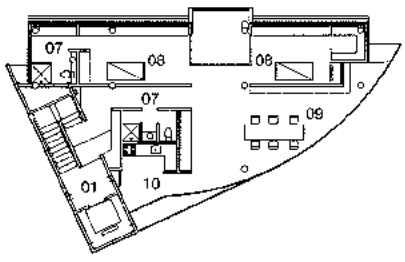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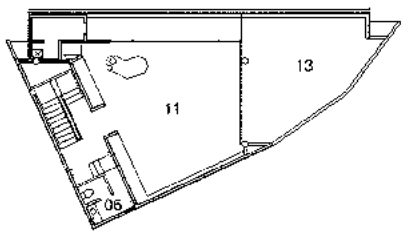
6층 평면도



3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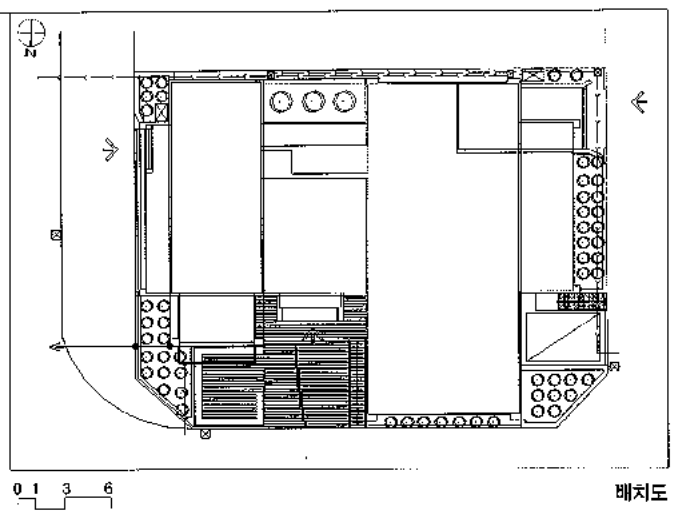
5층 평면도

평양면옥
Pyeongyang Myeonok

박영준 / 건축사사무소 우반건축
Designed by Park Young-Jun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52
대지면적	755.30㎡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규 모	지하 1층, 지상 6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연 면 적	2,994.12㎡
건축면적	488.02㎡
외장재료	T35 베이스패널, T24복층유리
설계감리	건축사사무소 우반건축
설계담당	이원석, 맹현진
시 공	태산종합건설(주)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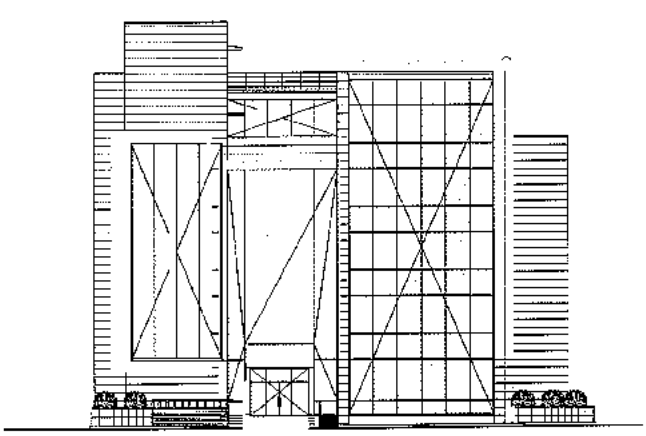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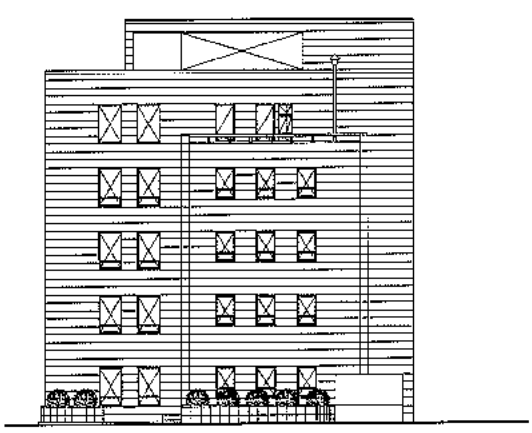
배치개념
- 자연채광을 수용하여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상호 관입되는 건물배치
- "ㄷ"자 배치의 중정형 형태로 후정에는 대나무 식재를 통하여 인접건물과의 차단 유도
- 주출입구 단을 높여 DECK로 구성한 전이계단 설치

평면개념
- "비움"과 "채움"으로 외부공간을 비워두고 내부공간을 실용도에 맞게 채움으로서 적절한 내·외부공간구성
- 본 MASS와 CORE에 대한 상호관입에 의한 MASS구성
- 주변건물과의 유기적 상관관계에 의한 투명성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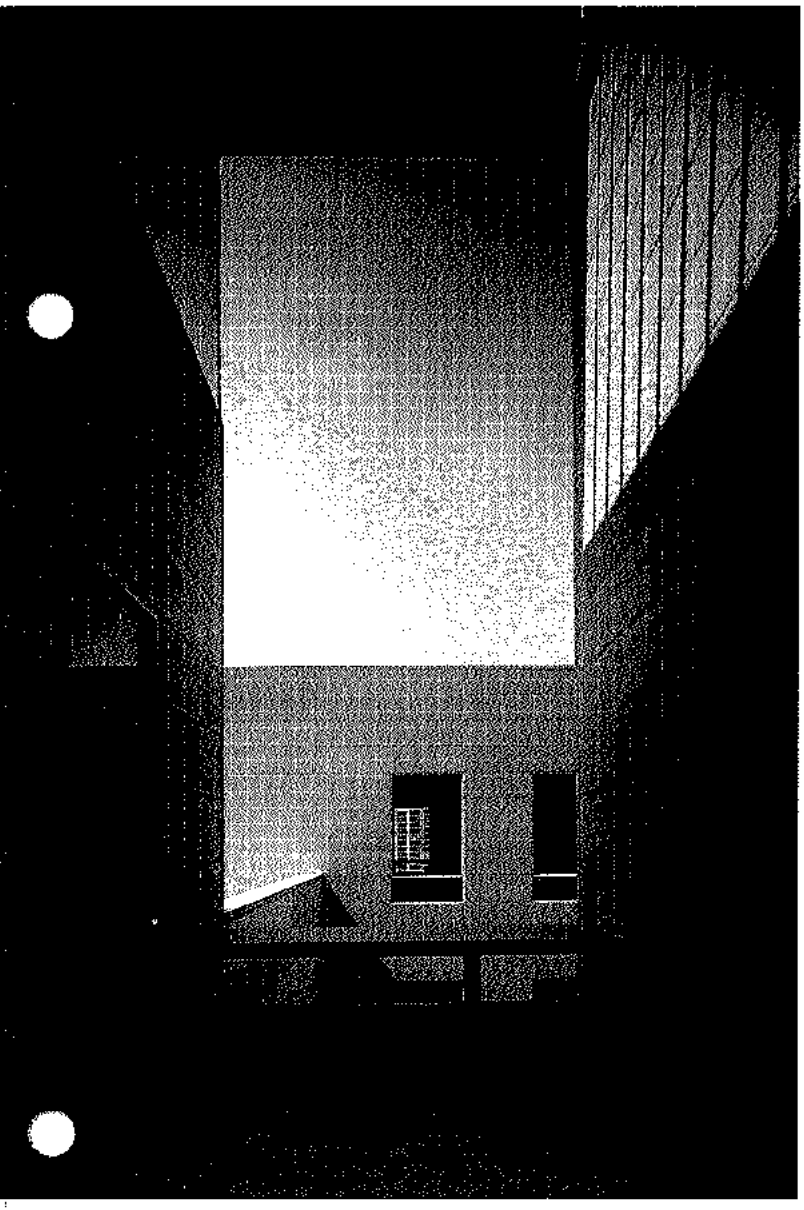
입면개념
- 병치 + 관입에 의한 MASS구성
- "닫힘"과 "열림"에 대한 극적효과
- 단순한 입면구성으로 함축적인 질서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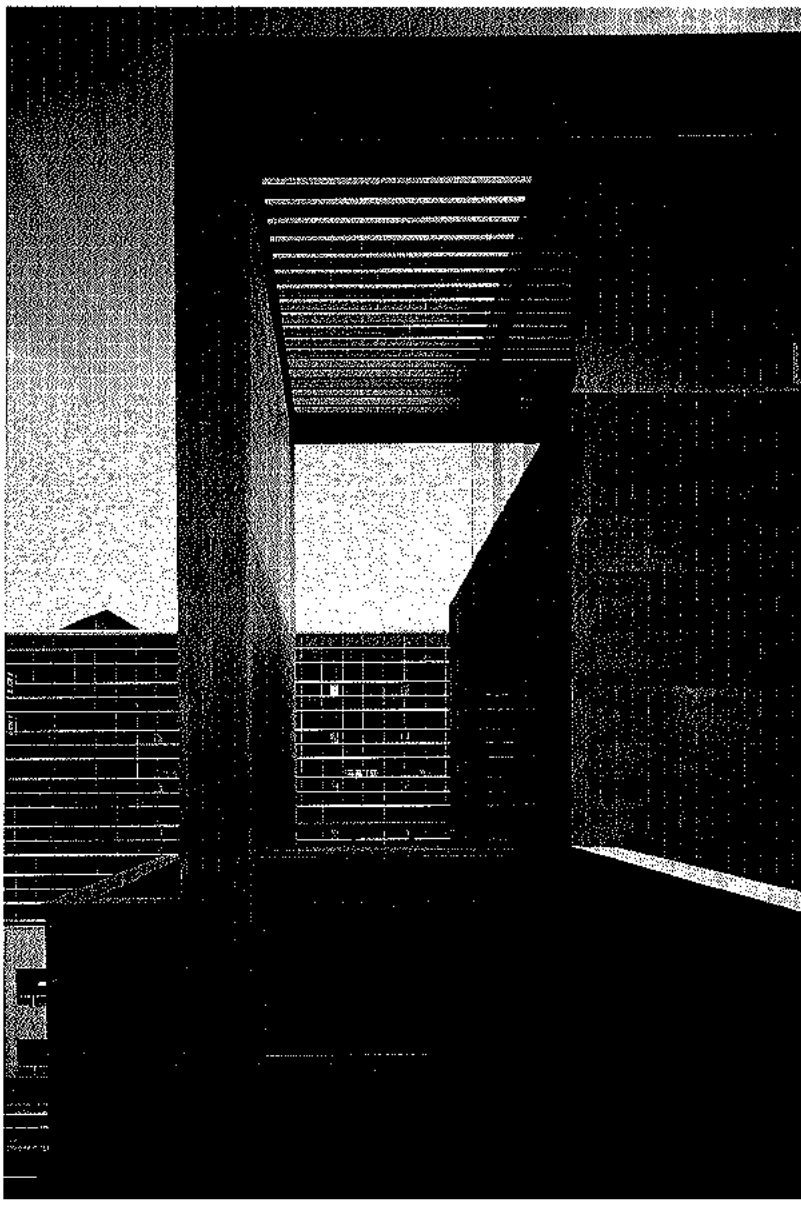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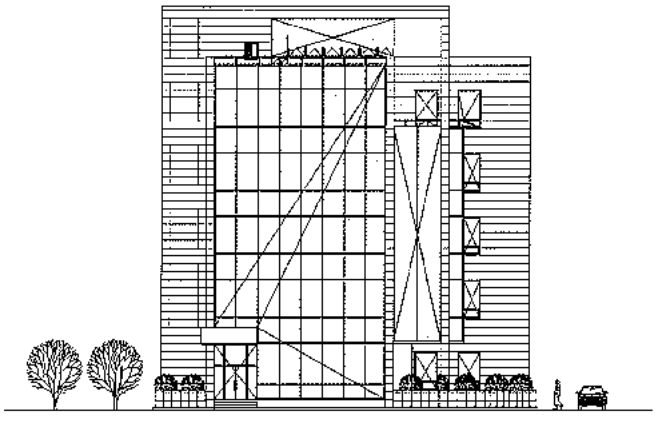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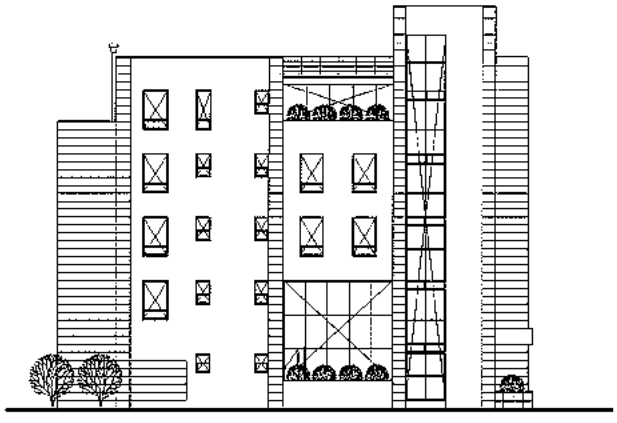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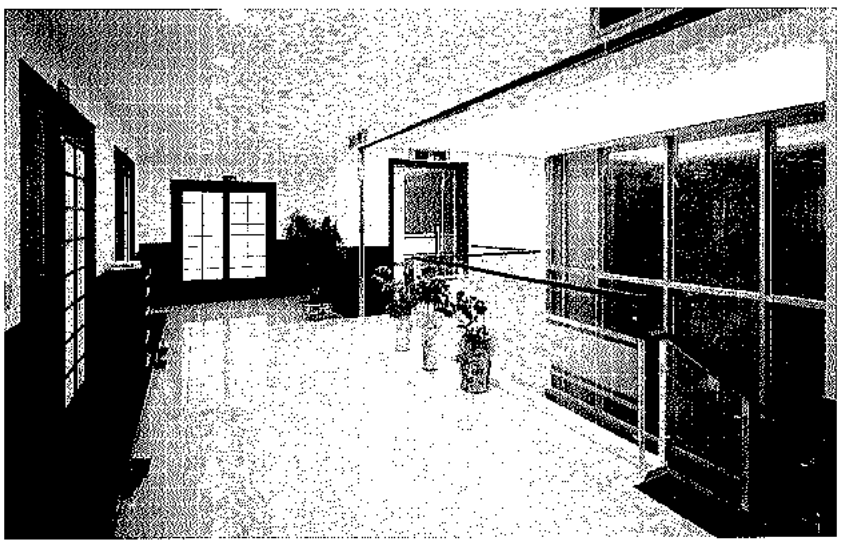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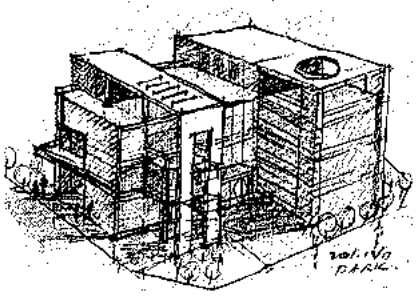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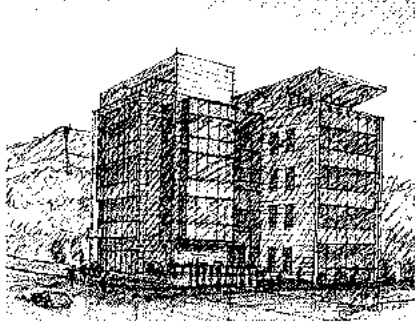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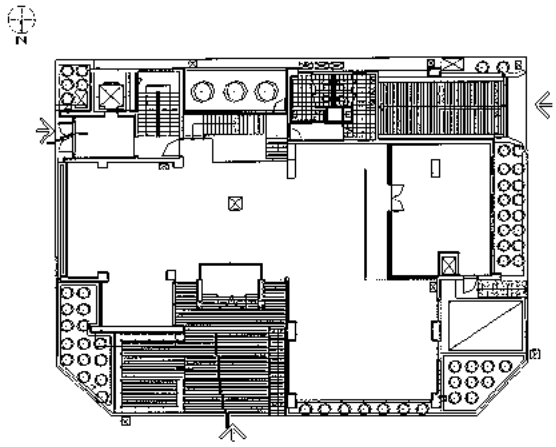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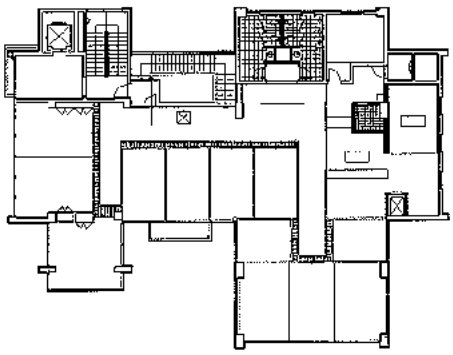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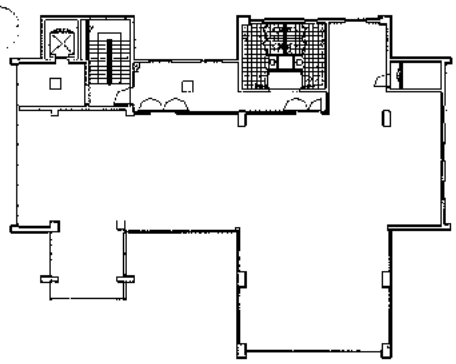


0 1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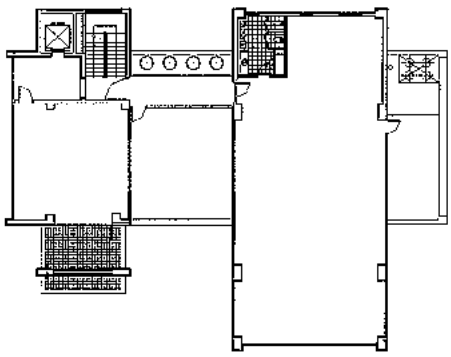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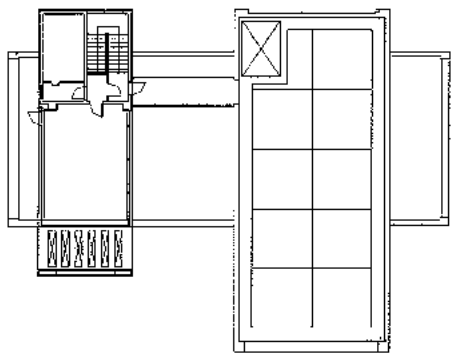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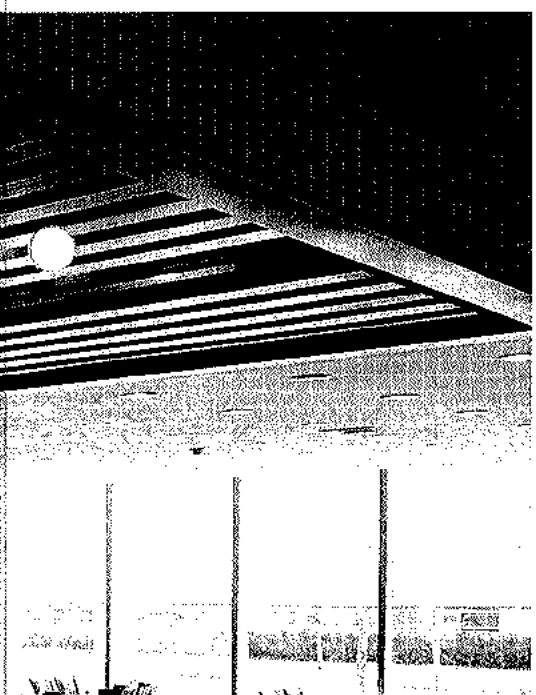
3,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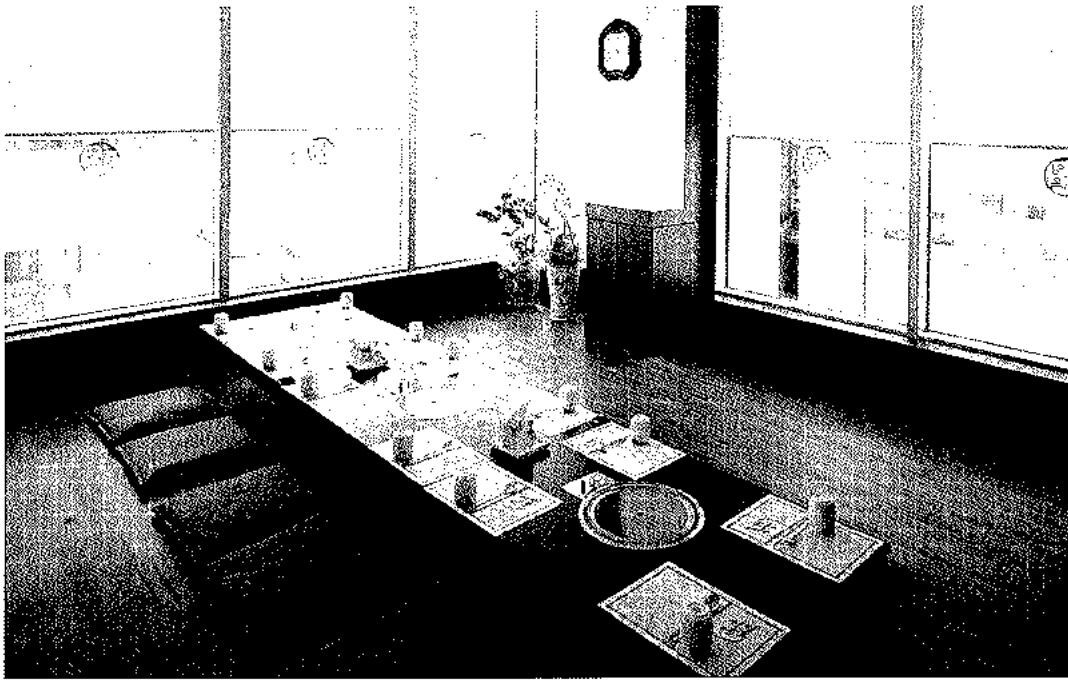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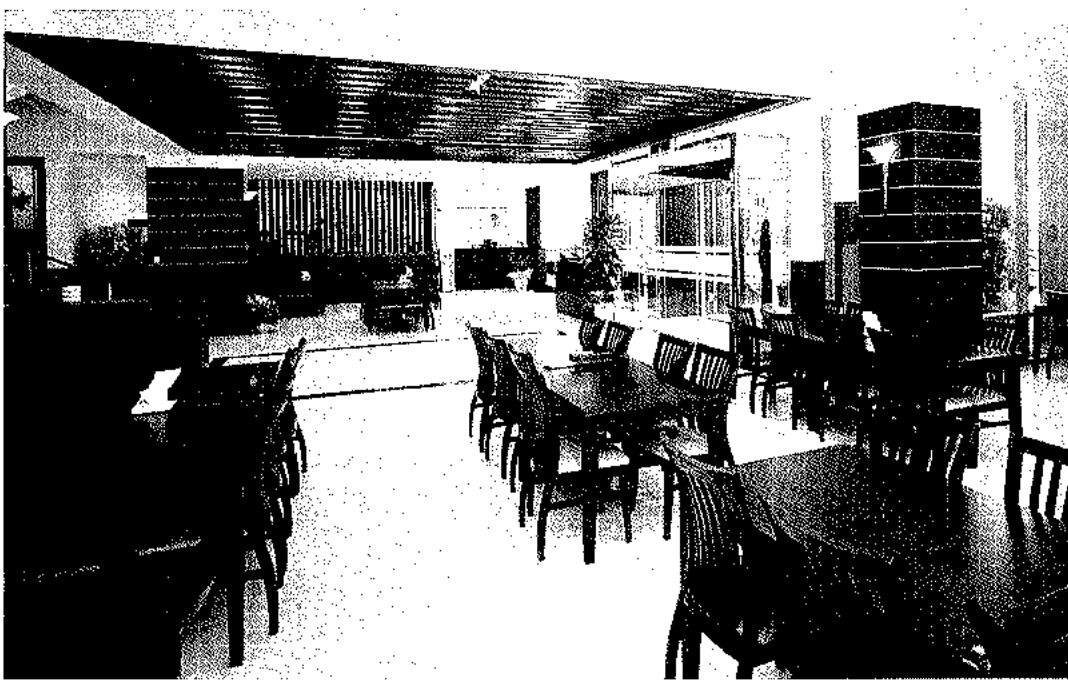
5층 평면도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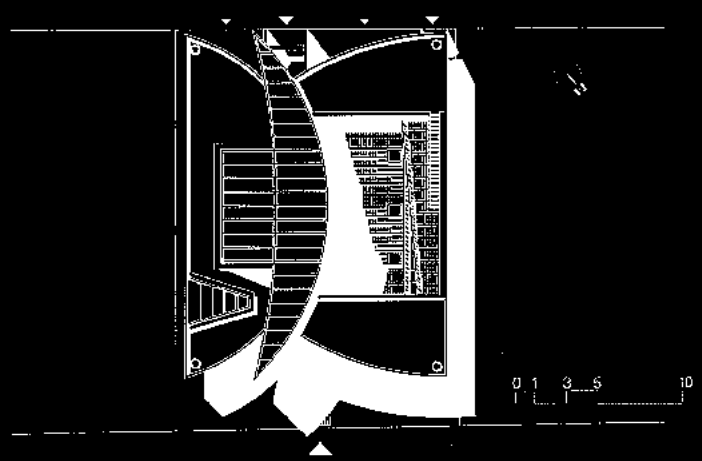


갤러리 힐
Gallery H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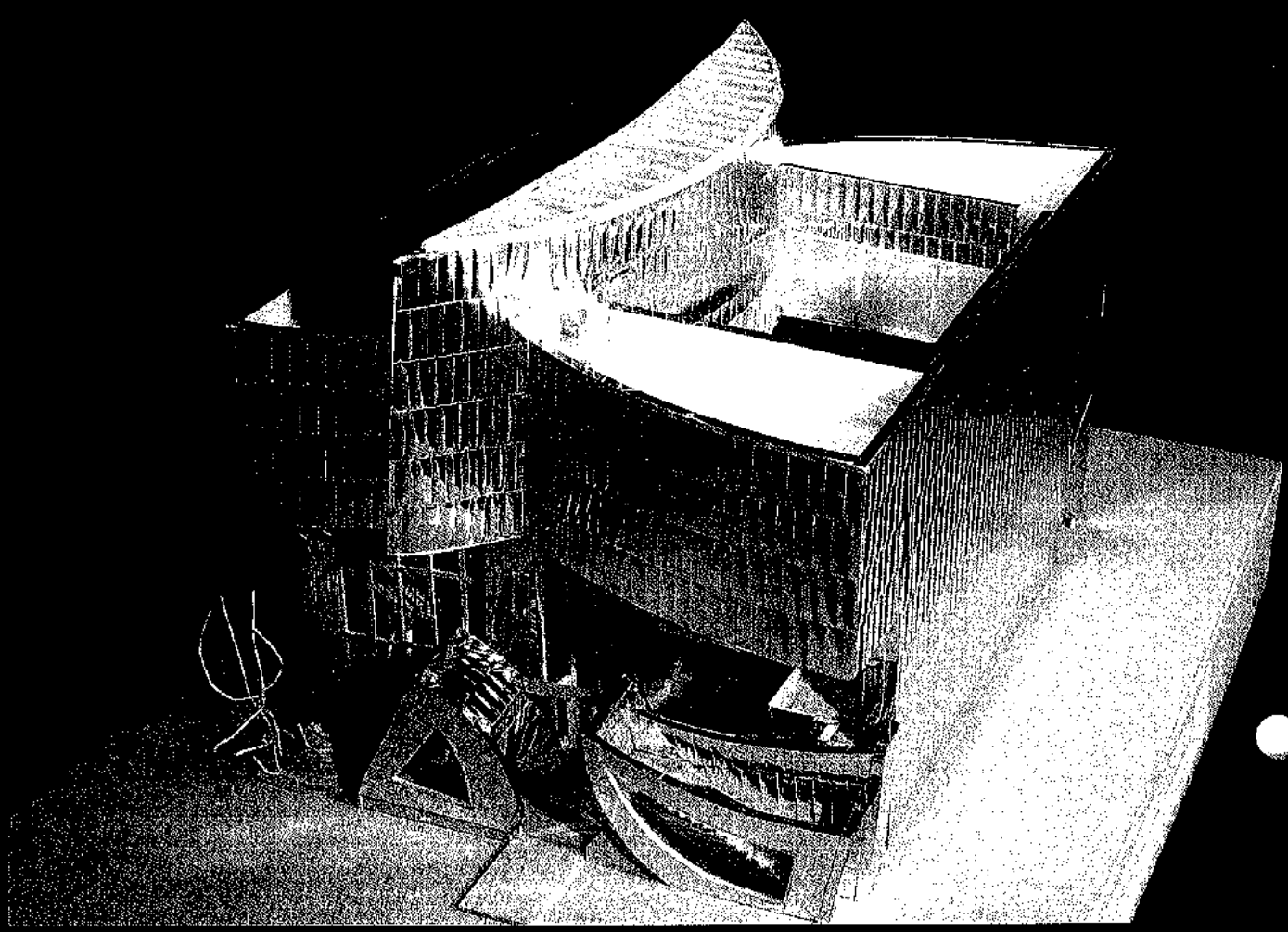
김효만 / 이로재 김효만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yo-Ma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갤러리, 까페, 소극장
대지면적	443.5㎡
건축면적	263.84㎡
연 면 적	717.17㎡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 조	철골조
설계담당	한지원, 박윤정
사 진	건축사사무소제공



배치도



몇 년 전 수행했던 이 프로젝트는 그 용도에 있어, 당초 건축주는 레스토랑만을 기획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설계를 시작하였으나, 설계과정 중 나는 건축주에게 갤러리와 소공연장을 겸한 복합레스토랑을 제안했었고 그들이 받아들임으로서, 그렇게 변경하여 실시설계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건축주의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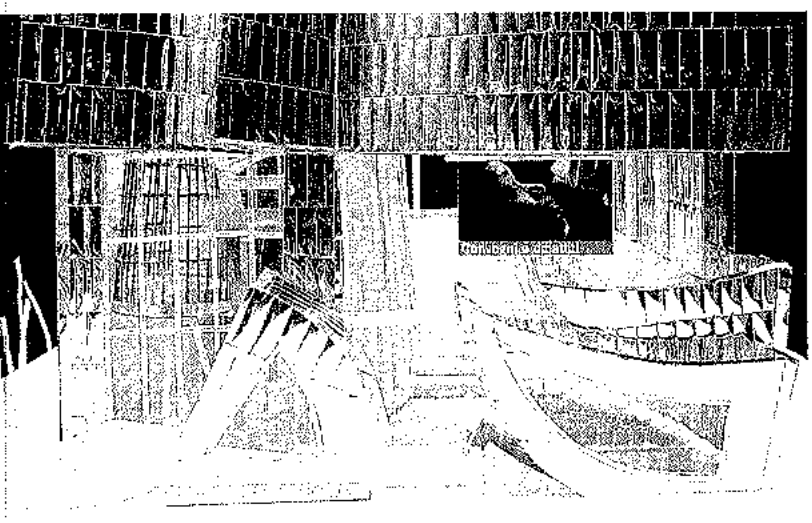
개업 후 설계되었으나 지어지지 않은 프로젝트는 이 갤러리 윌이 처음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작지 않았으므로, 다시 회상하며 계획안을 정리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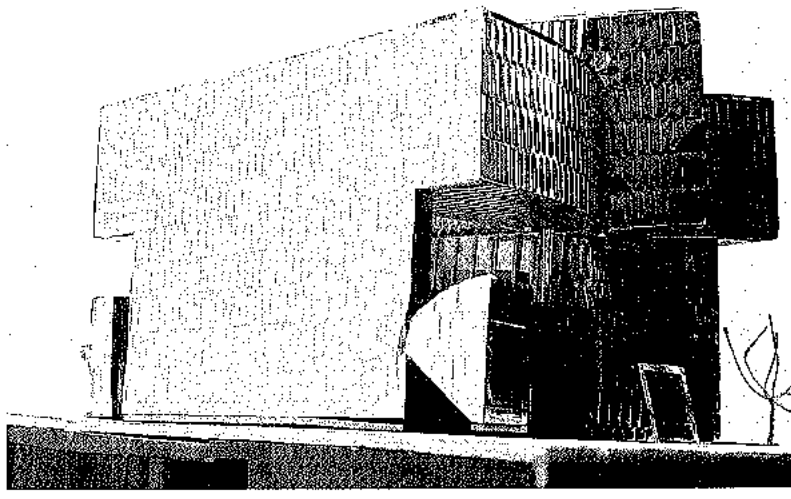
동네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친교할 수 있는 '작은 언덕'을 포함한 '쉼터'로서의 건축을 생각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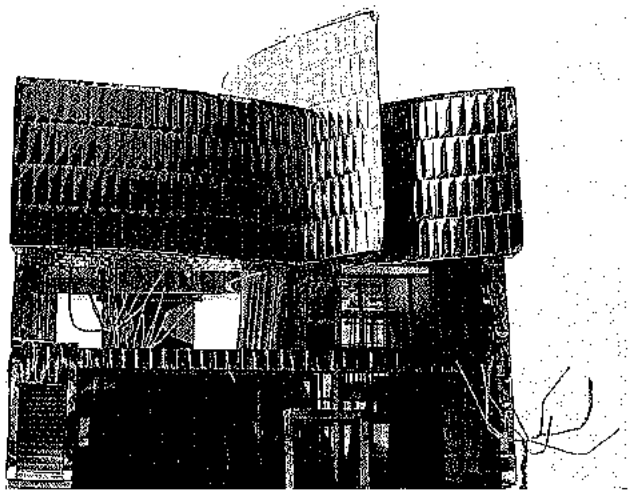
대지의 양측에 접하고 있는 전 · 후면도로를 서로 관통하여, 동선상으로 이 두 도로를 연결시켜주는 외부공간으로서의 자연인 '작은 언덕'을 둠으로써 전체 배치가 결정되었는데 신도시인 탓에 때묻음의 정겨움조차 없는 흔돈스러운 도시풍경, 즉 근래 신축된 상업건축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지주변의 무질서한 도시적 풍경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작은 언덕마당을 '보는 마당', '쓰는 마당'으로서의 내향적 대상으로 등장시켰다. 이 언덕마당과 연계되어있는 실내의 연속된 스킵 플로어의 다채로운 공간적 연결은 다양한 미술품의 미적전개와 동시에 건축적 광경의 단속적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이들이 서로 얼리고 섞이면서 긴 공간의 이야기를 연출해 낼 것이다. 실내와 외부를 가르고 있는 투명유리의 '긴 곡선'은 전후면 양측도로의 보행자를 대지 내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발휘하게 할 목적으로 선택되었다. 이것은 곡면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체도형의 설정원인이 되었으며, '역동성'에 대한 나의 조형적 성향과 조각가 문신의 '원시적 현대성'을 선호했던 나의 잠재성향이 형태적 구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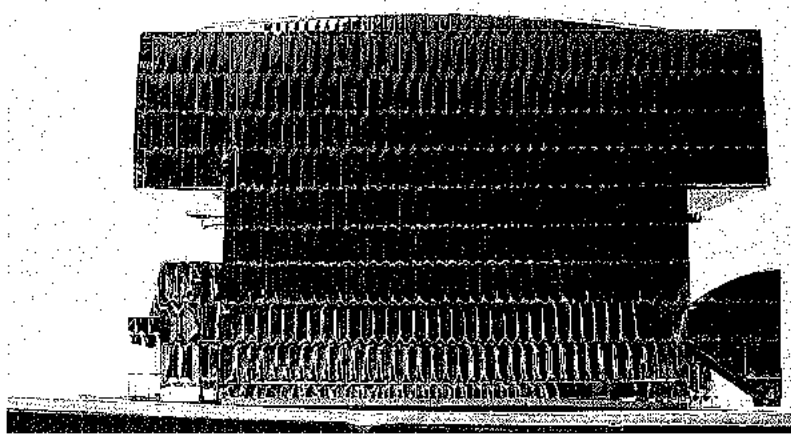
쫓기며 사는 듯한 현대의 일상에서 벗어나 회화와 조각 그리고 축제와 삶의 문화와 함께하며 여유와 쉼을 펼 수 있는 도시 속의 '자연'으로서, '문화생성의 언덕'을 가진 지역 문화센터로 작용하길 기대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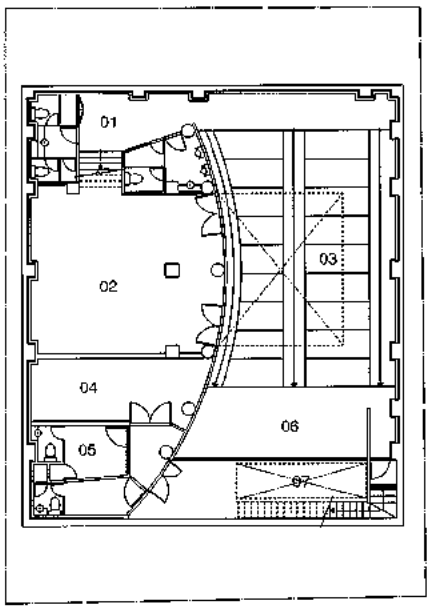
나는 단순 유흥상업시설을 문화적 삶과 향기를 같이 파는 상업시설로서 '유도'하여 그 지역사회의 문화성에 이바지하는 건축이 되게 하는 역할을 건축가가 함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은 문화적 가치의 상업적 치환일 것이며, 이제는 이 시대 상업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취해야할 기본적 자세가 아니겠는가.....(글 / 김효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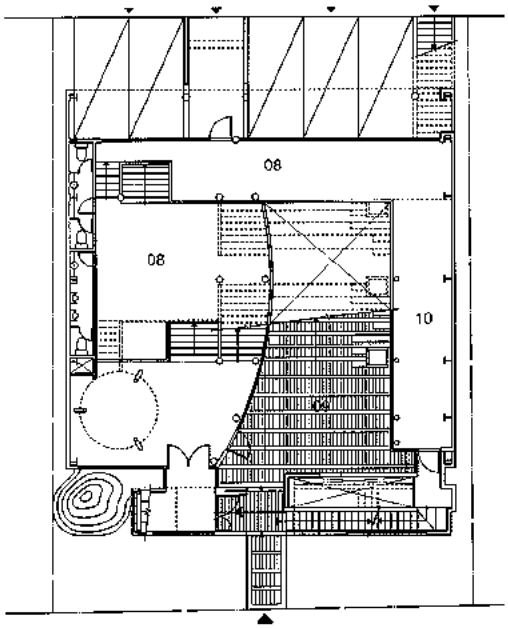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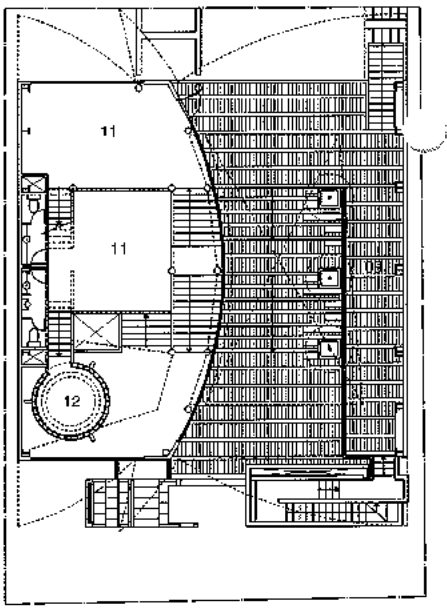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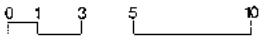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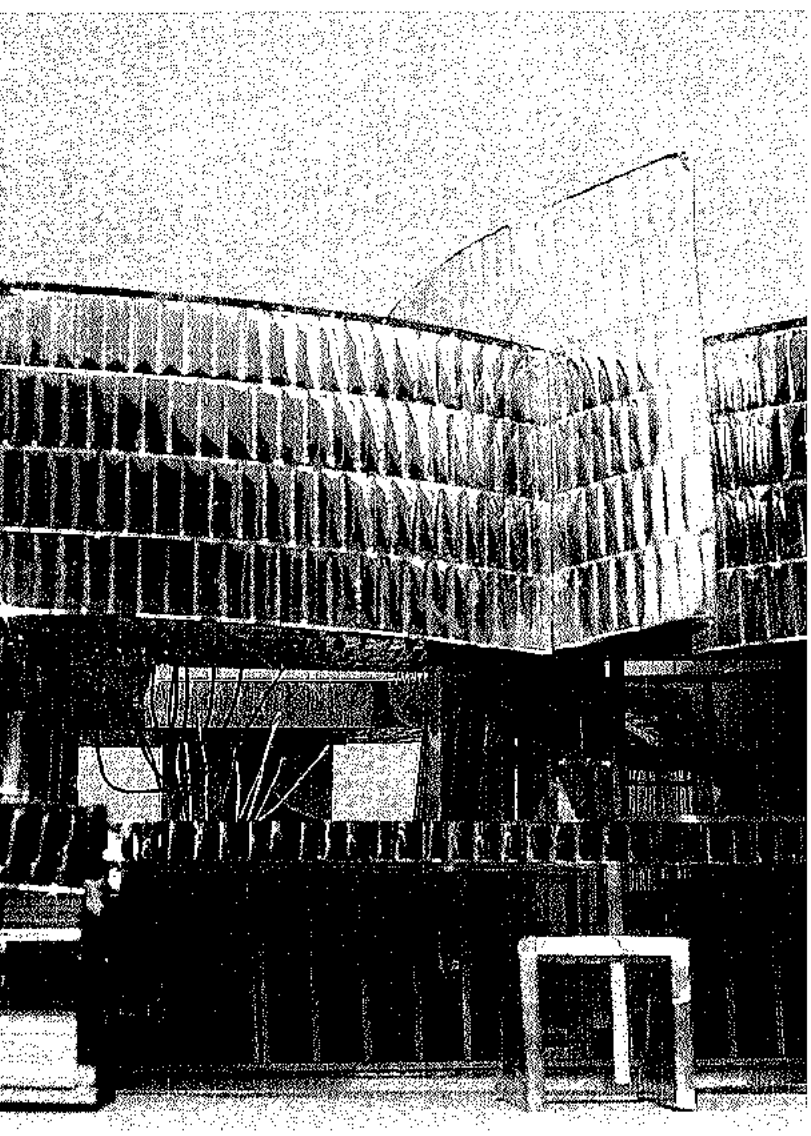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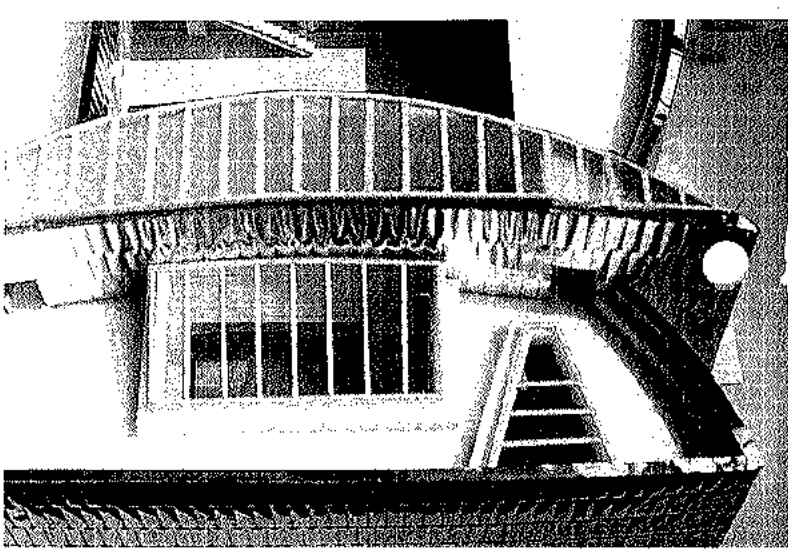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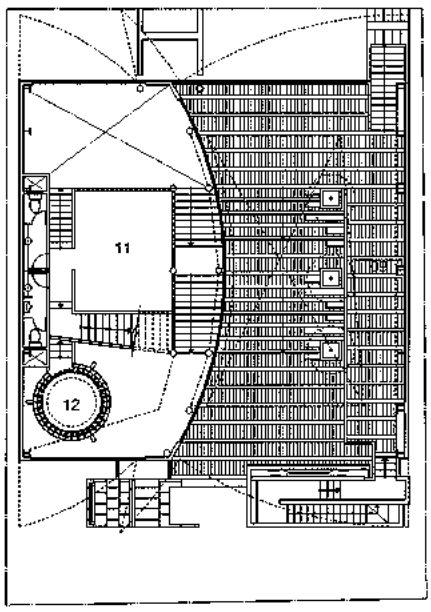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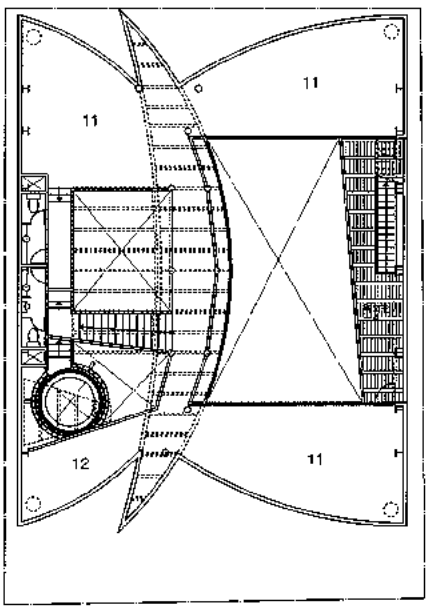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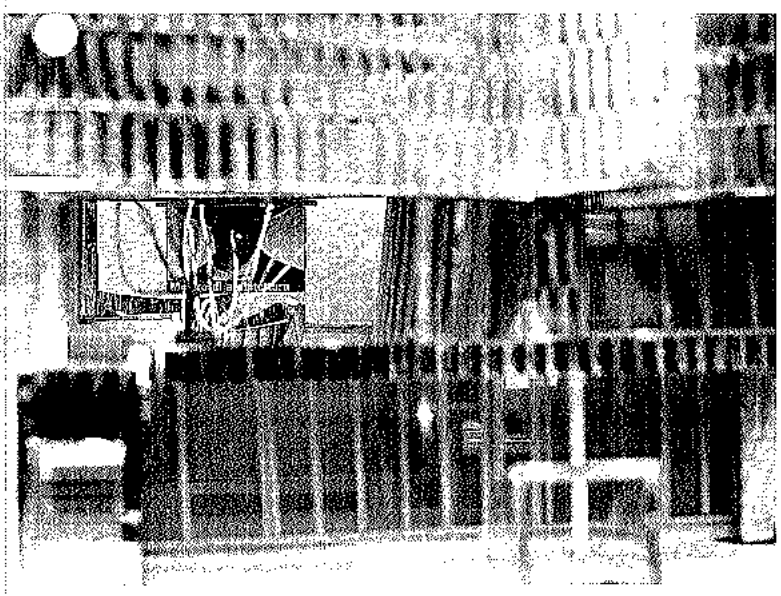
01_ 홀
02_ 창고
03_ 소극장
04_ 기계실
05_ 그린룸
06_ 무대
07_ 선큰가든
08_ 카페
09_ 옥외전시
10_ 아트숍
11 전시
12_ 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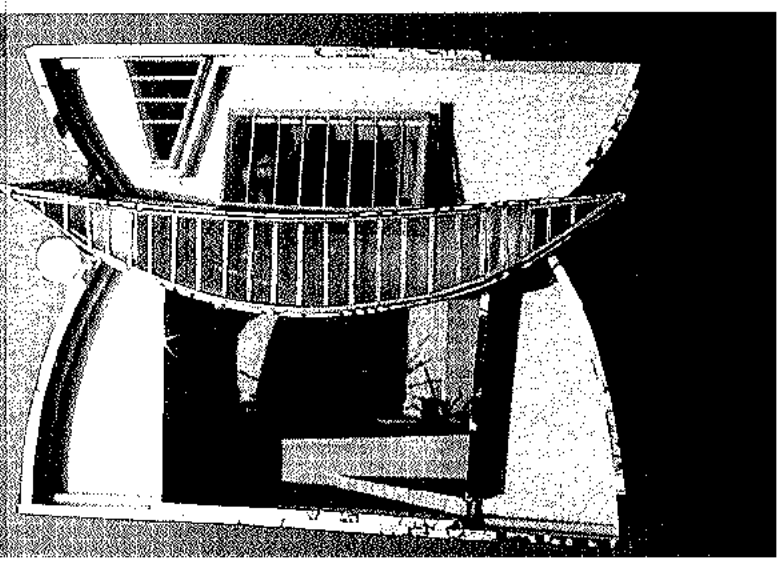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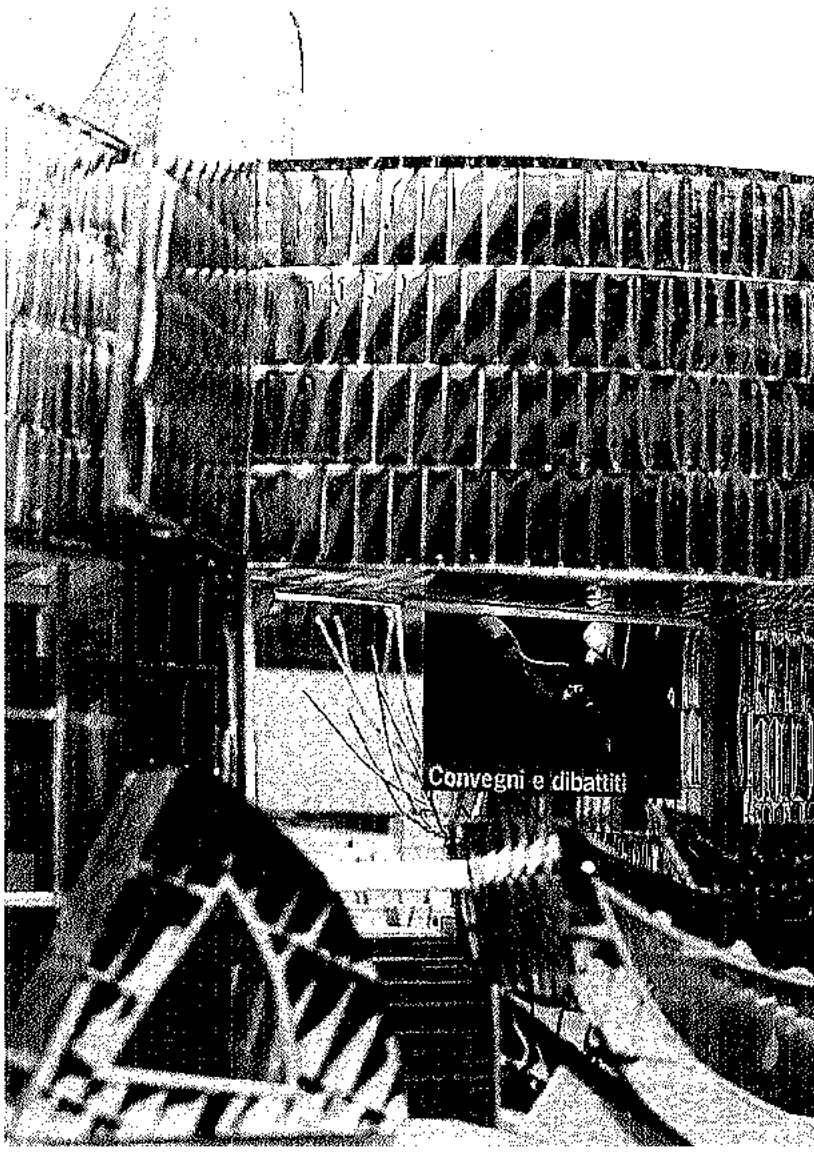
중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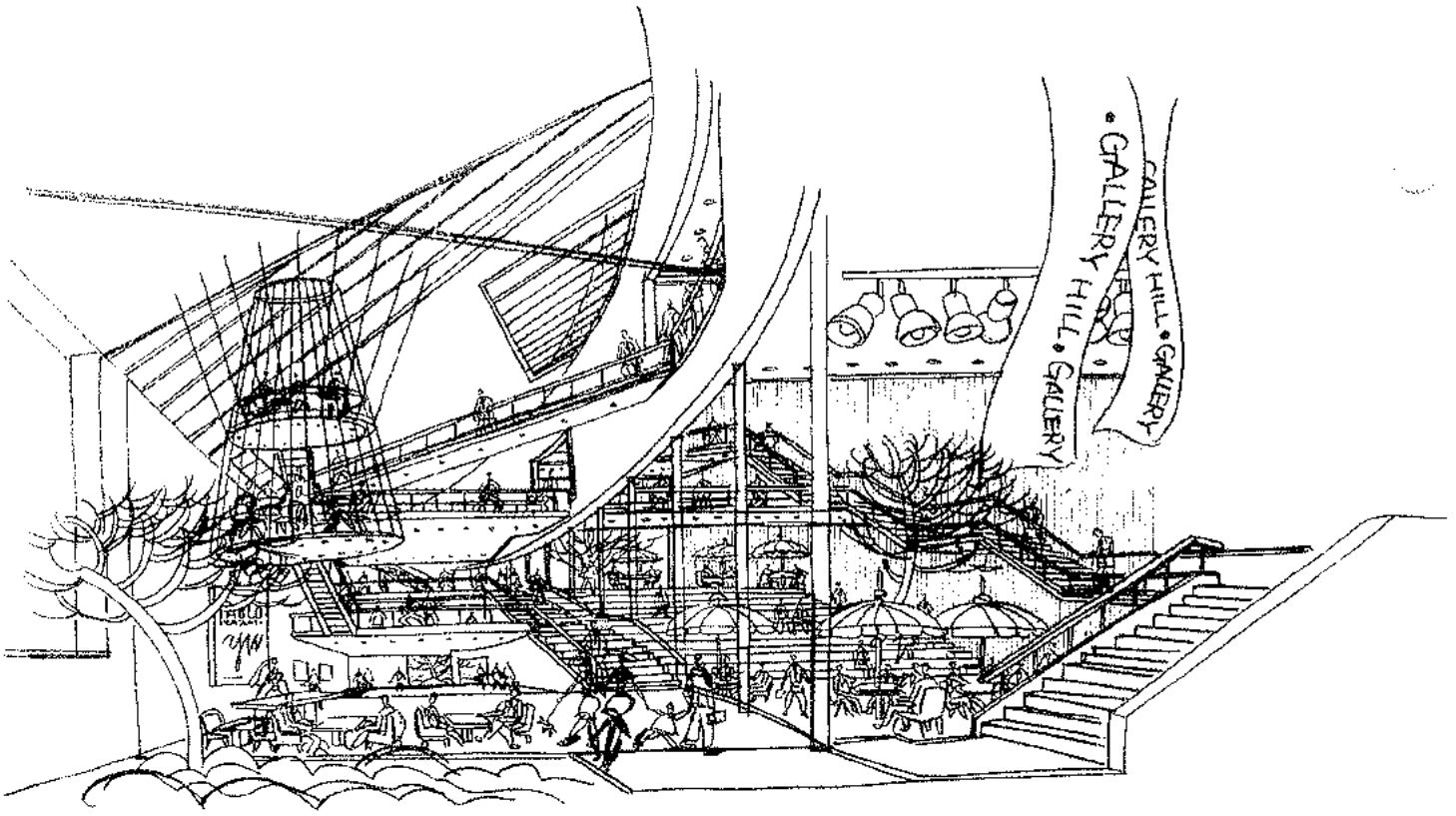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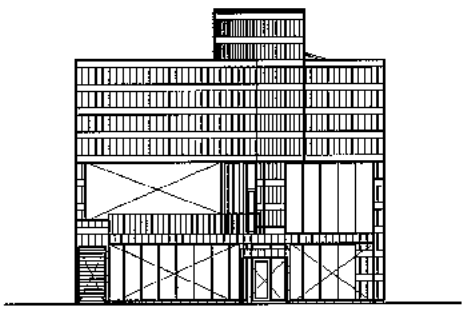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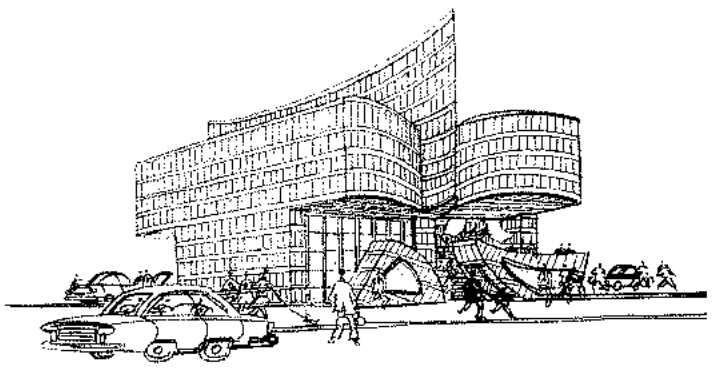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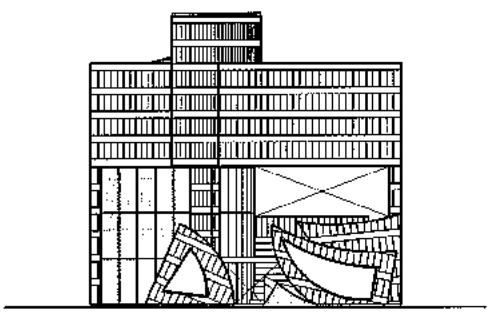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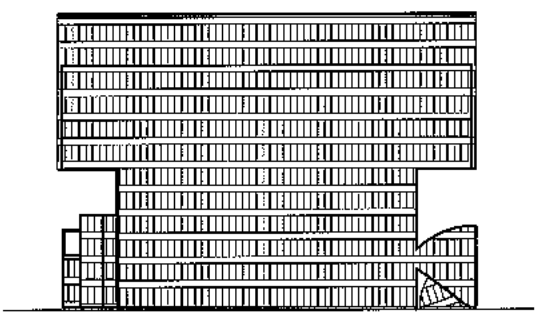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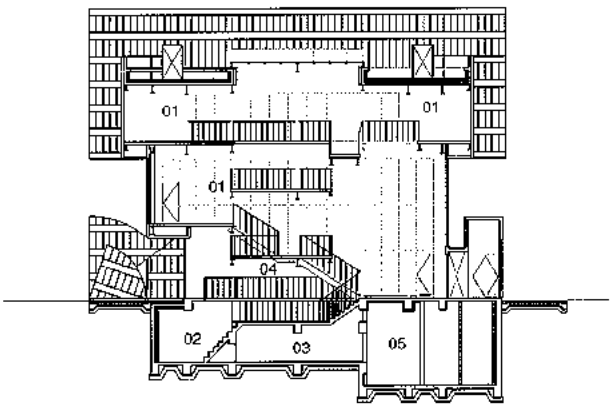
0 1 3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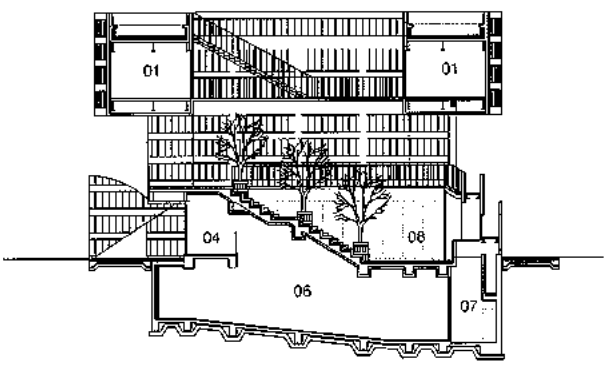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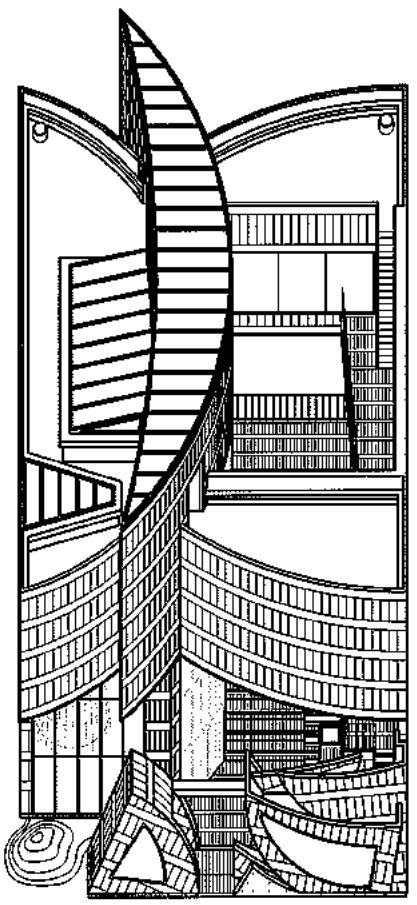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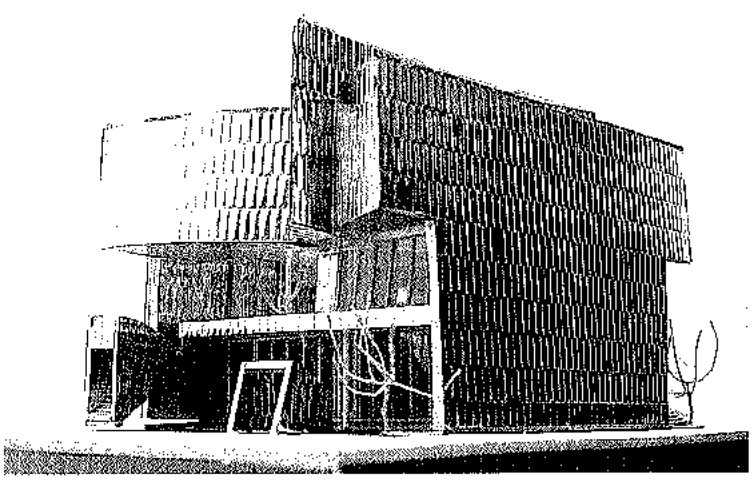
01_ 전시
02_ 홀
03_ 창고
04_ 카페
05_ 기계실
06_ 소극장
07_ 선큰가든
08_ 옥외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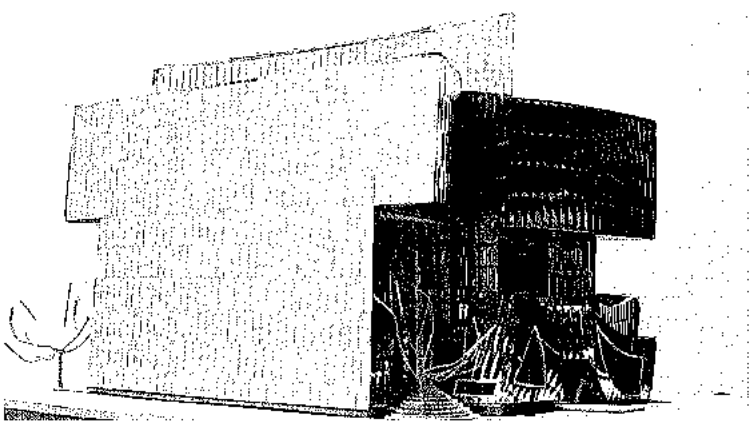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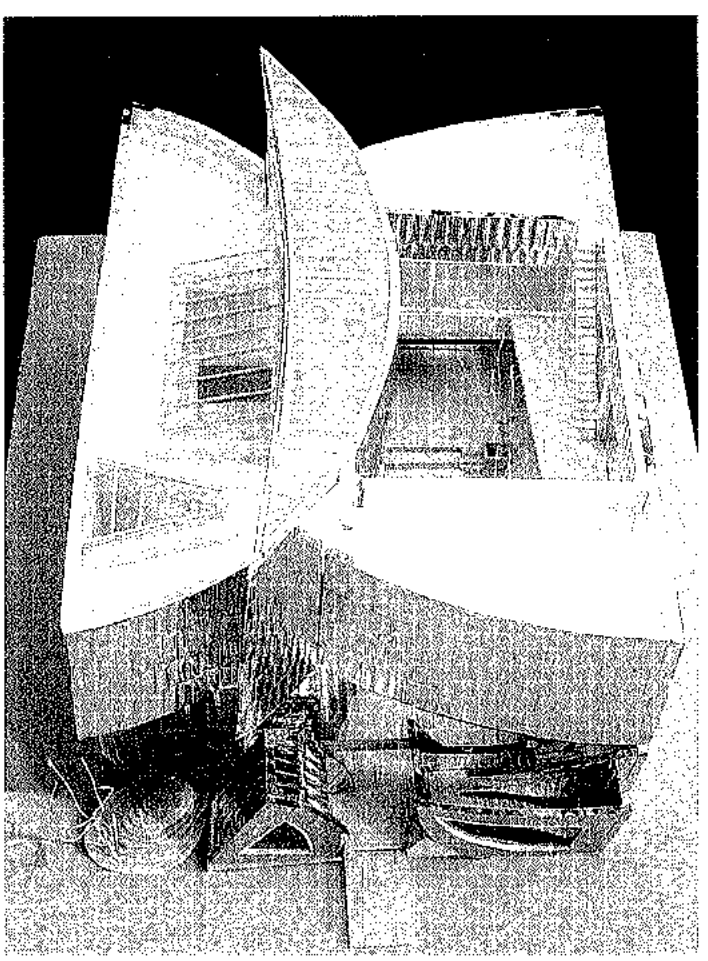
단면도



액소노메트릭







하동 삼신마을
Hadong Samsin Village

문철수 / 두양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Moon Cheol-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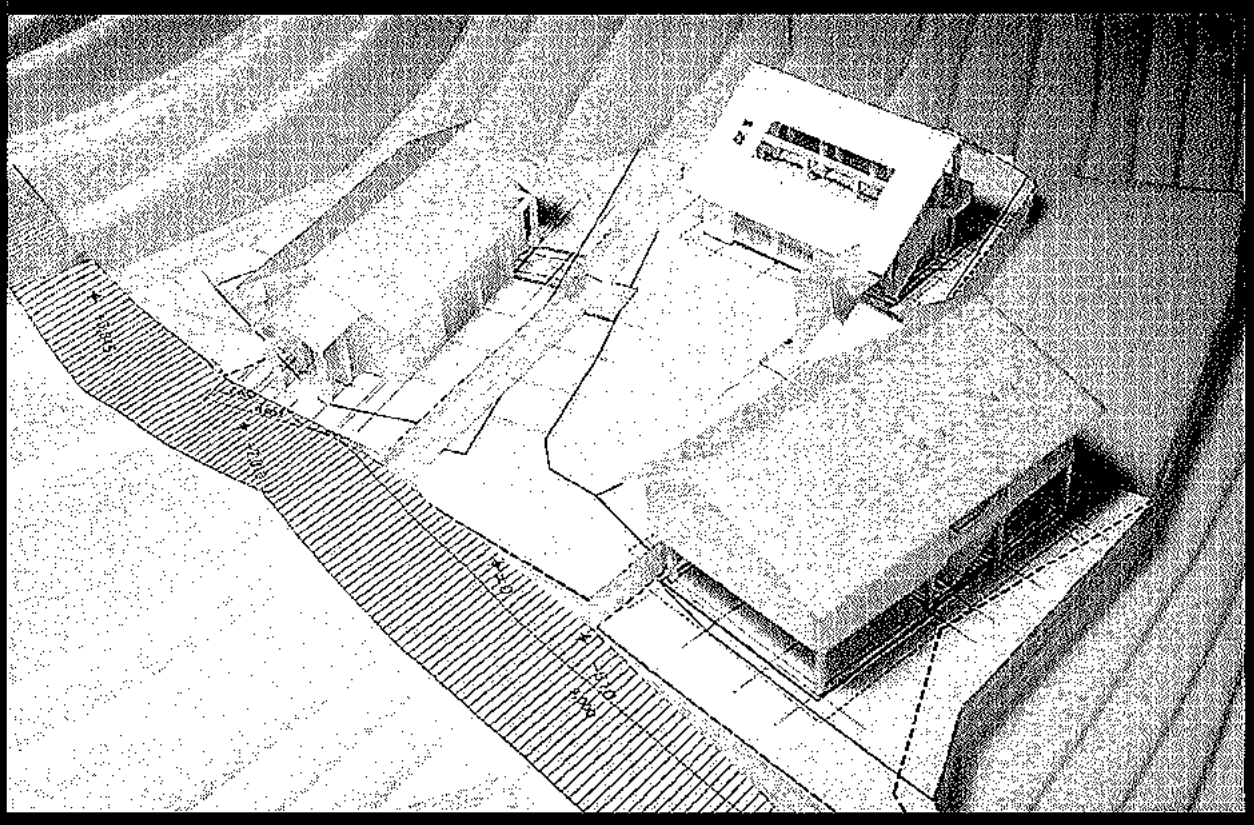
출발점

이 계획안의 목적은 날로 일익해져 가는 농촌의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뜻 깊은 것이었다. 정부 지원아래 취약한 농촌 마을의 공간 구조를 개선하고, 특히 지역 특산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농촌을 환경적으로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전국적 사업의 첫 출발점이었기 때문이었다.

마을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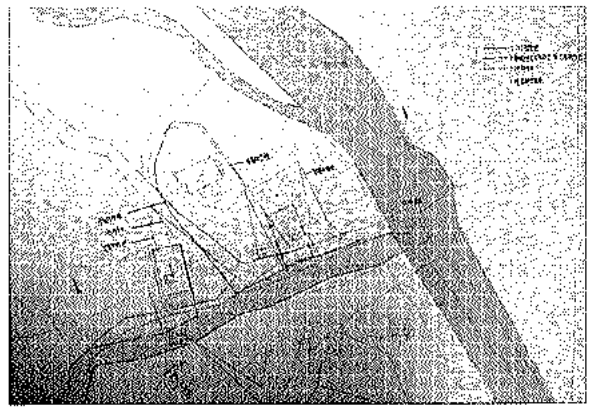
부지 현황

시범사업 대상 마을로는 녹차 생산지로 유명한 화개면에 위치한 삼신마을이 선정되어 있었다. 쌍계사 입구에 이르는 도로에 인접한 이 마을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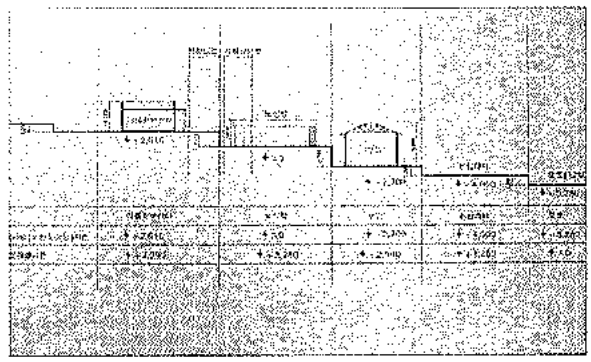


적 가파른 산록에 위치해 있었고, 대상 부지는 도로측에서 마을 안쪽으로 한 켜 너머에 있었다.

다행스런 사실은 대상 부지에 기존의 경로당과 마을 정보화교육센터, 창고 등 마을 중심시설들이 마치 하나의 단지처럼 군집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시설들을 모두 철거하고 그 공간 위에 다시 새로운 마을 시설들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일반적인 경우 마을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마을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어 이번과 같이 종합적인 공간계획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건물 배치도



기존 건물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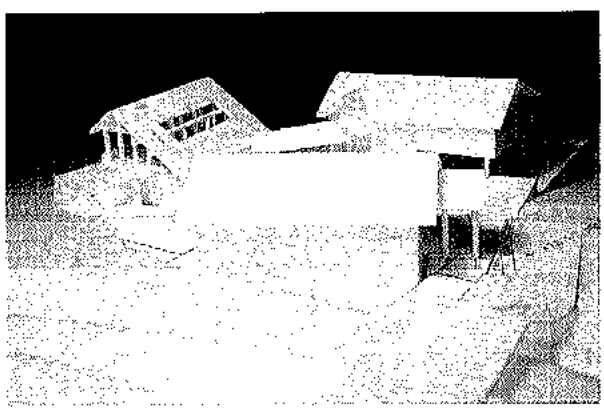
부지 분석 및 문제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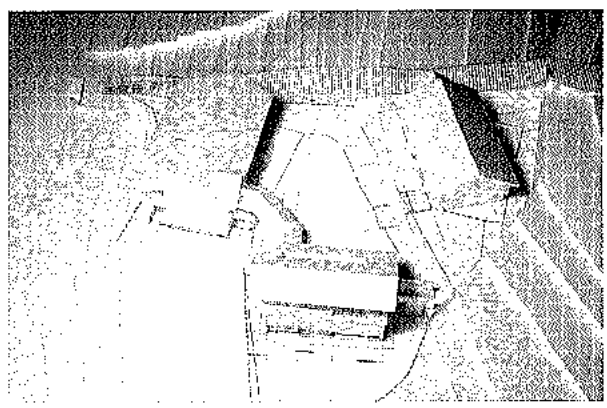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해결책도 있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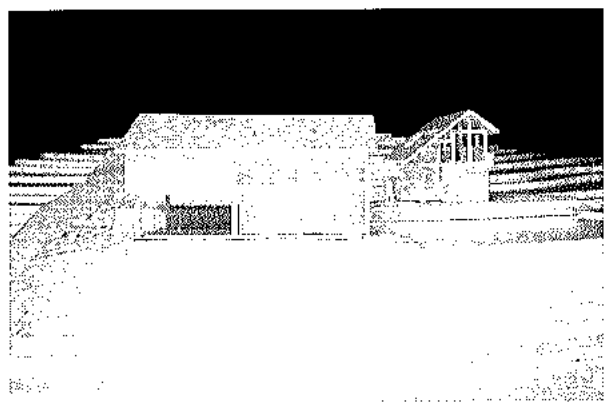
기존의 공간을 보면 경로당과 그 앞마당이 정보화 교육장과 창고의 중간에 있어 중심공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였으나, 경사로 인한 2단의 축대와 관통 도로 때문에 각기 별도의 역할만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즉, 기존의 정보화 교육장은 마을 회관으로서의 역할도 겸하고 있었으나 마을 내 도로와 축대 때문에 기존의 창고도 또한 레벨 차로 인한 축대 때문에 경로당과 그 앞마당(중심공간)과의 연계를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또 한가지의 큰 문제점은 예산의 문제가 있었다. 일반적 농촌 사업과 같은 수준의 예산으로서는 별동의 4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큰 하나의 건물에 비해 작은 여러 동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늘어나는 면적보다는 동수(棟數)에 비례해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공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형태의 문제가 남는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농촌마을에서는 특별하거나 좋은 집보다는 그 농촌과 닮은 집이면 더 좋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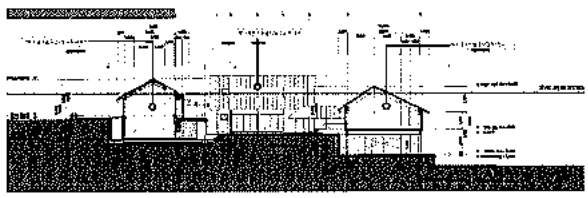
설계목표 (주 개념)의 설정

삼신마을은 전체가 50세대, 107명 인구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지만 아직 자연 발생적 구조를 간직하고 있는 평화로운 마을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한가족과 같이 잘 알고 지내고 있었으며, 자주 모임을 가져 마을 대소사를 결정하고 있었다.
그렇다. 이들은 모두가 모두에 대한 타인으로 살아가는 도시민이 아니라 한 식구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이 사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집과 같은 것이며, 이번 계획안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마을이라는 펼쳐진 하나의 집에 지붕이 없는 거실공간과 같은 것을 제공해 주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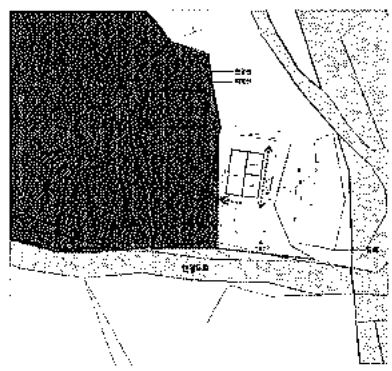
문제의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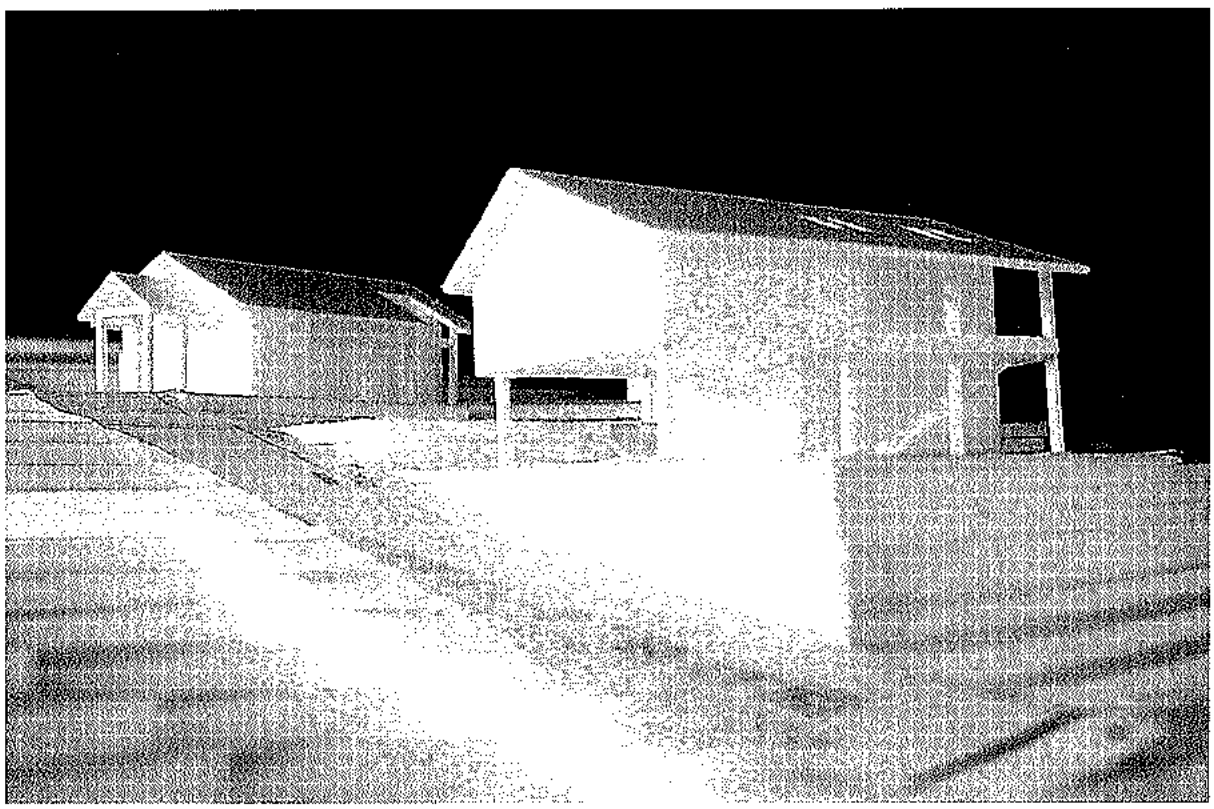
공간의 시너지 효과

마을 공용공간 즉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분리된 몇 개의 공간을 하나로 엮을 수만 있다면, 그 공간은 더해진 공간의 개수보다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또한 그 속에 강한 구심성을 가진 중심공간이 유지된다면, 마을은 이 계획 공간을 중심으로 방사선적인 공간구조를 가진 보다 체계화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리라 생각했다.
따라서 하나의 공간구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축대의 존재, 즉 레벨 차의 극복과 관통 도로의 해결을 염두에 두게 되었다.


계획 단면도

그러기 위해 우선, 차량이나 경작 기계의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던 마당의 기능을 사람의 외부활동이 가능한 중심공간으로 상정하고, 차량은 마을 입구에 가까운 창고 공간 하부에서 따로 처리하게 하였다. 사람의 활동이 없는 중심공간은 의미 없


1레벨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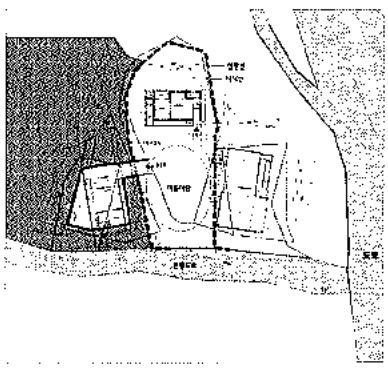


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새롭게 된 중심공간을 중심으로 창고와 마을회관, 경로당, 정자 등 모든 시설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고심 끝에 터널과 다리 그리고 통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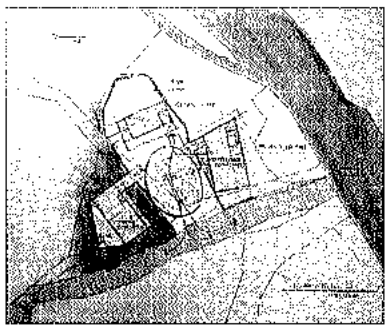
중심공간 보다 한단계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회관 동은 지하층 레벨에서 중심공간 쪽으로 관통도로 밑으로 터널과도 같은 주 출입공간을 두어 연결하였고, 잘 맞추어지지 않았던 높이치수의 문제는 스털링이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중정(中庭)에서 사용하였던 것을 연상케 하는 '내려앉은 입구' 처리로 해결하였다. 중심공간 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 녹차 가공 공장동은 브릿지를 이용하여 그 건물의 2층 부분이 주 출입층이 되도록 하였고, 그 층에서 연계기능을 가진 녹차전시장동과는 연결 복도로 이어줌으로서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결국 녹차전시장동과 중심마당을 중심으로 마을회관은 지하층이, 가공공장동은 2층이 주 출입층이 됨으로서 모든 건물을 하나의 공간으로 엮어 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레벨 평면도

중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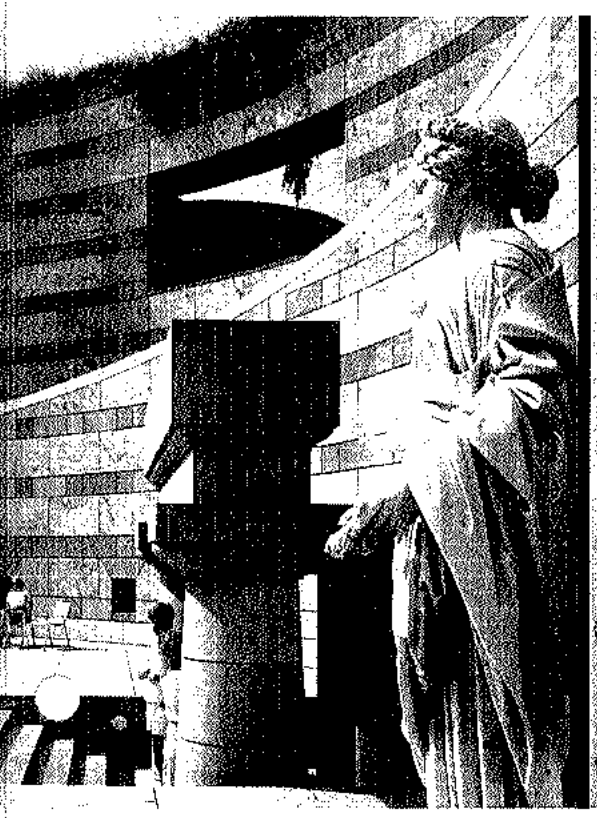
배치개념도

이 계획안의 중심마당은 마을 전체의 중심공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크기보다도 더 큰 구심성을 가져야만 했는데, 이는 터진 입구 측이 오므라들어 안공간의 영역이 더 내밀한 공간이 되도록 함으로서 추구하였다. 이 찌그러진 안공간의 효과는 위대하다고 까지 이야기하는 로마의 캄피돌 광장이 그랬고, 또한 그 아름답다고 하는 베니스의 마르코 광장이 그랬으며, 우리의 자랑인 수덕사의 대웅전 앞마당에서 그랬으니 아마도 틀림이 없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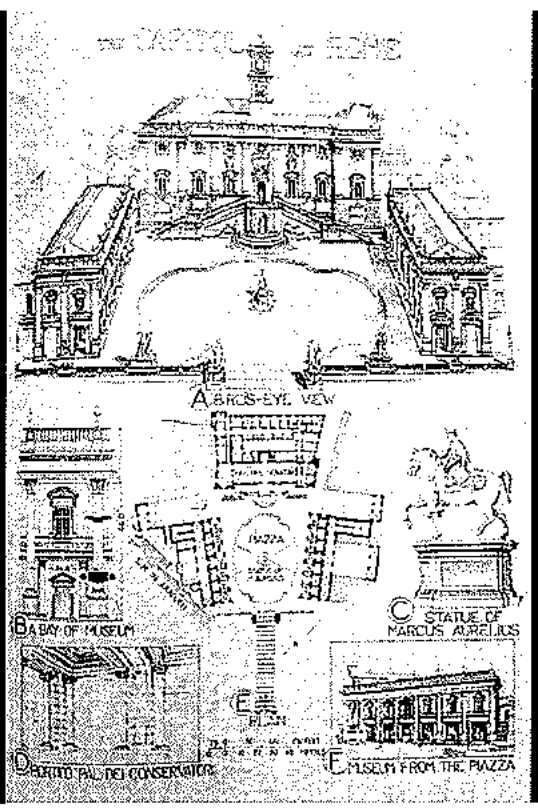
공사비 절감

모든 일이 그렇듯 이상만 가지고서는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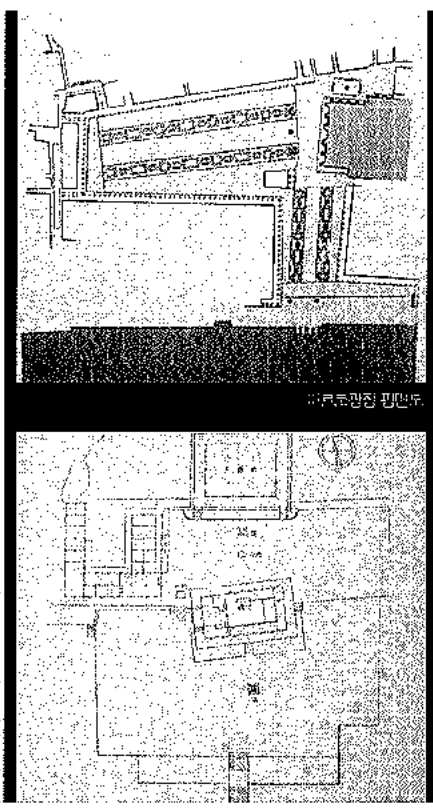
과업지침에도 없었던 터널과 다리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과외의 공사비 지출을 수반하는 것이고, 이 계획안의 실현을 위해 초과 예산을 편성해 줄 행정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 또한 땅을 만지는 일보다 그 후 정리하는데는 항상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



스털링이 슈투트가르트 미술관 中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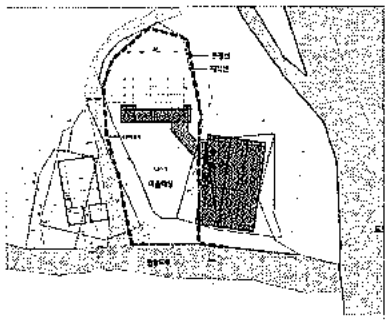


로마캄피돌리오



수덕사 배치도

가기 마련인데, 이 고민은 기존건물의 활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단순히 재료나 형태에서의 대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 너무도 뻔했기 때문이었다. 철거예정의 경로당을 일일이 재고 그려서 녹차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경로당은 그 건물의 옥상에 둠으로서 예산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표-1), 바로 옆 관통도로와 비슷해진 바닥높이에 착안하여 또 다른 하나의 브릿지를 설치하여 도로와 정자가 직접 연결되도록 하였다.



3레벨 평면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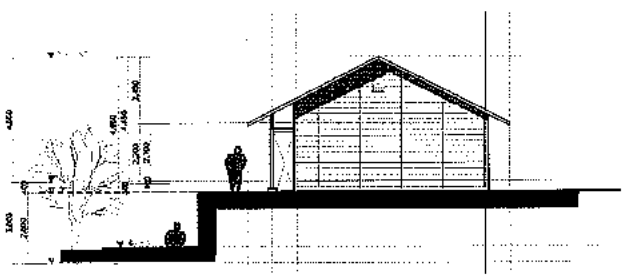
자식이 부모를 닮듯, 평화로운 농촌 마을 한가운데 들어가는 마을시설은 그 마을을 닮아 평화로와야 한다. 자그마한 집들의 집합인 농촌마을에서 스케일감의 유지는 형태보다도 우선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별 분리는 여러모로 맞는 것이라 생각되며, 형태는 경사지붕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료, 특히 지붕과 벽체의 재료는 시간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해 동판과 목재 사이딩 그리고 灰壁을 연상할 수 있는 드라이비트로 하였다.

조바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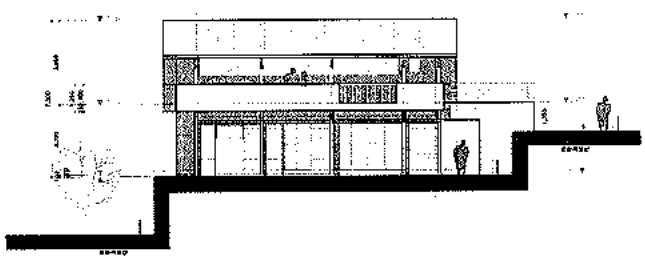
건축이란 도면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잘 지어져야 한다. 생각 해 내는 머리가 따로, 짓는 손 따로, 감리 하는 눈 따로 인 현실과 법규 속에서 구경만 해야하는 건축가의 마음은 아마 고통받는 자식의 처지를 멀거니 구경만 해야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으리라.

건축개요

위 치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261-5번지 외 4필지
대지면적	1,106㎡(334평)
주차대수	법정 2대, 계획 4대, 실 주차대수 6 대
건 축 주	하동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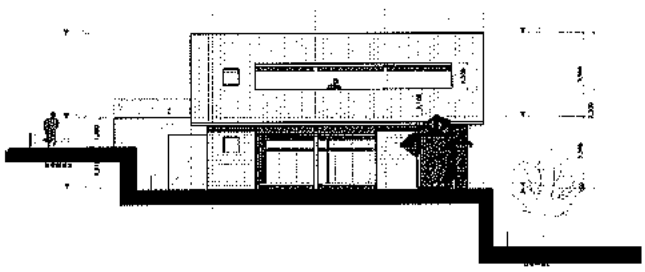


동측면도(마을회관 / 경로당)



동측입면도(판매시설 / 다도교육장)

북측입면도(녹차가공시설 / 체험장)



서측입면도(판매시설 / 다도교육장)

■ 설계개요(세부면적개요)

동별	용도별	연면적		층별	면적 ㎡	면적 평	주요실적	면적 ㎡	면적 평
A동	정보화교육장 마을회관 경로당	137.46㎡ (41.59평)		지하 1층	81.64	24.70	정보화교육장	51.04	15.44
							기자재실	8.91	2.70
				지상 1층	55.82	16.89	할아버지방	8.10	2.45
							할머니방	8.10	2.45
							거 실	21.42	6.48
B동	특산품판매장 다도교육장 정 자	103.66㎡ (31.36평)	281.86㎡ (85.26평)	지상 1층	65.89	19.93	특산품판매장	24.72	7.47
							다도교육실	13.70	4.14
				지상2층	37.77	11.43	정 자	32.48	9.82
C동	일반창고 저온창고 녹차가공시설 및 체험장	178.20㎡ (53.90평)		지상 1층	59.40	17.96	일반창고1	14.85	4.49
							일반창고2	14.85	4.49
							저온창고	29.70	8.98
				지상 2층	118.80	35.94	녹차가공시설 및 체험장	118.80	35.94
회랑 (연결통로)	연결통로	17.47㎡ (5.28평)		지상 1층	17.47	5.28	연결통로	17.47	5.28
합계		436.79㎡(132.13평)		과업요구면적 : 429.75㎡(130평)					

■ 과업지시서와의 면적대비 (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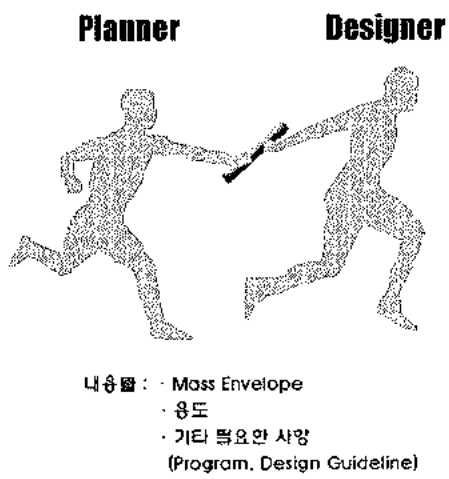
시설명	과업 지시면적	과업지시 사업비	계획면적	계획사업비	비 고
주민복지회관 (마을회관 (경로당겸용), 정보화교육장)	146.76㎡ (45평)	136,700,000 (110,000,000 26,700,000 :정보화교육장 내장공사)	137.46㎡ (41.59평)	147,000,000	
녹차가공시설및체험장(녹차가공시설 및 체험장,특산품 판매장, 저온창고, 일반창고)	264.46㎡ (80평)	150,000,000	244.09㎡ (73.84평)	127,000,000 (특산품판매장, 다도교육장 제외금액)	기존건물(B동) 활용. 65.89㎡ (19.93평)
정 자 (정자및주차장, 조경)	16.53㎡ (5평)	80,000,000	32.48㎡ (9.82평)	127,000,000 (특산품판매장, 다도교육장 포함금액)	
철거공사	7동	-	6동	9,000,000	
합 계	429.75㎡ (130평)	367,000,000	414.03㎡ (125.24평)	410,000,000	내역상금액은 낙찰가율을 적용시하지 않은 순수금액임.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실습(2)

Practice for District Unit Plan

문홍길 / (주)하우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by Moon Hong-Kil

건축사협회에서 마련했던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이해와 실습' 강좌에서 마지막 실습부문을 진행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강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건축사들이 도시계획과 도시설계를 자기업무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우리가 속해서 경쟁하고 있는 국제건축가연맹(UIA)의 이념과 목적을 보면 건축가의 사명을 '건축과 도시계획을 발전시켜 공동체의 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본고가 이러한 사명감에 따른 매뉴얼을 지닌 외국건축사들과 경쟁 또는 협력해야 할 우리 건축사들의 관념적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회에 나누어 실게 될 본고 중 지난호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설계와의 관계를 다루었다. 현재 우리의 구분기술 환경 속에서 이 주제를 압축한다면 계획가와 설계가간의 연계 '바톤'이 곧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이다. 그 속에는 건물이 넘어가서는 안되는 윤곽선과 용도 등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번 호에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관점과 사례들을 소개한다. (필자 주)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관점들

1. 경제적 관점

도시는 그 자체가 재정적 발명품이기 때문에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재정적 수단에 의해 향상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서 이와 같은 관점은 '도시지대이론(urban rent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도시지대이론에 따르면,

도시지가(land value)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중심부로부터 등선을 형성하고, 사방으로 퍼지며, 그 등선에 따라 지역 첨두가 뚜렷이 나타나는 도시구조가 형성된다. 즉, 도시의 토지이용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도시의 지가는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도심부나 중심업무지구(C · B · D)의 구조를 보면, 그 중심부에는 지가 이용이 가장 높은 업무시설이 입지하게 되고, 주요판매 시설은 이러한 업무시설에 밀려 본래의 입지를 물려주고 기존의 서단부로 입지하게 된다. 또한, 판매지역에서 보행동선의 미묘한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용도의 감수성은 가시적 매력, 가로의 형상 등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의 전면(facade)을 잘게 나누며, 건축물의 상부에도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듯, 도시지가는 도시구조를 판가름하는 주요지표인 판매용도의 분포를 가져오기 때문에, 판매용도는 도시의 경제적 양상에 있어서 그 동태 추이를 반영하는 초기 인자인 동시에 도시에 문제의 잠재적 원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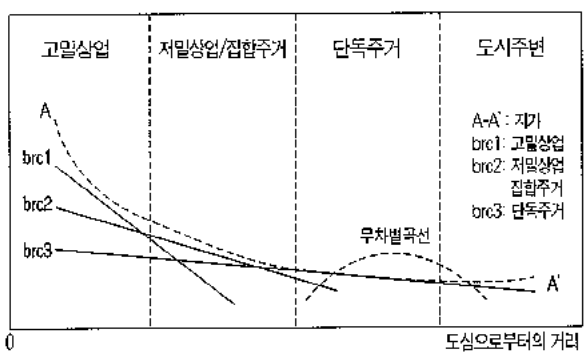


그림1. 도시의 토지이용

따라서, 판매양상은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입지에서 흥망성쇠하거나 상태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중심지구 및 지역센터라는 도시 위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도시설계에 있어서 '진행과정으로서의 도시(the city as process)' 라는 개념으로 잘 알려진 '메타볼리스트(Metabolist)' 작품의 주요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판매양상의 변화로 인해 유발된 이러한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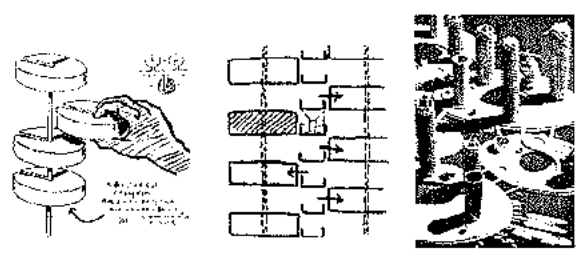


그림2. 기요노리 기꾸다께, 실린더형 공동사회

2. 공학적 관점

이것은 토목기술자의 새로운 영역이 도시가 가진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도시설계에서 중요성을 갖는 부분이다. 즉, 도시공학의 집대성이 교통혼잡과 질병의 제거뿐만 아니라, 사회자체의 개혁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게오르그 오스망(Georges Haussman)의 '파리 대개조 계획'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오스망은 도시주위의 군대 병영으로부터 도시의 문제지점까지 군대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새로 생긴 철도 종점에 의해 국경부대가 도시로 증강될 수 있도록 하려했다. 또한, 도시 내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을 통제하고, 실업을 해소하고 경제를 집적시키며,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가로망과 여기서 파생된 동서 및 남북 방향의 '거대한 교차' 개념에서 입안된 하수 설비는 무계획적인 도시성장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다목적 구조장치이며, 동시에 파리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조성하려했던 나폴레옹 3세의 야망을 충족시키는 공학적 해결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도시설계의 대안을 평가할 때, 도시설계구역 외부의 광역구조와 연계하여 구상되어야할 인프라(infrastructure)건설비용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개발총량(volume)의 지탱여부는 공공영역에 해당되는 도시 하부구조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본 관점에 의해 대상지구의 개발규모가 결정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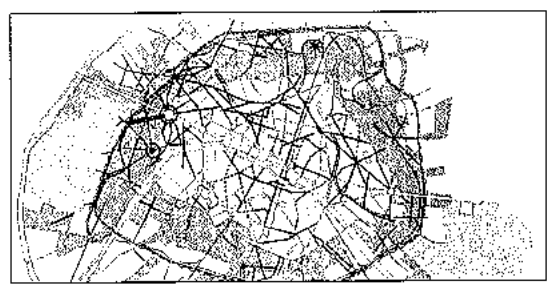


그림3. 오스망의 파리 대개조계획

3. 사회적 관점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 없이는 도시에 관한 어떠한 기술적 결정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로서 이러한 관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공익성과 쾌적성에 대한 입지와 접근성의 상대적인 불균형과 같은 사회적 양상은 경제적 양상을 수반한다. 경제양상의 구조는 지가분포에 의해 표출되는 반면, 사회적 양상은 인구밀도의 분포로 표출되며, 집중과 확산의 대립경향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과정을 겪는 동적인 상태이다. 즉, 대도시의 인구유입이 진행되면 될수록(집중), 대도시 주변지역으로의 역작용(확산) 또한 확장되고, 이러한 인구이동 추이를 수반하는 사회계층화의 엄밀한 형태는 문화별로, 단계별로 다양하게 표출되며, 일련의 문제점을 일으킨다.

하워드(E.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y)'는 이러한 관점의 중요성을 잘 부각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각국에서 안고 있던 주거환경에 대한 시급한 과제는 도시주변에 새로운 주거환경의 건설과 전쟁으로 슬럼화된 도심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이었고, 하워드는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에 전원과 도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자족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황폐하고, 과밀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대규모 주거단지의 건설은 도시의 황폐화와 슬럼화에서 벗어나려 했던 도시의 중산층을 교외로 이주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서민층은 도심에 남게되는 사회적 계층화 문제를 유발시키는 부정적인 역기능을 낳기도 하였다.

결국, 사회적 관점에 중요성을 부여하려는 협의자는 도시설계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본질적으로 사회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적정형태를 추구하는 시도라고 간주하며, 이러한 개발과정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거나 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러한 관점은 우리 나라에서 도시빈민층 또는 도시주민의 계층연구, 사회운동 등에 의해 많이 부각되었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관점이 대두되면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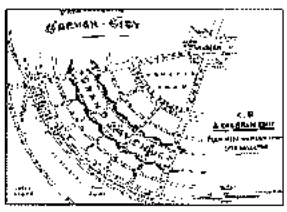


그림4. 하워드(E.Howard)의 전원도시

그림5. 프로이트이고 집합주거

4. 생태학적 관점

도시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흔히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의 숲'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은유는 인류의 관습적 서식지로서 도시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이 자연 자체의 지배력과 유사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설계가들에게는 문제의 주요근저를 새롭게 형성한 지배 관계가 곧 생태학적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즉, 산업화 과정에 있는 도시의 내적인 사회생태학적 무질서가 지역 문제의 주요쟁점으로 지속되었고, 도시화의 증가규모가 보다 확대·심화되어 파국적인 사회생태학의 몰락을 가져오리라는 위협으로 다가서게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환경에 대한 인식은 '지구를 생각한 지역의 행동(Think globally, Act locally)'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어졌고, 도시환경의 질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창출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졌다. '환경친화적 도시' 또는 '도시생태학(Urban Ecology)'이라는 개념이 그러한 시도들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으며, 일본의 'HOPE' 계획은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각각의 지역에 구비된 고유한 환경조건을 전제로 개성을 살린 독자적인 거주환경 정비를 추구하는 도시 가꾸기 계획으로서 ①지역특성에 의거한 질 높은 거주공간정비 ②지역의 발의와 창의에 의한 주거 가꾸기 계획 실시 ③지역주택문화 ④지역 주택생산의 네 가지 점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광범위한 주택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 관점은 흔히 무시해 버리기 쉬운 도시내부의 자연 환경과정이 경관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시각에서 도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도시 주변환경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도시 내부에 있으므로 해결책도 그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최근 도시생태학의 발전에 의해 도시내 공간도 친환경 개념 또는 생태적 개념에 의한 안정된 도시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본 관점은 도시설계의 새로운 계획과제가 되고 있다.

5. 형태학적 관점

형태학적 관점은 도시설계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그 밖의 많은 요인들 이외에 도시의 시각적 불결함이나 단순성 또는 비합리적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로서 자생적인 자연주의적인 시각(naturalistic vision)과 계획적인 건설시각

(construction view)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연주의적인 시각은 도시형태부여 과정을 시장결정론과 생태학적 과정으로 해석한다.

전자에서는 시장결정론과 생태학적 개념이 도시형태의 특성인 부가적이고 집적적인 패턴(additive & accumulative pattern)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 후자에서는 도시공간을 인간의 관심, 욕구, 목표, 판단자료로 논의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시 역사주의적 도시형태부여의 특성인 합목적적이고 제도화되고 디자인된 패턴의 결정요소로 간주한다.

도시공간의 특질을 이해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접근시각은 도시설계의 집행과정에서 구분해 볼 때, 전통적으로 구분되는 유기적 방법(organic approach)과 구성적 방법(compositional approach)으로 대응해 볼 수 있다. 유기적 방법은 건물과 건물, 건물과 전체도시 요소가 구성하는 조직논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건물의 개개특성이나 효과보다는 도시집합체를 이루는 요소로서 건물의 기능과 장소적 효과를 강조하는 방식이다. 구성적 방식은 땅과 건물이 연결되어 고려되기보다는 건물구성의 독자적인 논리가 우세한 오브제적이며, 단순화하는 유형학적 접근방식으로서 부분에서 전체적인 틀로 진행해 간다. 역사적인 계획방법론에 있어서 유기적인 계획방법은 도시의 조직적, 맥락적 구성(organizational, contextual approach)을 중시하는 경험주의(empiricism)와 연결되는 한편, 구성적 계획방법은 형태적 구성(compositional approach)을 중시하는 합리주의로 대별된다. 경험주의는 설계를 위한 기초로서 환경에 대한 자신 또는 대중의 경험에 의존한다. 즉, 환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것을 설계를 위한 기초로 사용한다. 반면, 합리주의자들과 설계의 기술적인 측면을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먼저, 경험주자들은 도시디자인을 예술로 간주하고, 형태자체의 본질과 미학에 중점을 둔 것으로 추상적인 순수 기하학적인 형태에 관심을 갖는다. 대표적인 예가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ul Movement)' 이다. 이것은 도시의 경관이 인간 생활의 미를 창조한다고 보는 견해로서 다초점을 가진 다수의 축선으로 도시의 도로를 구성하고, 그 초점에 기념비적인 모뉴멘트를 배치하여 도시를 미적으로 구성하려 했던 기법이다. 이 운동은 조경설계가인 옴스테드에 의해 제창되면서 그 시발점이 되었고, 그 후 1910년대 시카고 박람회를 기해 본격화되었다. 설계의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합리주의자들은 도시설계를 새로운 실용주의와 관련된 것으로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에게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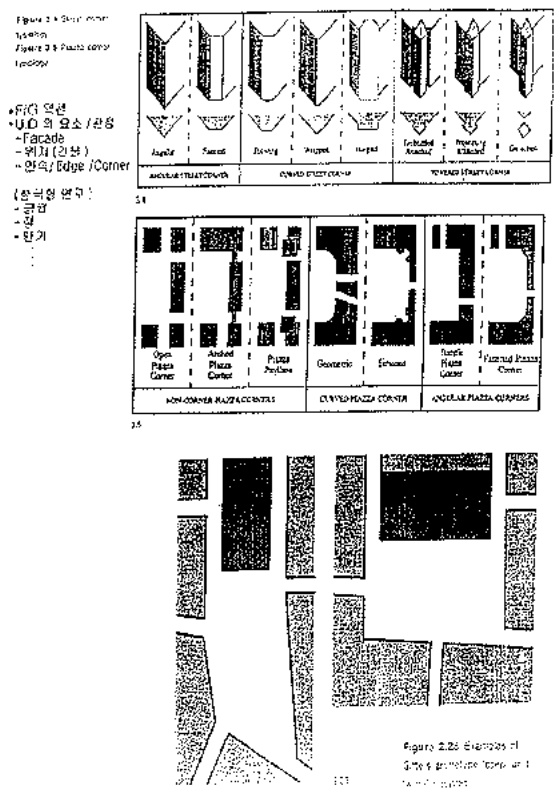
다음으로 합리주의자들의 형태구성논리는 역사성을 갖는 도심형태를 집적된 삶의 바람직한 견본이라고 보는데 있다. 이들은 도시형태학의 우선적 구성요소를 도시공간으로 규정하며, '가로, 광장, 지구' 의 유형(type)을 연구하여 도시중심지의 기존의 조직을 복구하려 하였다.

결국,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는 협의대상자는 주로 건축가 혹은 도시설계가집단일 가능성이 많고, 이들은 도시를 예술품 또는 시스템으로 간주하여 도시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고,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들이 어떻게 각각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도시공간구조와 계획기법의 유형

시각구분	출 전	유형 I	유형 II
1. 도시공간구조 모델	David Gosling	자연적 모델 (camilo sitte)	유토피아 모델 (근대건축운동)
2. 도시형태부여	Paul Meadaus	자연주의적 시각 naturalistic version =conceptual	건설적 시각 construction view =morphological
3. 주거환경계획 기법	Oscar Newman	유기적 방법 (organic approach)	구성적 방법 (compositional approach)
4. 역사적 전통 (환경설계)	Geoffrey Broadbent	경험주의 (Empiricism)	합리주의 (Rationalism)
5. 일반적 개발형태	-	가로망식	단지식
(특 징)		전체틀에서 부분으로 또는 틀과 부분전형software중시 조직적, 맥락적	유형학적 부분에서 전체로 hardware 중시 형태적
평 가	-	21C 패러다임	20C 패러다임

■ Figure / 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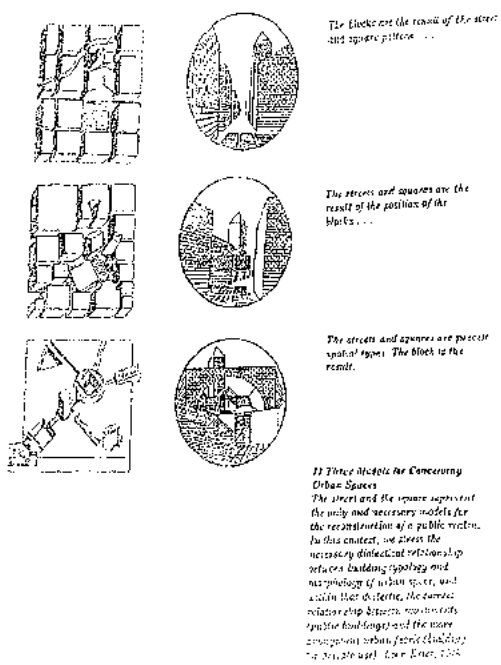
■ 서울의 경우

- 강남지역 슈퍼블록 개발과 목동 택지개발사업구역의 아파트 단지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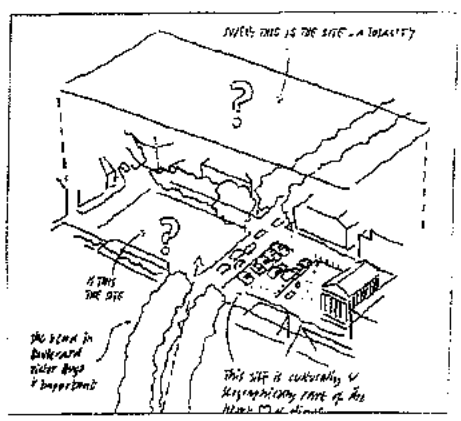
〈강남슈퍼블럭〉

〈목동택지개발사업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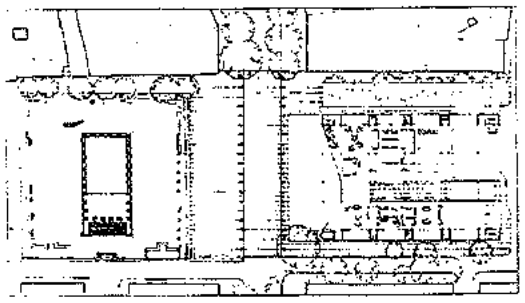
■ 길과 Bl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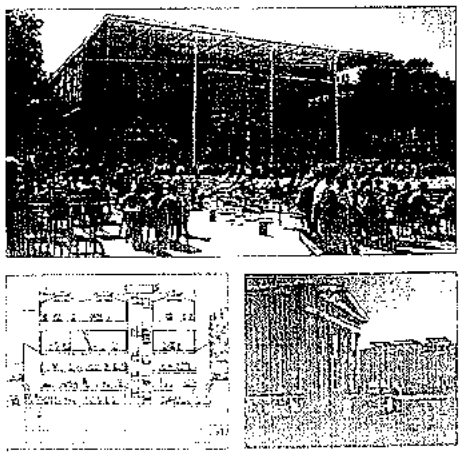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적 사이트 해석을 보여주는 스케치 (Norman Foster, 파리 님스미디어테크)



■ 메종 카레와 님스 미디어테크사이에 형성된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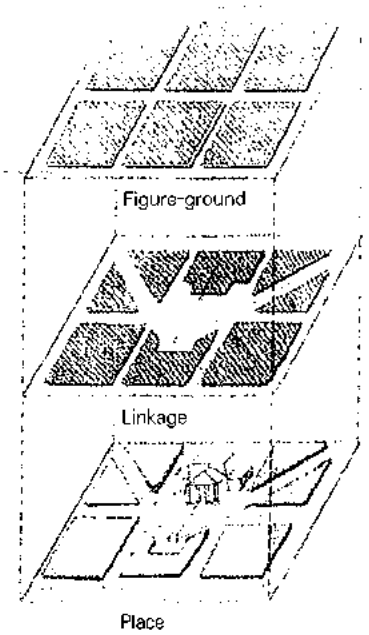


■ 님스 미디어테크 앞에 형성된 광장 ■ 종단면도 ■ 메종카레와 님스 미디어테크



■ 소결 (한국도시설계학회 편, 「지구단위계획」 2001년, 17P)

이상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로저 트랜직(Roger Trancik, 1986)은 도시설계이론을 그림-바탕이론, 연계이론, 장소이론으로 정리하면서 도시설계가로서 대상지를 대하는 태도가 부지(site)에서 장소(place)로 환원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근대도시의 논리인 "자유로운 평면과 개방적인 형태가 양산해 낸 오브제의 배열"을 극복하고 "도시의 내적인 구조적 특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표상영역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브라켄(Habraken, 1983)의 '환경을 대하는 입장이 단순히 어떠한 행위를 부가하려는 태도를 극복하고 이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대도시건축이 범한 시민의 외부인화를 방지하고 다시 시민



〈그림〉 도시설계의 이론적 발전

을 내부인(insider)으로 복귀시킨다는 것이 도시설계의 공동가치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사찰 체험 기행

Experiences in Buddhist Temple

금산 보리암을 다녀와서

이종호 / (주)시원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Ho

대구지하철 참사로 하늘마저 슬픈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던 지난 2월 22일 밤과 이튿날 새벽 나는 경남 남해 금산에 있는 보리암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빌고 있었다. 얼굴 한 번 스친 적은 없지만 모두가 우리 부모 형제요, 이웃일 수 있다는 결코 나와 무관한 남이 아니라는 생각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불자도 아닌 입장에서 이러한 기도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평소 절집(사찰)의 일상생활을 한번쯤 체험해 보고 싶은 뜻을 갖고 있던 차 성지 순례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원(願)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지금껏 전국의 웬만한 산과 절은 두루 다녀 보았지만 정작 산 속에 있는 절에서 먹고 자며 단 하루를 지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늘 아쉬움으로 남았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90% 이상이 불교와 관련돼 있고 전통건축물 또한 대부분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에 그동안 나는 틈틈이 여행과 등산을 겸한 절집 답사를 십 수년 째 해오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껍데기를 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껏 본질보다는 현상, 즉 겉모습만 보아왔던 것이다. 때로는 남들 앞에서 꽤나 유식한 것처럼 '저 지붕은 맞배지붕에 주심포식... 배흘림 기둥... 가람배치는 어떻고 하면서' 교만을 떨었다.

이래저래 나는 참회가 필요했다. 나 자신을 한 번쯤 뒤돌아 볼 필요를 느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국내 4대 기도도량 중 하나인 이곳 금산의 정상 아래 절벽에 자리잡은 보리암으로 택한 것이다. 보리암과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0년 전 1월 1일 유난히도 추웠던 날 새벽, 3대가 정성을 쏟아야 볼 수 있다는 보리암 일출을 보기 위해 가족과 함께 수많은 인파들 속에 섞여 올랐다가 고생만 실컷 하고 돌아섰던 적이 있다. 어찌나 추위에 떨며 힘들었는지 아내와 아이들은 지금도 그때를 악몽처럼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또다시 일출에 도전(?)하였으나 역시 불발. 그러나 섭섭하지는 않았다. 금산의 정상(해발 681m) 인 망루에 올라 어둠 속에 가려있던 보리암(해발 621m) 아래 남해도 주변 한려해상공원 바다의 비경이 서서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노라니 이곳이야말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요, 극락정토가 아닐까 싶었다.

그러니까 이 번은 세 번째인 셈이다. 내가 바라던 일출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번만큼은 욕심을 버리고 그냥 하루동안 절 속에 푹 묻혀버릴 생각으로 집을 나선 것이다. 지난밤부터 내리는 비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쏟아지는 가운데 오후 늦은 시각 보리암에 도착했다. 비는 그렇다치고 온통 산 아래를 뒤덮은 하얀 안개구름이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그 멋진 금산의 자태를 볼 수 없고 내일 일출은 기대도 말아야 할 것 같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도 좋지만.

우선 일행들을 따라 대웅전에 해당되는 보광전 안으로 들어갔다. 법당안에는 향나무로 만들었다는 관음보살상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인원이 많다보니 나는 맨구석 앞자리에서 벽에 걸린 시계를 보고 절(삼배)을 하게 됐다. 차 안에서 들었던 법문테이프 중에서 "부처는 절에 있는가? 법당안에 있는가? 바로 우리들 마음 속에 있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절을 하는 것은 부처를 위해서라기보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 절을 하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어쨌됐든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하심(下心)을 체험하는 것이리라. 신고식(?)을 마치고 우산을 받쳐든 채 보리암 경내를 둘러보았다. 가급적 이번에는 건물보다는 해수관음상과 삼층석탑 등을 관심있게 보았다. 보리암 앞 절벽 위에는 원효대사가 신라 문무왕 3년(683년)에 세웠다는 삼층석탑이 있는데, 여기에는 김수로왕비 허황후가 인도에서 가져온 부처님사리가 모셔졌다는 전설이 있다고 안내판에 씌어있다. 또한 이 탑의 신비함은 탑에 나침반을 놓으면 바늘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는 기이함을 통해 전해진다.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찬찬히 돌아보니 이제야 보리암의 제 모습을 알 것 같다. 작년에 왔을 때 처음과 느낌이 사뭇 달라 약간 혼돈스러웠는데... '무엇이든 한 두번 보고 섣불리 판단한다는 것은 경솔한 노릇이다.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체험이 중요하다.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요, 백견(百見)이 불여일행(不如一行)이다.

금산은 예로부터 삼남에서 손꼽히는 명산이다. 그 옛날 중국 진시황의 명을 받고 선남선녀 500명과 함께 불로초를 캐러 왔다는 서시가 들렀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태조 이성계의 조선 창업도 금산에서 기도 후 이뤄졌다 한다. 원효대사로부터 받은 산이름 '보광' 이 금산으로 바뀐 것도 기도를 들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아름에나마 비단(錦)을 두르도록 하자는 태조의 뜻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보리암 아래 좁고 가파른 돌계단으로 이어지는 내리막을 따라 150m를 가면 높다란 바위와 함께 천연동굴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태조께서 기도하셨던 곳이다. 궂은 날씨 탓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다녀왔다. 하늘을 가릴 정도의 컴컴한 대나무숲길, 으스스한 기분이 든다.

서울에서는 초저녁이나 다름없는 17 : 25에 저녁공양이 있었다. 각자 밥상을 펴고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다. 반찬은 묵은 김치국과 콩나물무침 그리고 봄동배추겉저리가 전부다. 몸이 지탱할 만큼만 음식을 먹어야한다는 절집의 식생활치고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다.

삼백배를 하다 18 : 30부터 21 : 00까지 저녁예불에 참여했는데, 보광전에는 자리가 없어 오른편 극락전에서 방석을 깔고 앉아 기도를 했다. 이런 경우가 생전 처음인 나로서는 그저 옆 사람이 하는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었다. 절하면 절하고 합장한 채로 허리를 숙이면 또 그렇게 하고. 용어 또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아제아제바라제... 옴마니반메옹... 정도였다. 입을 모아 법문 외우는 소리가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훌륭한 하모니를 이룬다. 이따금 딴 생각을 할라치면 목탁소리가 내 머리를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맑아지기도 한다. 법당 안이 이제야 조금은 적응이 된 듯 한데 사실 전에는 왜 그리 어색하고 알 수 없는 공포감마저 들었는지. 그러자 나는 기도하는 중에도 호기심 많은 시선을 어쩌지 못하고 내부 구석구석을 곁눈질 해 보았다. 기둥과 들보는 저리도 굵어야 하고 천장은 왜 그리 높아야만 하는가? 비록 위치는 낮지만 마룻바닥이 가장 고맙고 방석이 있어 편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고 보면 세상 모든 것은 제각기 다 쓰임새가 따로 있다.

잠깐 직업의식에 사로잡혀있는 동안 '관세음보살' 을 반복하며 절을 하는 순서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몇 번 하다 말겠지 했으나 계속이다. 영화 '달마야 놀자' 에서 승려와 조폭들간의 삼천배 시합하는 장면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다.

나도 한 번 해보자는 오기가 발동. 옆에 있는 처사(남자 불자는 처사, 여자는 보살로 호칭)를 상대로 정했다. 염주를 몇 개씩 두른 폼이 고수인 듯 하다. 나는 삼배 이상은 처음이지만 등산으로 달련된 두 다리를 믿었다. 동시에 무릎꿇고 엎으려 손바닥을 위로 쳐들고 다시 두 다

리 모으고 일어나 합장한 채로 또 무릎꿇고... 같은 동작이 계속 이어진다.

말로만 듣던 108배를 하는가보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주저앉았는데 옆에서는 계속이다. 나 또한 끝까지 가보기로 했다. 또 108번, 그리고 또 다시 세었다. 결국 나와 둘만이 남았다. 얼굴에 땀이 비오듯 흐르고 온 몸은 다 젖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힘든 줄 모르겠다. 독실한 불자이신 어머님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떠올리고 대구의 영령들을 생각했다. 언제나처럼 나는 제외하고. 고행인지 수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오로지 끝까지 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멈추지 않고 절을 했다. 성철스님을 면담하기 위해 삼천배에 도전했다가 몇 백 번째에서 쓰러졌다는 우직한 친구가 생각나기도 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쩌면 평생동안 했던 만큼의 절을 오늘 밤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드디어 경쟁자(?)가 멈추었다. 나 또한 더 할 이유가 없다. 얼추 계산해서 300번은 될성싶다. 내 스스로도 놀랍고 대견스럽다. 그래봤자 3000배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지만, 정말이지 절을 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온갖 세상 시름이 사라진 듯 가벼운 마음으로 숙소로 향했다.

철야기도에도 참여해볼까 했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가 아닌가싶어 숙소에 들어서니 6평 남짓한 방에 20여명의 처사들이 두 줄로 누워 자거나 아무 말없이 신문 등을 보고 있었다. 물론 TV는 없고 그야말로 절간이다. 5일 전부터 와 있다는 처사들은 제일 안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누워서 꼼짝을 않는다. 이틀 후면 떠난다면서 말년고참이라고 예불도 드리지 않는다. 옆방의 100일기도 팀에 비하면 우리 방은 하룻강아지에 불과한데. 무거운 침묵을 깨고 내가 자랑삼아 300배 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것을 계기로 몇몇이서 밤늦게까지 대화를 이어가고 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조처사가 대화를 주도했다. 낮에 버스 안에서 보았을 때는 부인에 이끌려 마지못해 따라온 초보자인 듯 어설퍼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러한 사찰 성지 순례 경험이 17년째라고 한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되며 편견을 갖고 대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본질적인 것을 중요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새벽을 맞았다. 새벽예불을 알리는 종소리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다. 빗발은 가늘어져 이슬비로 변했는데 안개는 더욱 뿌옇다. 안개 낀 장충단 공원 아닌 안개 낀 보리암 새벽이다. 바람이 분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바람 앞에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며 답을 한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음에도 머리는 맑다. 보광전과 극락전 사이에 있는 음수대에서 찬물 한 바가지를 들이키니 오장육부가 다 시원하다. 극락전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런데 이미 법당 안은 꽉 차(거의 보살들로) 툇마루까지도 오르지 못하고 그 아래 시멘트 바닥에 서서 새벽예불에 동참했다. 새벽 3시 30분. (새벽 3시에 하늘이 열릴 때 하는 기도가 가장 효험이 있다고) 나중에 스님 한 분이 오셔서 법당 안쪽 가운데 비워놓은 자리로 들어가 앉으라고 해서 얼떨결에 그리했다. 처음으로 정면에서 불상과 마주 앉았다. 그런데 문득 몇 년전 운문사 새벽예불 때 보았던 젊은 비구니 스님의 단아하고 아름다운 얼굴 모습이 떠오르는게 아닌가? 아! 나는 아직 멀었다. 어쩔 수 없는 속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서둘러 아침공양(05 : 55)을 마치고 하루도 채 안되어 환속하기 위해 컴컴한 산길을 더듬어 내려오고 말았다.

그렇지만 나는 이번의 사찰 체험을 통하여 몸을 깨끗이 씻듯이 마음을 닦고, 양치질을 하듯이 입을 깨끗이(욕하지 말고 남을 험담하지 말라) 해야겠다는 가르침을 얻고 돌아왔다. 또한 사물이든 사람이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갖고 판단하기보다는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면에 더 큰 비중과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건축계소식 / 87
해외잡지동향 / 92
현상설계 / 98
세무안내 / 104

건축계소식 archi-net

주차장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단독, 다가구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가구별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된다. 또 주차장을 상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30~20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은 현행 시설면적 120~150㎡당 1대에서 전용면적 65~110㎡당 1대로 각각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민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유도키 위해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지역의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장 외의 시설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상가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돼 연간 2차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도심지 주차수요 억제대책으로 기존에는 상업지역만을 대상으로 시 · 도 조례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정하도록 했던 것을 유흥시설 등이 밀집된 상업화된 준주거지역과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도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밖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용주차구획 배정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2003 건원 세미나

건원건축 지하 2층 세미나실에서

건원건축에서 올해부터 매년 주제별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는 「건축 · 도시 이론」을 주제로 건축과 도시의 역사, 이론에 대한 고찰을 출발점으로 우리의 주거단지와 해외의 단지의 현재 및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손세관(중앙대 건축공학과)교수가 코디네이터를 맡아 건원건축 지하2층 세미나실에서 매월 셋째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무료공개강좌로 진행된다.

문의: 02-527-1585
www.kunwon.com

- 4월: 손세관(중앙대학교) / 건축 및 도시설계 이론의 고찰
- 5월: 변태호(성균관대학교) / 현대건축 및 도시설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
- 6월: 박인석(명지대학교) / 우리나라 주거단지 계획의 현주소 및 설계자의 전향적 대응 전략
- 7월: 양우현(중앙대학교) / 우리나라 주거단지 계획방법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 8월: 이정형(중앙대학교) / 일본 주거단지 계획의 최근 동향과 우리나라에의 수용 가능성
- 9월: 이규인(아주대학교) / 유럽의 주

거단지 계획의 최근 동향과 계획 이론
- 10월: 신중진(성균관대학교) / 우리나라 주택 재개발의 현주소와 새로운 계획 기법
- 11월: 박철수(서울시립대학교) / 주거단지 계획(Housing Design)의 새로운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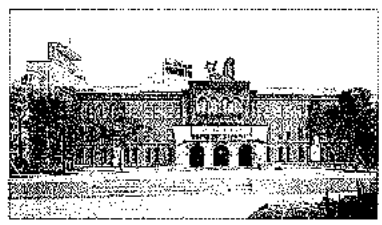
2003 원도시건축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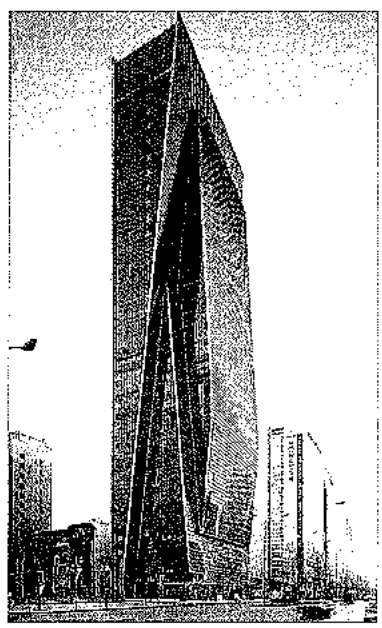
「기술, 건축, 도시」 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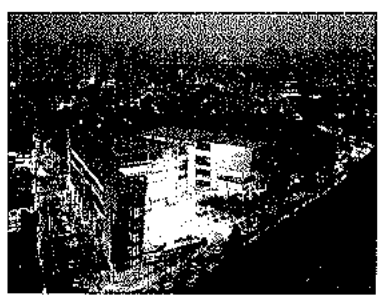
2003 원도시건축 세미나가 4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원도시 건축 지하 세미나실에서 오후 7시에 열린다.에서 올해는 현대 전자기술을 중심으로 건축과 도시를 형성하는 새로운 설계 방법을 이해하고 사회적, 물질적, 현실적인 생활공간인 건축을 구축해 가는 다양한 방식을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2-543-4977
www.wondoshi.co.kr
- 4월 10일: 유걸(인터건축)/건축과 기술
- 5월 15일: 이상헌(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근대기술, 근대건축: 근대성의 역사적 관점에서
- 6월 12일: 배형민(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근대적 미디어와 현대건축의 위상
- 7월 10일: 함인선(AI건축)/생산방식, 소재, 기술
- 9월 4일: 신승수+조임식(베를하레 건축대학원)/네트워크와 인터페이스: 공간생산의 새로운 조건
- 10월 9일: 김성홍(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변모하는 도시커뮤니티와 건축 모폴로지
- 11월 6일: 강혁(경성대학교 건축공학과)/현대기술문화와 오늘의 도시와 건축
- 12월 4일: 서울대학교 건축의장 연구실/미디어 시대의 현대건축 설계방법

서울시 건축상 발표

금상에 서울시립미술관


금상 / 서울시립미술관


은상 / 동부금융센터


은상 / 마포문화체육센터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건축상 금상에 서울시립미술관(설계: 삼우설계/중구 서소문동 소재)을 선정, 지난 3월 26일 발표했다. 시립미술관은 옛 경성재판소가 있던 자리라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데다 간결한 내부공간 처리, 여유있는 관람객 동선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은상은 동부금융센터(설계: 동일건축/강남구 대치동 소재), 마포문화체육센터(설계: 희림건축/마포구 대흥동 소재)가 각각 차지했다. 시상식은 오는 5월 15일(목) 오전 11시에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에서 가질 예정이며, 수상작과 모든 응모작품은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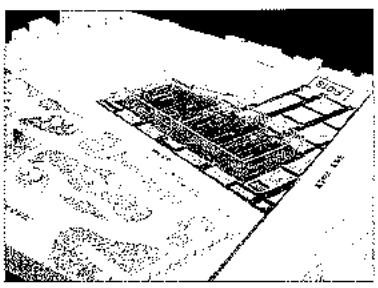
2003 지산학생건축공모전 결과 발표

금상에 김혜식(한양대 대학원) / 대구의 미디어테크

(재)한국건축 지산장학회와 (주)한국건축이 주최하는 제7회 지산학생건축공모전이 지난 3월 6일 작품을 마감하고 3월 7일 예비심사와 3월 13일 본심사를 거쳐 3월 14일 경북대학교 대강당에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생과 해외의 건축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전은 총 105개 대학 210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김종영(계명대학교 교수, 심사위원장), 김준성(M.A.R.U 소장), 공 철(Kc건축 소장), 심영섭(호서대학교 교수), 현택수(경일대학교 교수)씨가 1차 예비심사를 맡아 28점을 선별하고, 28점을 대상으로 유걸(인터건축 소장, 심사위원장), 도요이토(도요이토 건축, 일본), 김영준(이로재김영준 도시건축연구소 소장), 서혜림(힘마건축 소장), 최무혁(경북대학교 교수), 현택수 교수가 2차 본심사를 통해 특별상 1점, 금상 1점, 은상과 동

상 각각 2점 그리고 가작 22점을 선정했다. 특별상은 이정민(서울대 대학원)씨의 '네트워킹 지식', 금상은 김해식(한양대 대학원)씨의 '대구의 미디어테크', 은상은 최영준(계명대)씨의 '하우 투 커뮤니케이트'와 이혜진(대구가톨릭대)씨의 '71/2F', 동상은 곽선남(한양대 대학원)씨의 '잇츠 딜리셔스 하우 두 유 잇'와 강형주(조선대)씨의 '사이버네틱스'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공모전의 특별심사위원 자격으로 온 일본 건축가 도요 이토의 특별 강연회도 함께 개최돼 그의 최근 작품인 '센다이 미디어테크'를 중심으로 유기체적인 현대 도시에서 그가 바라본 도시의 관점 그리고 그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그의 건축관이 소개되었다.



금상 / '대구의 미디어타크'

2003학년도 1학기 한양대학교 특별 강연

5월 27일까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는 '구축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서울 행당캠퍼스 과학기술관 7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오후 4시부터 2003학년도 1학기 특별강연을 마련한다.

문의: 02-2290-0258

- 4월 8일: 함인선/AI건축
- 4월 29일: 박선우/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 5월 13일: 강종구/대한항공 항공우주연구소
- 5월 27일: 심재주/삼천리자전거 기술개발팀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특별 강연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에서는 건강한 건축가로서의 온전한 인식과 사유확장을 위한 기획으로 건축가 및 타 장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작가의 근작을 중심으로 종합세미나실에서 2003년 1학기 특강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의: 02-390-5246

- 3월 28일(금) 13:00~15:00 / Motomu Uno(건축가, 지바대학교수)
- 4월 23일(수) 16:00~18:00 / 유걸(인터건축)
- 4월중 13:00~15:00 / 손학식(손학식AIA architecture)

제12회 건축사진아카데미

5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청암건축사진연구소(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에서 5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총 16회에 걸쳐 사진 이론 강의를 한다. 실기는 강의기간 중 토, 일요일에 선택하여 진행한다. 이번 강좌의 참가인원은 12명 내외이며, 참가비는 40만원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입금 후 메일로 자기소개서를 보내면 된다.

문의: www.freechal.com/imfoto [건축과사진]카페 참조, imfoto@freechal.com

〈일정 및 내용〉

- 5월 7일: 건축을 보는 눈
- 5월 14일: 건축사진의 작업과정
- 5월 21일: 빛과 공간의 이해
- 5월 24일: 건축물 촬영실습 (토요일 오후3시-8시)
- 5월 28일: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의 표현방법
- 6월 4일: 각종건축물의 촬영방법
- 6월 11일: 각종 모형촬영 이론과 테크닉
- 6월 18일: 각종 모형촬영 실기
- 6월 21일~22일: 답사 촬영실기 (1박2일)
- 6월 25일: 흑백사진의 표현방법
- 6월 2일: 흑백사진 테크닉 실습-1
- 7월 9일: 흑백사진 테크닉 실습-2
- 7월 12~13일: 답사 촬영실기(1박2일)
- 7월 16일: 프레젠테이션의 작업과정
- 7월 23일: 건축전시와 홍보미디어의 활용
- 7월 30일: 포트폴리오제작 및 수료

건축역사학회, 4월 월례발표회

「대한제국기의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한국건축역사학회에서 「대한제국기의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4월 월례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월례발표회는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관심있는 건축 및 역사관계자가 참여

하는 대한제국기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정동지역에 대한 답사가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고, 2부는 3시부터 한양대학교에서 이태진교수와 김정동교수 등이 참여하는 월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일정〉
-1부: 정동답사
- 일시: 2003년 4월 19일 오전 11시 ~오후 1시
- 장소: 덕수궁 대한문 앞

-2부: 월례발표회
- 일시: 2003년 4월 19일 오후 3시 ~6시
- 주제: 대한제국기의 도시와 건축
- 발표: 이태진(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대한제국의 서울 황성(皇城)만들기-최초의 근대적 도시개조사업
  김정동(목원대학교 건축학과)
- 사회: 안창모(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 장소: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

연세대 밀레니엄 환경디자인 연구소 국제학술 심포지엄

오는 5월 17일 「디자인과 문화」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에서 「디자인과 문화(부제: 한국인의 삶과 미래주택)」를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는 5월 17일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을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민대 정시화교수가 '문화적 정체성과 디자인'을 주제로 발제강연을 하며, 중앙대 노동은교수의 '청각예술에서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또 기조강연으로 일본건축가 Nimura Kazuyuki의 '일본 전통공간문화의 현대적 창조'와 중국건축가 Sharon Leece의 '중국 전통공간문화의 현대적 창조'에 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전통과 디지털 문화를 융합한 미래주택의 사례로 스웨덴 미래주택 평가팀 장인 Greger Strand씨의 '스웨덴의 미래주택'과 연세대 이연숙교수의 '한국형 미래주택'에 대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02-3147-1192

제12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오는 4월 30일 마감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재단에서 해외건축 여행기금으로 미화 $10,000을 수여하는 제12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장학제(T. S. KIM Architectural Travelling Fellowship)를 개최한다. 한국의 젊고 유능한 건축가에게 교육과 해외건축기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성된 이 기금은 수령자 본인이 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 목적이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자격요건: 만35세 미만의 한국에서 건축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단,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자)
- 선정방법 및 제출자료
  - 제출된 포트폴리오 심사후 예선 통과자 선정
  - 예선 당선자는 여행 목적 및 계획을 재단에 제출하고,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최종 수상자 1명을 선발
- 접수마감: 2003년 4월 30일까지
- 문의 및 접수처: 맥스트랫(신종환소장, 02-569-1536)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6-5 로프트빌딩 3층1호 (주)맥스트랫 內 "김태수해외건축여행장학제" 담당자 앞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TSKAF.ORG 를 참조)

「백남준 미술관」 건축설계 아이디어 국제현상공모

5월 17일까지 등록, 8월 9일 마감

경기문화재단에서 「백남준 미술관」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아이디어 국제현상공모를 한다.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씨의 이름이 붙여질 이 미술관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의 '경기도박물관' 근처에 들어서게 된다. 대지면적 3만3천㎡내외, 연면적 5천㎡내외로 지어질 미술관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자료실, 회의장, 야외전시장,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5월 17일까지 「백남준 미술관」 현상공모 홈페이지(www.njmuseum.org)에서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진다. 질의응답은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며, 작품은 8월 9일까지 받는다. 결과는 9월 29일 발표될 예정이며, 당선자에게는 2만달러, 2등에게는 1만2천달러, 3등에게는 8천달러가 수여된다.
UIA의 승인을 받은 이번 국제현상공모의 심사는 오딜 데크(프랑스), 아라타 이소자키(일본), 악셀 스쿨테(독일), 리카르도 스코피디오(미국), 김진균, 김종성, 오기수 씨가 맡는다. 또한 최재필 서울대 교수가 전문자문위원으로 임명되어 현상공모 개시부터 등록, 질의응답, 작품접수, 작품심사 등 전 과정을 지휘, 감독한다.
문의: 경기문화재단 031-231-8538
최재필 02-880-7490 홈페이지 www.njmuseum.org

2003 일본 신건축 주거디자인 공모전

오는 9월 1일 마감

일본의 신건축 주거디자인 공모전(Shinkenchiku Residence Design Competition)일정이 발표됐다. 이 공모전은 1952년부터 시작된 국제공모전으로 지난해에는 293명이 참가등록(일본 152, 외국 141)한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9월 1일 마감하며, 수상자에게는 총 1,500,000엔이 수여된다.

문의: www.japan-architect.co.jp
ja@japan-architect.co.jp

서울건축학교 2003 봄 정기워크숍

6월 14일까지 「미디어-도시-건축」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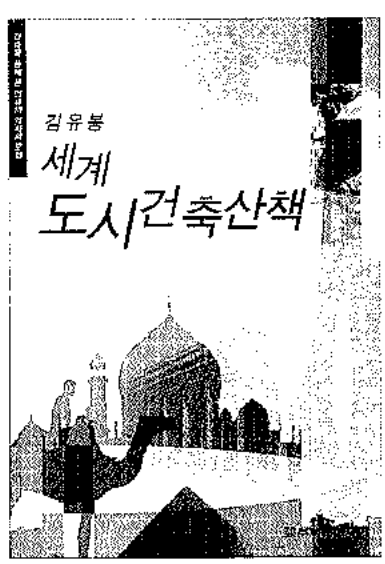
서울건축학교는 2003년 봄 정기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미디어-도시-건축」을 주제로 박영훈(인덕대학 만화애니메이션)과 최 욱(원.오.원)씨가 코디네이터를 맡아 4월 21일부터 6월 14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의 프로그램은 3개의 스튜디오로 진행되며, 4개의 강좌와 세미나 등으로 이루어진다. 국내외 건축이나 미술관련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설계사무소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문의: 02-763-0471
www.saschool.or.kr

신 간 안 내

◇ **세계 도시건축 산책**

제주 출신인 저자는 현재 (주)은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세계 주요 도시를 여행하면서 느꼈던 점들과 많은 자료를 활용, 도시와 역사를 읽어 내려간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칫 잊혀지기 쉬우나 시간의 켜가 쌓인 고도(古都)의 역사와 문화 현장을 걸으며 더께 속에 가리앉은 문명의 향기를 누리고, 문화적 교류를 통해 정보, 사상, 관념을 타고 흐르는 인류 문명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제1장 문화재로 본 조선의 도읍지, 제2장 평등의 역사 이슬람 순례, 제3장 풀리지 않는 고대건축의 신비, 제4장 인류문명이 낳은 역사유물, 제5장 문화도시 문화산책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유봉 지음/278쪽/9천원/(주)주택문화사 펴냄(02-2664-7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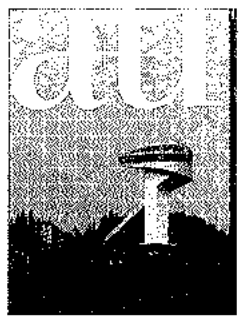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3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7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8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6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3-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시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0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목천지역건축사회/(043)732-6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5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6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8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3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8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a+u
신건축
Th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a+u

2003년 3월



이번 호의 특집은 '최근작품(Recent Project)'으로서, 정해진 주제 없이 최근의 경향과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소개된 작품들로는 렘 콜하스(OMA)의 중국 관영 CCTV 본사빌딩 프로젝트와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준공된 작품들로서 자하하디드의 베르키젤 스키점프대, 어심토트의 히드라피어, 오트너&오트너의 작센 주립도서관 및 드레스덴 공과대학도서관 등이 소개되었다.

▶ 中國中央電視台(CCTV)新본사빌딩, 중국, 베이징 - 렘 콜하스/O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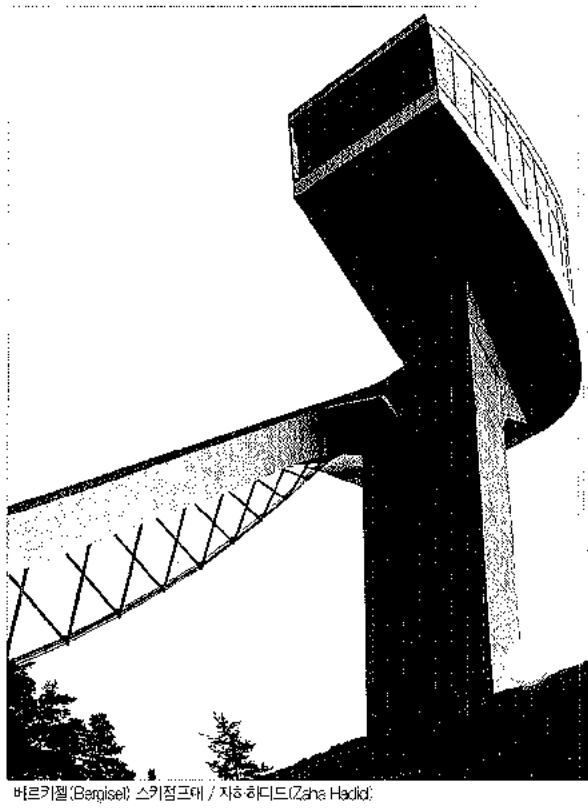
중국 관영 CCTV본사빌딩은 연면적 553,000㎡로서, 북경의 새로운 상업중심지에 앞으로 서게 될 약 300여개의 초고층 빌딩 중에서 앞서 건설되는 선구적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중국 전체에서 처음으로 지어지는 유러피안 스카이스크레이퍼이기도 하다.

북경의 신상업중심지구에 위치하는 10ha의 부지를 놓고 OMA의 제안은 2동의 초고층빌딩으로 프로그램을 정리·통합하는 것이었다. 그 중의 하나인 CCTV본사빌딩은 230m의 높이에 405,000㎡의 연면적을 갖고, 그 곳에 TV방영에 관한 모든 업무-보도, 송신, 스튜디오, 프로그램제작-를 일련의 흐름 속에서 서로 상관관계를 지니는 활동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건물은 그 230m라는 높이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타워들과는 구별되는 선을 긋고, 하늘을 지향한다기 보다는 수평·수직의 단편의 연속적인 루프가 도시를 형성하게끔 하였다. 건물의 파사드에서 보여지는 불균등한 그리드는 건물의 구석에서 구석까지 미쳐있는 역학이 표출된 것이다. 나머지 한 개의 타워는 연면적 116,000㎡의 TV문화센터(TVCC)로서, 그 안에는 호텔, 비지터 센터, 공공의 대극장, 그리고 전시공간이 포함된다.

中國中央電視台(CCTV)新본사빌딩 / 렘 콜하스

▶ 베르키젤(Bergisel) 스키점프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 자하하디드(Zaha Hadid)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는 1999년 12월, 인스부르크의 베르키젤산에 건설될 새로운 스키점프대의 국제설계경기에 당선되었다. 새로운 건물은 2002년에 오픈하였다. 인스부르크의 다운타운에서도 보이는 이



베르키젤(Bergisel) 스키점프대 / 자하 하디드(Zaha Had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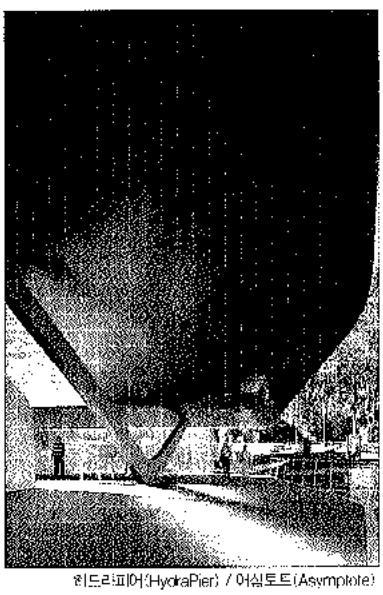
스키점프대는 눈길을 끄는 랜드마크이다. 이 계획은 대규모의 올림픽경기장을 일신(一新)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舊스키점프대가 국제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있었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다.

건물은 고도로 정밀화된 스포츠시설과 공공공간의 혼성체로서 여기에는 카페와 전망대도 포함되어있다. 이와 같은 서로 상이한 프로그램은 사면(斜面)의 지형을 그대로 하늘로 들어올린 새로운 형태에 들어서게 되었다. 길이 90m, 높이는 약 50m에 이르는 이 건물은 타워와 다리의 결합체이다. 그 구조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콘크리트 타워와 그 밑에 펼쳐지는 녹색의 구조체로 나누어지고 그것이 통로와 카페를 연결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방문객은 두 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베르키젤산 정상으로부터 40m 상공에 위치하는 카페에 도달할 수 있다. 주위의 알프스 풍경을 즐기면서 동시에 선수들이 인스부르크의 스카이라인을 향해 몸을 던지는 광경을 볼 수 있다.

▶ 히드라피어(HydraPier), 할레머미어(Haarlemmermeer), 네덜란드 - 어심토트(Asympt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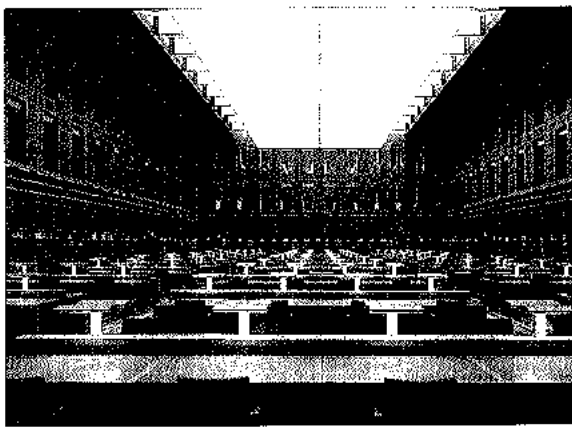
국제설계경기를 통해 어심토트가 착수한 히드라피어는 네덜란드가 할레머미어라는 신흥도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만든 공공의 파빌리언이다. 할레머미어는 스키폴공항이나 암스테르담에 인접하는 시가지로서, 활기 넘치는 젊은 도시의 심볼로서의 역할이 이 히드라피어에 기대되었다. 공항에 인접해있는 관계로 상공을 대형 여객기가 자주 지나다니고, 고속도로에는 출퇴근 차량으로 가득 찬 행렬이 지나가는 가운데, 히드라피어가 세워진 일대에는 비록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긴 하나 조용한 전원풍경이 펼쳐진다. 이 주변에는 해발 -5m로서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 150년 전에 매립지로서 탄생한 곳이다. 19세기 당시 댐이나 양수장이 지금도 남아있어 네덜란드가 옛날부터 가져온 주변의 바다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대지와 물, 자연과 테크놀러지와의 사이의 투쟁을 표현하고 있다.

호수가에 위치하며 당당한 존재감을 지니는 이 파빌리언에는 엔트런스 브릿지를 건너 2매의 물이 표면을 흘러내리는 '워터 월'을 지나 진입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에 의한 전시실은 호수에 향하여 뻗은 커다란 데크가 감싸고 있다. 파빌리언 건물 자체는 메탈릭의 외벽을 지니며, 경사진 커다란 스팬의 2가닥의 구조체에 의해 구성되었다. 한 쪽에는 의도적으로 변형된 구조로서 넓은 내부공간을 수용하였으며, 다른 한편에는 캐노피에 의한 역방향의 변형된 구조를 채용하면서 엔터런스 상부의 공중의 물웅덩이를 수용하였다. 대범한 평면구성으로 테크놀러지와 자연환경의 조화와 대조를 꾀하였다.


히드라피어(HydraPier) / 어심토트(Asymptote)

▶ 작센주립도서관 및 드레스덴 공과대학도서관, 드레스덴, 독일 - 오트너&오트너(Ortner&Ortner)

작센주립연방도서관과 드레스덴공과대학 도서관을 합체함으로서 이 계획은 유럽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서관이 되었다. 이곳에는 700만권 이상의 장서와 정보자료가 갖추어진다.


작센주립도서관 및 드레스덴 공과대학도서관 / 오트너&오트너(Ortner&Ortner)

드레스덴에 새로이 만들어지는 중심으로서 도서관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2동의 거대한 석조 블록건물로 그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도서관 중에서 지상에 모습을 나타낸 부분에 불과하다.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지상의 건물은 각각 폭 16.5m, 길이 47m, 높이 19m의 규모를 가지며, 라임나무의 고목들이 만들어내는 타원형에 둘러싸여 있다. 부지는 공과대학의 입구 전면으로서 이전에는 운동장이 있던 곳이다. 이 도서관에서 특이한 점은 예상외의 평온함과 미묘한 입면의 감각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부지를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막아주는 라임나무의 띠와 연동된다. 2동의 석조 블록은 거대한 도서관에 예상되는 거대한 건물로는 보이지 않는다. 외벽면은 석조의 수평적인 스트라이프에 불규칙하게 연속되는 수직창에 의해 구성된다. 2개의 지상의 건물 사이에는 지면에 설치된 거대한 유리관이 존재한다. 이것은 그 하부에 설치된 도서관 중앙 열람실의 상부 톱라이트의 유리덮개이다. 이 열람실은 지하 3개 층에 걸쳐 펼쳐지는 도서관의 중심적인 요소이다. 실제의 도서관 부분은 관계시설을 포함하여 약 40,000㎡가 지하에 위치한다. 녹지위에 솟은 2개의 블록은 지하에 매몰되어있는 시설 전체를 감지시키기 위한 센서에 불과하다. 이 컨셉은 기능적으로 복잡하게 교차하는 구성각부를 가능한 한 적은 층의 구

성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심이 되는 열람실은 도서관으로서 가장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전체 건물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열람실을 둘러싼 벽을 서가와 일체시켜 둘러쌈으로서 도서관의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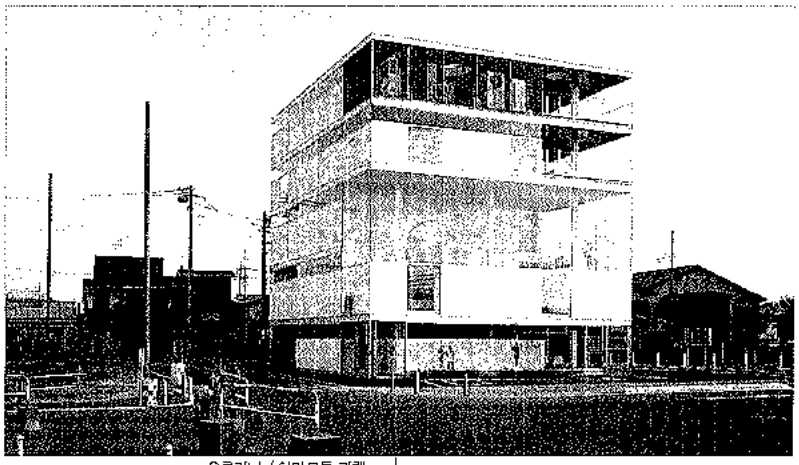
신건축

2003년 3월

이번 호에서는 센다미쯔루와 호나경디자인연구소의 「고쇼노 죠몽(御所野 縄文)박물관」, 야마모토 리켄의 「D클리닉」, 타카마츠신의 「Black Pearl」 등이 소개되었다. 고쇼노 죠몽 박물관에서는 하나의 지주에 매달린 길이 80m의 목조 브릿지가 주목할 만한 대상이다. D클리닉은 추상적 파사드에 사진을 부착하여 훌륭한 사인을 만들어 내었고, Black Pearl은 단조로운 신흥 오피스가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건축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

▶ D클리닉 - 야마모토 리켄(山本理顕) 설계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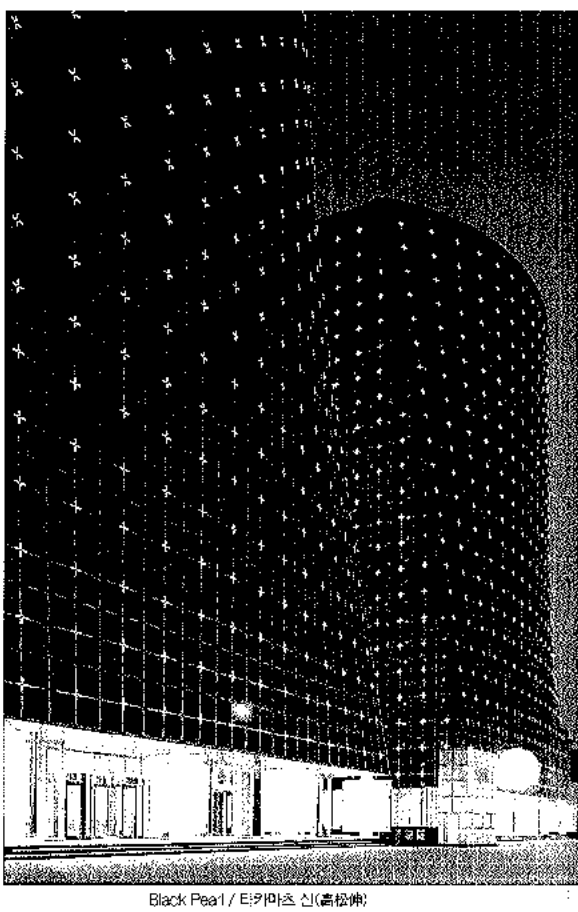
동경교외에서 오랫동안 개업해 온 클리닉이 역세권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이전 신축하게 되었다. 규모는 5층건물로 1층에서 3층까지가 클리닉, 4,5층이 건물주의 주택이다. 건축주의 요구는 단순하여, 하루 종일 볕이 잘 들고, 수납공간을 산더미만큼 많이 확보하며, 방범상 안전한 건물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설계자는 슬래브에 박스들이 흩어져 놓여있는 형상을 제안하였다. 박스는 가구와 같이 클리닉과 주거에 필요한 씀씀이에 따라 알맞게 구성되게 하였다. 클리닉과 주거의 구분 없이 박스의 배치만으로 그 안에서의 활동에 맞추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건물은 두 가지 상이한 기능의 복합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입면과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구조는 코아에서 수평력을 부담하고 수직력은 철골기둥이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 기둥들은 건물의 외벽에서 1.8-2.2m정도 안쪽에 위치하여 외관상에서는 슬래브와 박스들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클리닉이라는 성격상 프라이버시가 중요시됨에 따라 실내의 모습은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였다. 1층에는 방범상의 이유로 그리드 철망의 팬스가 쳐졌다. 이와 같은 배타성으로 인해 이 건물이 어떠한 건물인지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디자이너인 扇村正彰씨와 상담한 결과 벽면에 클리닉 직원들이 모델이 된 사진들을 부착하였다. 바로 간호사나 주부, 어린이들의 사진이다(이 클리닉의 진료과목은 산부인과와 소아과이다). 이들 사진은 이 건물이 사적인 건물이나 한편으로는 지역의 의료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성공적으로 전해주는 사인이 되었다.



D클리닉 / 야마모토 리켄

▶ Black Pearl - 타카마츠 신(高松伸)

부지는 台北市 북부의 內湖라 불리는 지구에 위치한다. 여기는 IT, 바이오관련 기업을 타겟으로한 오피스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 건물도 그러한 오피스의 하나로서 기획되었다. 트윈타워(쌍둥이 빌딩)가 된 것은 이 토지 이용에 관련된 제 요건하에서 최대의 연면적을 확보하려는 사업자의 요구로부터 이루어졌다. 설계자는 연면적 약 6만제곱미터의 규모로 쌍생의 2동의 빌딩을 설계하는 희귀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각종의 제약



Black Pearl / 타카마츠 신(高松伸)

속에서 최대한의 바닥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의 볼륨은 상당히 둔중(鈍重)한 프로포션이 되었다. 부지의 주변에서 차례차례로 올라가는 건물들이 모두 한결같이 밝은 색의 패널이나 유리로 경쾌함을 경합하는 속에서 설계자는 반대로 「무거움」을 의장의 주제로 선택하였다. 이것은 예를 들어 단지 수 그램의 진주가 발산하는, 때론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때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때로는 사람들을 얽어매는 「무거움」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감으로서의 「무거움」의 창조라고 설계자는 말한다.

건축의 구성은 검은 유리에 둘러싸인 분양영역, 黑御影石에 의한 공용 코아, 그리고 그 사이에 백색으로 빛나는 아트리움이라는 심플한 것이다. 분양 영역을 에워싸는 흑색 필름을 입힌 복층 유리가 3차원 곡면의 파사드를 구성한다. 그것은 799패턴으로 이루어져 총 1,598매의 평면유리로 분할되어 구성된다. 각 유리의 접합부에는 십자형의 LED조명이 설치되어 야간에는 별들을 가득 담은 밤하늘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외부와는 대조적으로 아트리움은 백색을 기조로 하여 빛천정, 빛벽에 의해 백색 빛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급조되는 도시. 건축가는 '이 곳은 모두들 새 양복을 입은 신입사원들이 정렬한 입사식에서 맛볼 수 있는 비현실감과 어색함이 있는 곳으로 이 어색함은 여기가 아직 도시가 되지 못하고 단지 건축물들의 집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건물이 이 신도시의 위하감을 유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되기 바란다' 고 밝혔다. (번역 / 강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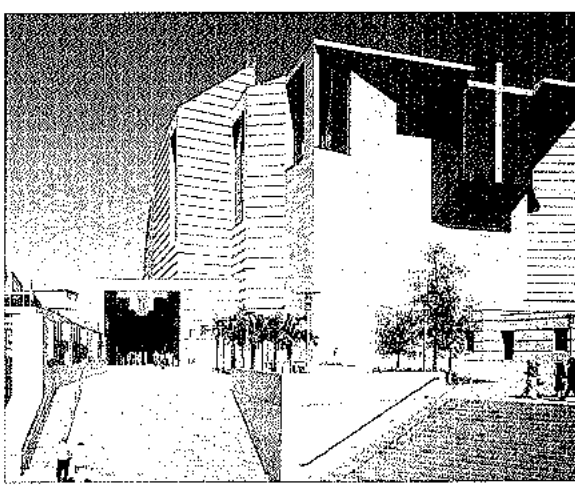
The Architectural Review

2003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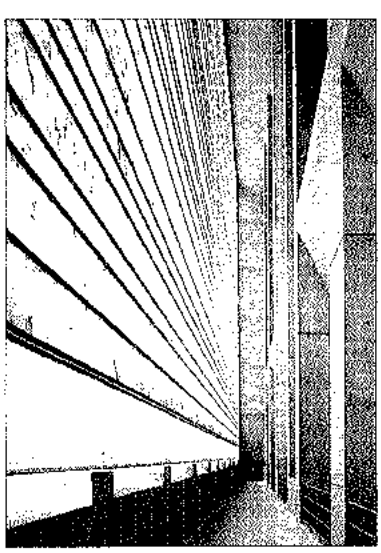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가히 '종교건축 특집'이라고 할 만큼 이라크 파엘 모네오의 성당(미국, LA), Raj Rewal 아키텍츠의 이스마일리(Ismaili) 센터(포르투갈, 리스본), 알프레드 제이코비(Alfred Jacoby)의 시나고그(독일, 셈니츠), 렌쪼 피아노의(Renzo Piano)의 순례자교회(Pilgrimage Church, 이태리, 푸글리아) 등 종교건축들이 소개되었다. 아울러 현재 전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이라크의 건축유산들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다.

▶ City of Angels - 라파엘 모네오(Lafael Moneo)의 새로운 LA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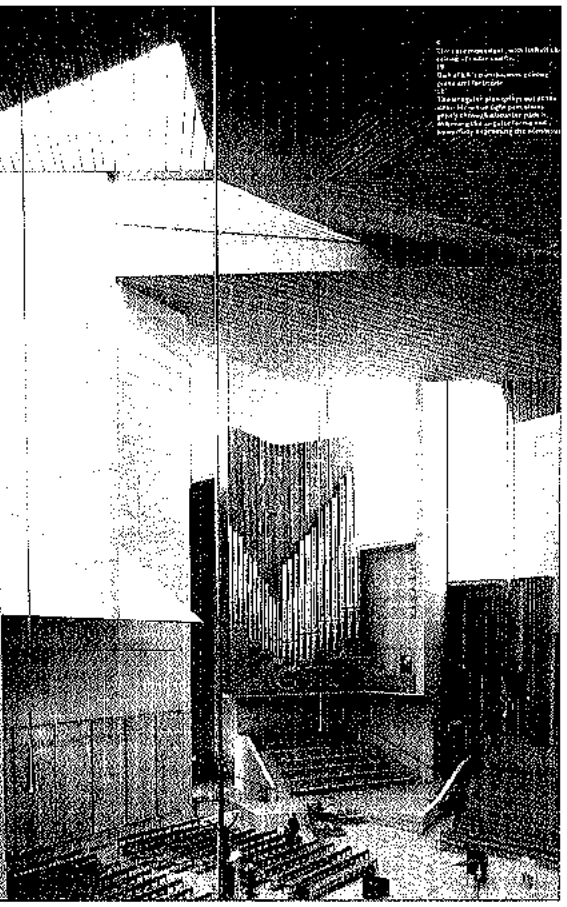
LA에 있던 성 비비엔나(St. Vibiana)성당은 1994년 LA를 강타한 지진으로 크게 손상을 입은 후 철거의 논쟁 속에 휘말린 상태에서 매각되었다. LA의 교구는 이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기회를 갖게 되고 여기에 신축된 것이 이번 성당이다. 외관은 휴먼스케일을 강조하는 수평의 줄눈이 더해진 콘크리트 덩어리들로 구성되었다. 비록 그 속에는 철골트러스가 숨어 있더라도 이러한 외관은 하나 하나 쌓아 가면 만들어진 구축성을 강조하며 고딕 성당의 성격과는 대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콘크리트의 색상과 표면은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콘크리트에 사용된 냉수와 재료들은 그것이 혼합되는 동안 얼음과 물에 의해 충분히 냉각되었으며, 햇볕에 의한 가열이 시작되기 이전인 새벽 3시에 타설되었다. 모네오의 디자인은 새로운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로마네스크양식의 느낌을 전해주며, 특히 동쪽 입면부분에서 더욱 그러하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과거의 형식에 대한 재해석과 창조가 돋보인다. 성당의 가장 중심이 되어 통상적으로 가장 높게 설계되던 네이브의 지붕은 그 옆에 딸린 보조 채플의 최고점보다 9m가량 낮다. 평면의 구성에서도 새로움이 보인다. 제단(altar)은 전통적으로 동쪽을 향해 마련되었지만 입구는 제단의 반대쪽인 서쪽이 아니라 제단과 마찬가지로 동쪽이다. 동쪽의 입구로 진입한 신도들은 나르텍스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앰불러토리에 진입하게 된다. 이 앰불러토리를 지나면서 측면의 제단과 네이브의



City of Angels / 라파엘 모네오(Lafael Moneo)



City of Angels / 라파엘 모네오(Lafael Moneo)



City of Angels / 라파엘 모네오(Lafael Monec)

모습을 간간히 뚫려있는 좁고 깊은 틈을 통해 바라보며 진입하게 되어 있다. 이 틈들은 중세의 도시 골목을 통해 도시 중앙의 성당을 바라보는 시선을 연상케 한다. 앰뷸러토리의 끝에 다다르면 신도들은 그 방향을 180도 선회하여 네이브의 끝으로 진입하게 된다. 성당의 양 측면에는 얇게 절단된 알라바스타(alabaster, 설화석고)가 스테인드글래스를 대신하고 있다. 알라바스타는 모네오가 1996년 그의 설계작품인 미로 재단 빌딩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모네오가 좋아했던 로나네스크성당에서도 볼 수 있는 재료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열에 약하여 빛을 투과시킬 정도의 얇은 판의 형태로 쓰여지지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발달된 기술에 힘입어 이중 유리와 환기 시스템(LA의 Ove Arup이 담당하였다)의 보호아래 빛을 투과하는 벽면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발산되는 백색은 성직자의 의상 색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문맹의 시대에 벽화가 성서의 내용을 설명하며 성당을 장식했던 시대와는 달리 성당 건축의 형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빛의 도입에서 뿐만 아니라 음향의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벽면에 걸린 성직자와 신도들의 모습을 그린 존 나바(John Nava)가 만든 타피스트리는 전통적인 벽화장식의 변형이자 음향학적으로는 흡음재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새로운 시도는 회중석과 제단의 관계이다. 신도들이 앉는 회중석 보다 낮게 위치한 제단은 통상적인 성직자와 신도와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다. 체리나무로 만들어진 회중석의 의자는 모네오의 디자인으로서 전체적인 건물과 뛰어난 조화를 이루어내었다.

Architectural Record

2003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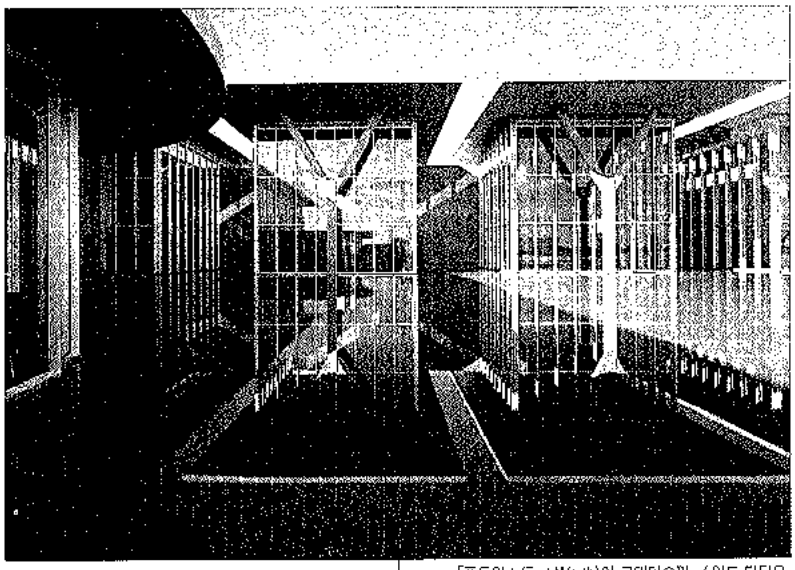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표지를 장식한 안도 타다오의 「포트워스(Fort Worth)의 근대미술관」과 MVRDV의 집합주택인 「SILDOM」, 그리고 4개의 학교를 소개한 「K-12 Schools」 등이 소개되었다. 포트워스의 근대미술관은 유명한 루이스 칸의 킴벨 미술관의 증축이라 할 수 있는 작품으로 1997년 현상설계에서 안도가 당선된 후 9년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

▶ 타다오 안도, 포트워스 근대미술관을 통해 그의 콘크리트와 유리의 시학을 텍사스 평원에 가지고 온다.

안도 타다오는 그의 건축의 근본적인 의도에 대해서 '강렬하고 깊은 공간을 만들어 그것에 접한 사람을 동화시키는 정신적인 세계를 만들고 싶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그의 경력의 시작이 되었던 작품들 즉, 빛의 교회(1989년)나 물의 사원(1991년)과 같은 작품들에서 나타나며, 이번에 완공을 본 포트워스의 근대미술관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기념비적이면서도 위압적이지 않은 건물은 현대의 재료와 디테일을 사용하여 방문자가 예술과 자연, 그리고 방문자들 서로에게 빠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었다. 파동치는 티타늄벽과 너펄거리는 브레이즈 솔레이유가 만연한 도시에서 근대미술관은 조용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침묵과 고독 그리고 장인정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나는 이 미술관이 마치 교회처럼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고 안도 타다오는 작년 12월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근대미술관에 다가설 때 처음부터 정신적인 감흥은 느껴지지 않는다. 마치 포춘(Fortune)誌의 500대 기업 브로셔와 같이 대널(Darnell)거리에서 바라본 메인 파사드는 알루미늄과 유리로 만들어진 차갑고 건조하기 그지없는 구성을 보여준다. '이게 다 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이지만 다행이도 그렇지 않다. 로비에 들어선 순간 공간은 위로, 그리고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조각 공원의 호수 저 멀리로 뻗어져 나간다. 그 순간 건물은 비물질화되고 관람자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땅과 물, 그리고 하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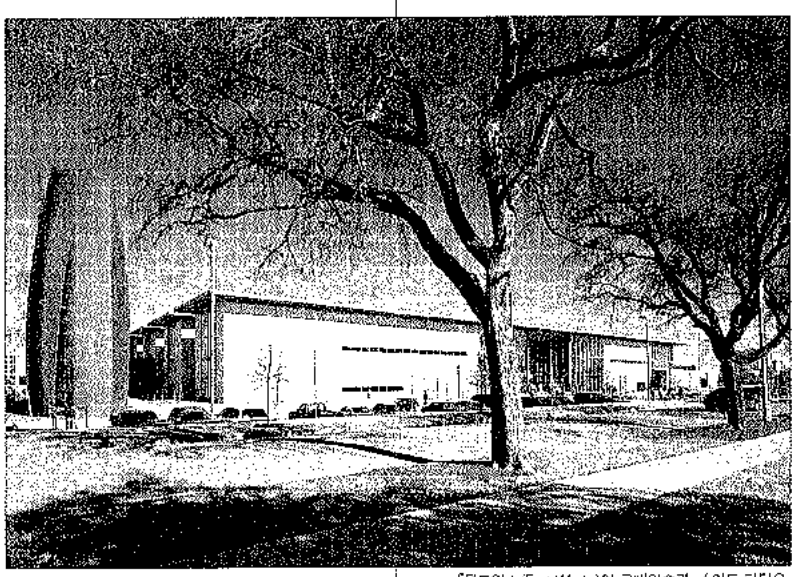
안도는 1997년의 설계경기에서 아라타 이소자키, 리까르도 리골레따 및 다른 세 명의 건축가를 제치고 이 건물의 설계를 따 내었다. 이 건물의 공사비는 무려 6500만달러에 이른다. 근대미술은 미술관이 풍부한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



「포트워스(Fort Worth)의 근대미술관」 / 안도 타다오

로 열악한 환경속에 있었다. 따라서 지도상에 나타날 만큼 비중 있는 건물을 갖길 원했으며, 또한 그것은 바로 인근의 루이스 칸이 설계한 킴벨미술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다. 안도는 일단 이 두가지를 모두 성공적으로 제공한 듯 하다. 그의 최초안은 230,000 평방피트의 면적에 75,000 평방피트를 갤러리 면적으로 할애하는 것이었으나, 최종안에서는 153,000평방피트의 부지 면적을 확보하고, 그것의 1/3을 갤러리로 할애하였다. 최초에 계획된 6개의 직사각형 파빌리언은 의심할 여지없이 킴벨미술관의 6개의 볼트를 참조한 것이었지만 규모가 줄면서 5개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근대미술관은 킴벨미술관 면적의 4배에 해당하며, 현재 킴벨미술관은 지역커뮤니티 아트센터로 전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계획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안도의 초기안의 특성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프랭크 게리나 산티아고 칼라트라바 같은 사람들과 달리 안도는 조각가가 아닌 건축가(Builder)이기 때문이다. 그는 건물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는 근대미술관이 4개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오직 한 개의 메인 파사드만을 가지고 나머지는 주차장과 수하물 하역장, 그리고 경사진 조경지에 의해 가려지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포트워스(Fort Worth)의 근대미술관」 / 안도 타다오

건물 곳곳에서 안도의 칸에 대한 존경과 또한 그의 작품과 맞서는 도전을 읽어낼 수 있다. 안도에게 있어서 킴벨미술관은 모더니즘이 과거의 모방과 공허한 아이러니에 빠지기 이전의 모더니스트 장인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는 몇몇 군데에서 칸에 대한 명백한 경의를 표하고 있다. 여러 개의 파빌리언을 반복시킨 점, 천정으로부터 내려오는 빛의 사용, 그리고 건물과 랜드스케이프의 일체된 조화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칸에 대한 그의 가장 큰 경의는 근대미술관 건설에 있어서 유지된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안도는 근대미술관의 개관식에서 반복해서 '칸과 같은 수준'에 오르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훌륭한 작품과의 연계를 창조하고 싶다'고 하였다.

안도의 가장 큰 실수로는 킴벨을 향해 난 하역장의 위치이다. 물론 킴벨의 하역장도 비슷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킴벨의 것은 더 작고 낮은 위치에 있어 방문객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가려져 있다. 그러나 근대미술관의 것은 너무나도 노출되어 모든 하역작업과 물품들의 지저분한 모습들이 감추어지질 않는다.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무튼 안도의 근대미술관은 킴벨의 동반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건물이며 그 구조적 실험과 정교한 디테일은 그 이웃건물을 모방하지 않으면서도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다. (번역 / 강상훈)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광주전시컨벤션센터 / 98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 / 102

광주전시컨벤션센터

Gwangju Coex

▶ 당선작 / 정림건축(문진호 · 백문기) + 국보이엔지건축사사무소(이창율) + 건축사사무소대호(송건) + 박영호(부천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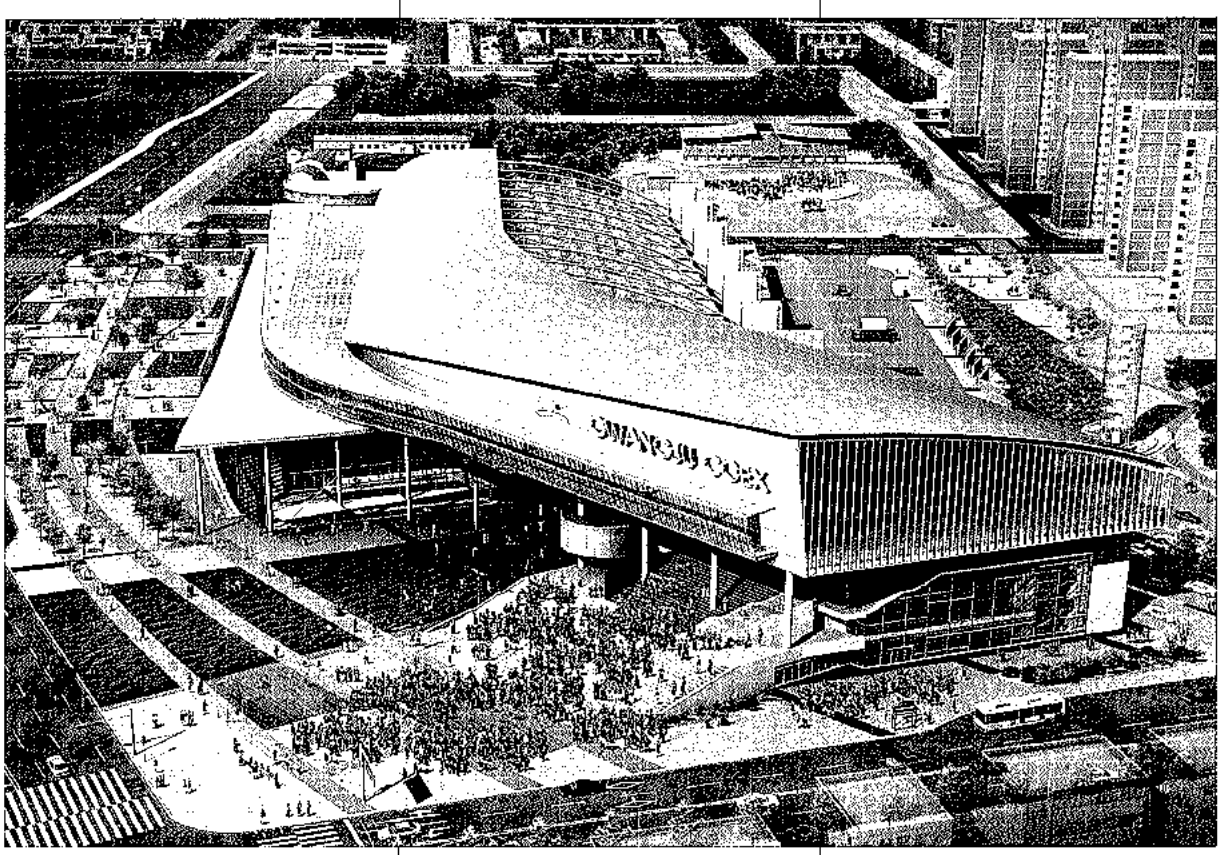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59-2번지(상무지구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상세계획구역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53,301.9㎡ (16,123평)
건축면적	20,316㎡ (6,145평)
연면적	38,430㎡ (11,625평)
건폐율	38%
용적률	4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주차대수	403대(장애자주차 12대 포함)
외부마감	THK 3 알루미늄 시트, THK 24 컬러복층유리
구조설계	센구조
설비설계	삼신설비
전기설계	나리기술단
조경설계	솔토조경(주)

흐르는 땅 흐르는 빛

생명을 품은
땅
그 땅은
삶을 타고 흐르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빛
그 빛은
미래로 흐른다.

광주 전시 컨벤션 센터는 국토 서남단의



중심도시이자 중국,일본 등 환 황해권의 국가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북아 경제권의 거점도시로서, 또한 21세기 산산업인 디자인 산업과 광산업의 메카로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려는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전시 컨벤션 센터이다.

우리는 새로운 전시 컨벤션 센터를 설계하기위해 세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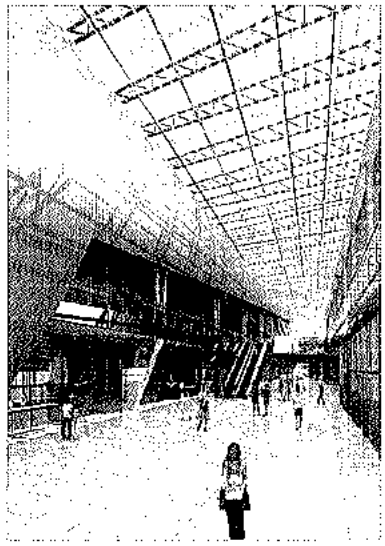
- 상징성 : 광주광역시를 상징하는 광주만의 것을 찾고자 하였다. 우리가 고뇌 끝에 얻은 결론은 빛, 민주화, 무등산이었다. 빛 고을 광주의 상징성, 순수하면서도 공의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민주화의 역동적인 에너지, 마음의 고향 무등산을 건축화 하여, 서울이 아니라, 고양시가 아니라, 대구와 부산 그리고 제주가 아니라 광주에만 있는 전시 컨벤션 센터를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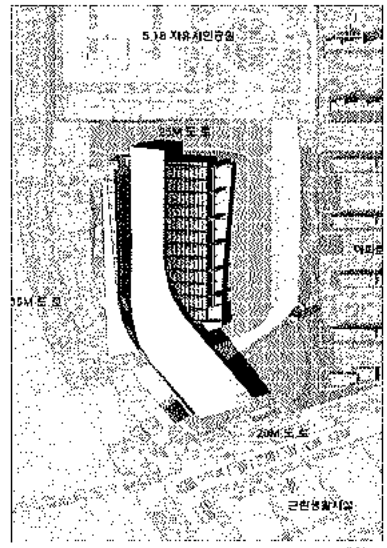
- 장소성 : 건축가에게 땅은, 장소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곳이 광주이였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어려운 장소적 맥락을(북측 : 5 · 18자유공원, 동측 : 주거시설(아파트), 서측 : 도시계획 시설의 지역(전, 답), 남측 : 근린상업시설)을 제한 요소가 아니라 장소와 땅이 가진 가능성으로 받아들여 새롭게 해석해 보았다.

- 기능성 : 새 전시 컨벤션 센터는 전시 컨벤션 센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과거의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고 분석하여 변화하는 미래에 적합한 새로운 광주 전시 컨벤션 센터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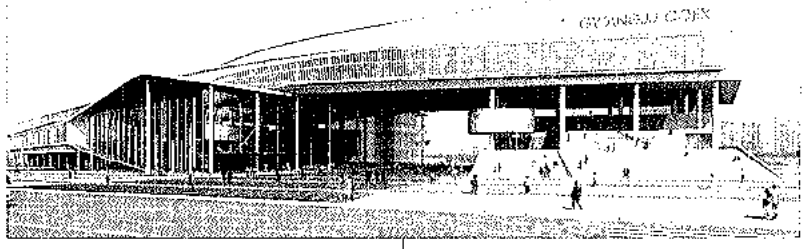
우리의 제안이 실현되도록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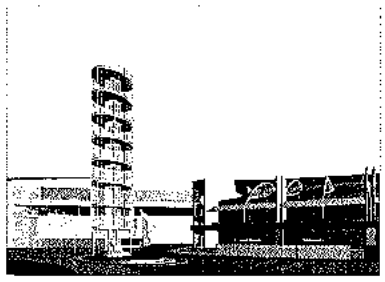
흐르는 빛을
맞으며
흐르는 땅
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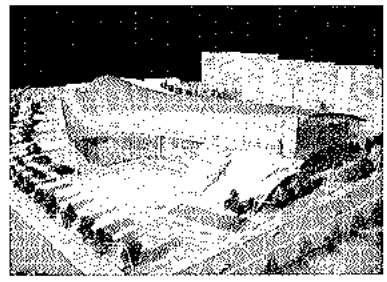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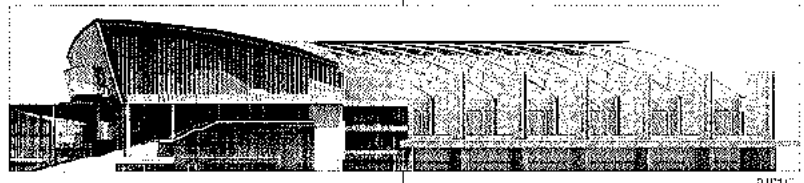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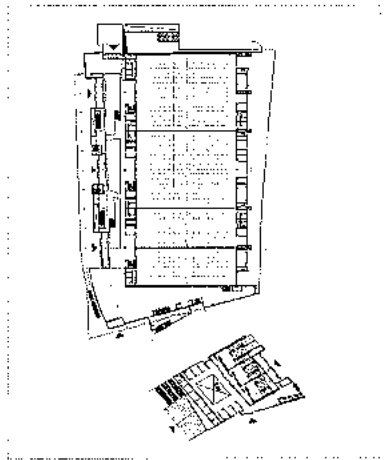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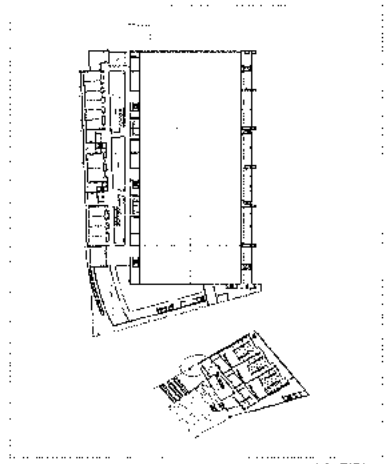







입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우수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희 · 정영균)+AD건축(양동현)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59-2번지(상무지구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상세계획구역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53,301.9㎡
건축면적	20,910.96㎡
연면적	39,243.72㎡
건폐율	39.23% (법정 60% 이하)
용적률	53.16% (법정 300% 이하)
주차대수	373대 (일반296대, 장애인9대, 직원21대, 버스7대, 화물24대)
규모	지하1층, 지상 4층
외부마감	지붕- 스텐레스샌드위치판넬 벽 - SPG시스템, 알루미늄복합판넬, 아크릴계수지판넬
설계팀	금두연, 이규상, 김상원, 최은석, 류제희, 김정희, 송상영

디자인 개념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상무 신도심에 계획되는 본 프로젝트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이 도약하고자하는 광주시의 이상이 표현되기에 최적의 프로그램과 입지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광주를 상징하는 무등산의 부드러운 능선과 빛고을 이라는 명칭에서 전해지는 빛에 대한 애정을 구현하는데에서 디자인 개념을 도출하여 광주 전시 컨벤션 센터를 계획하였다.

1. Circumstances

이 프로젝트의 대지는 광주의 기존 도심과 이어지는 주 간선도로변에 위치하며, 광주 공항과 목포 등 타 지역에서 진입시 관문과도 같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북측의 25m도로 건너편으로 펼쳐지는 5.18자유공원과 시민공원은 도심에 거대한 녹지의 띠를 이루고 대지까지 이르고 있어 이와 연계한 시민공원 등의 조성에 유리한 입지이다. 또 서측 35m도로를 두고 마주보는 거대한 나대지는 추후 규모확장에 따른 부대 지원시설의 유보지역으로 추후 개발될 수 있다.

2. Motifs

I. 무등산의 이미지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으로 굴곡이 거의 없는 부드러운 곡선은 늘 광주시를 위요하는 푸근한 품과도 같은 안락함을 주어왔다.

대규모 전시장의 경우 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해 상징적인 지붕구조는 경제성 및 현실성을 잃어 자칫 과도해지기 쉬우나 본 프로젝트정도의 규모에서는 이를 이용한 디자인도 충분히 가능하며, 규모를 떠난 전체 건물의 이미지 형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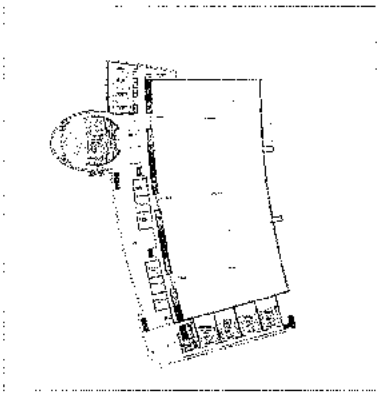
II. 빛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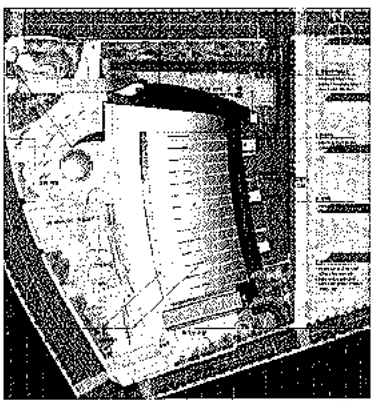
전면 빛의 광장의 중심에 위치한 컨벤션 센터는 하부에 작은 수공간을 두고 상부에 부유하듯 떠 있으며, 상부로는 상징적인 돔형태를 이루어 인지성을 높이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이는 야간에 경관조명과 함께 하부 pool에서 시작된 빛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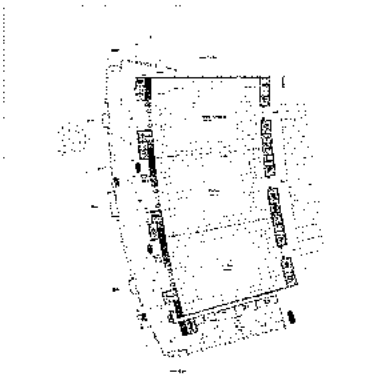
이 상부돔지붕을 통해 하늘로 상승하는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로비(프리즘 몰)의 상부에 매달린 차양재는 다양한 색채의 그림자를 드리워 실내공간에 다채로운 인상을 주게 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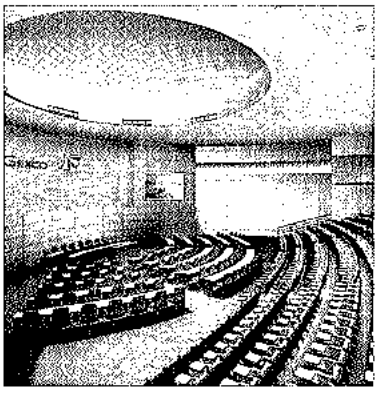
프로그램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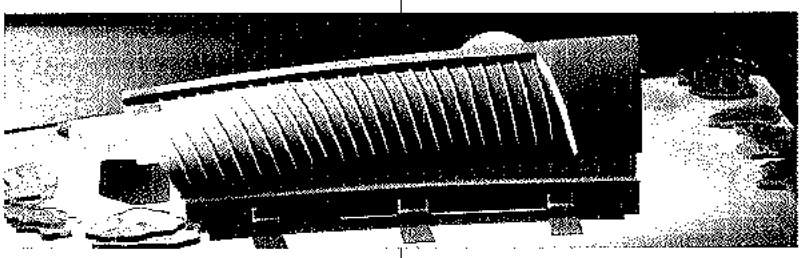
I. 전시장
전용 10,00㎡에 달하는 전시공간은 상부로 최저15m의 천정고를 확보할 수 있는 장현보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무주공간으로 계획하여 중장비 등 대형물의 전시에도 대응하게 되어있으며, 9x9m 를 기본모듈로 하여 계획하였으며 전시 규모에 따라 3개로 나누어 대관 및 전시가 가능하게 구성되었다.
외부 빛의 광장에서 로비인 프리즘-mall로 유입된 동선은 pre-function구역을 통과하여 각 3개의 출입구로 진입되며 여기서부터는 전시관람객과 일반 이용객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후면 하역장측으로는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등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상부의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전시장 내부로의 채광 및 환기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대지내 북측으로 추후 확장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구조물 계획을 하였다.
II. 컨벤션 센터
주 건물로부터 돌출되어진 컨벤션의 매스는 전시장과는 독립된 기능을 상징하며 사용 시에도 분리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전체 1,400㎡에 달하는 국제규모의 대회의장은 각종 정보통신 및 그리고 통역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구성을 하였으며, 로비와는 수직적으로 분리하여 2층에 각종규모의 회의실을 집중배치 하였다.
III. 수익시설
남측 서창역주변의 쇼핑몰부터 유입되는 보행자와 대지 동측 보행자도로와의 연계가 원활한 대지의 남측으로 영화관 및 푸드코트 등의 수익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고려하였으며 전시장과는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게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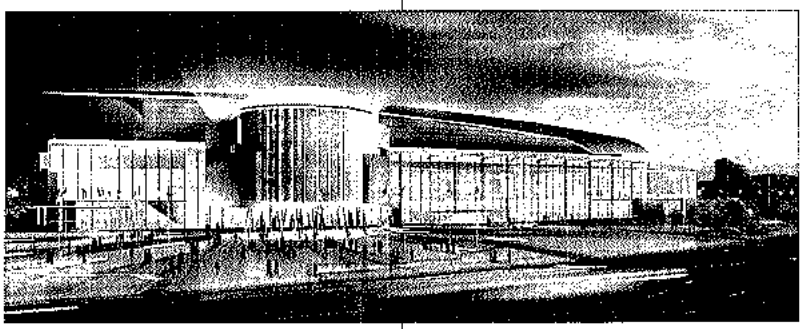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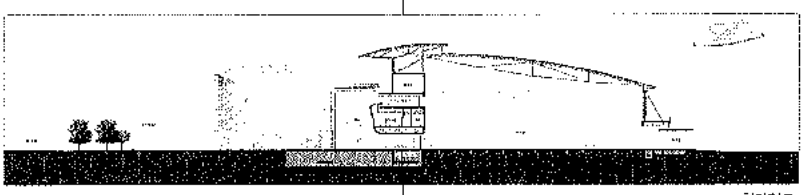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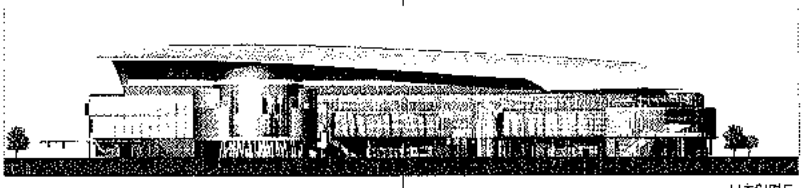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횡단면도


서측입면도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

New Town of Dongtan, Hwaseong

▶ 최우수작 / (주)무영건축(안길원)

대지위치	화성 동탄지구 중심지
면적	약 40만평
주요시설	공동 · 단독주택단지, 상업 · 복합단지 등
계획목표	주거, 산업,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신나는 녹색도시
설계팀	이희익 본부장, 김영우, 윤재환, 김승영, 김재란, 김대호, 배수웅, 길윤경, 김우진

계획의 개념

화성 동탄지구 시범단지의 개발개념은 지속가능한 자급자족의 도시, 애착을 갖고 살아갈 삶터로서의 도시에서 출발한다. 이 계획안은 편안한 집과 가까운 거리의 일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시설들과 커뮤니티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휴먼 스케일에 더하여 도농복합 도시로서의 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였다.

계획의 목표

화성동탄지구 시범단지는 신도시의 이미지를 확립하여 도시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변 농촌지역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양질의 주거를 조성하고, 수원-용인 이남지역의 거점도시로서 도심 형성을 촉진하여 주 수요계층인 젊고 활기찬 첨단지역 산업종사자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려 한다.

공간구조 개념

동탄지구는 미개발의 자연지형이 갖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녹지축을 이용한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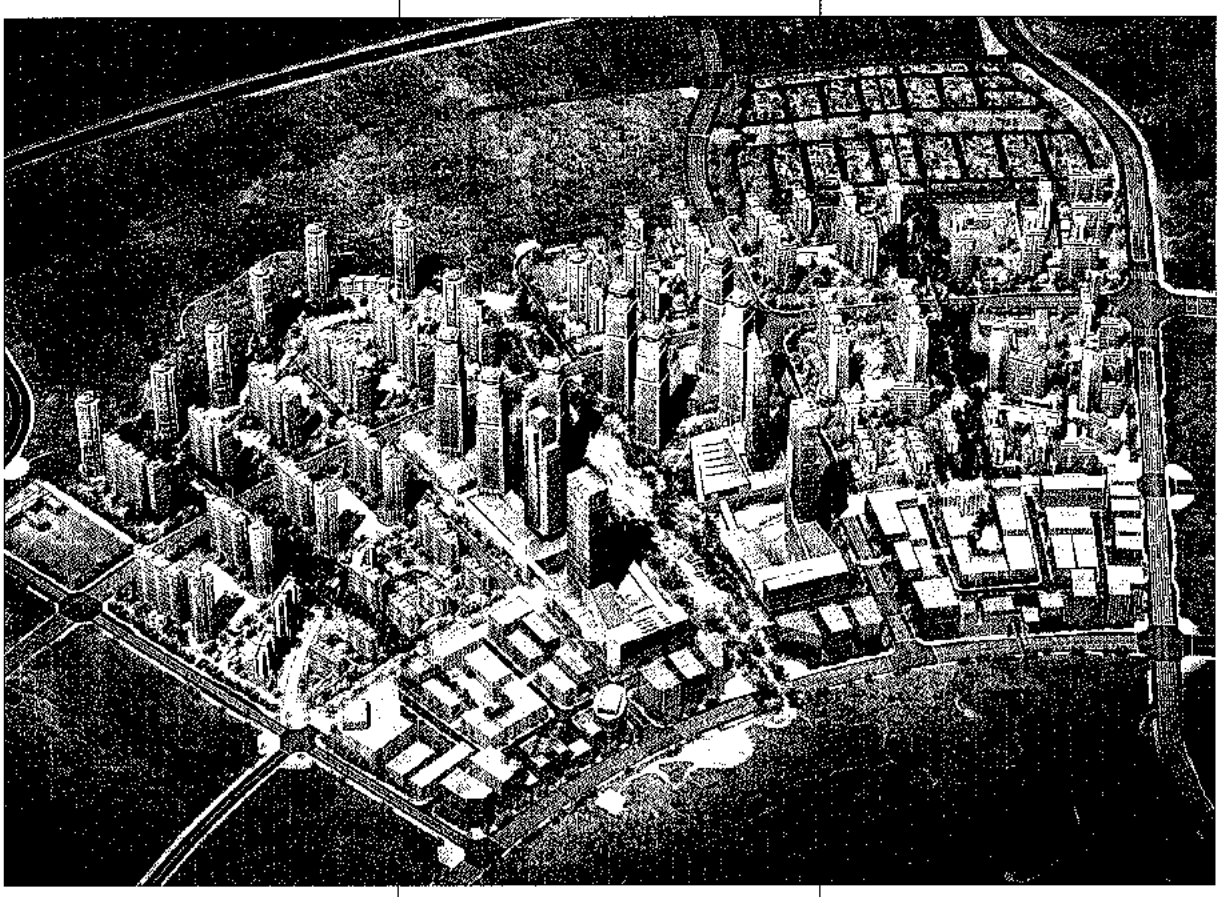
배치계획

벨트형 존(Zone)개념을 도입하여 도시개발의 흐름에 순응한 주동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가로형 상업시설 개발과 어울려 유기적인 도시 마스터플랜을 구현하고 있다. 주동 주변의 피로티를 중심으로 한 중앙녹지와 광장이 전개되고 단위세대는 주동주변 생활공간으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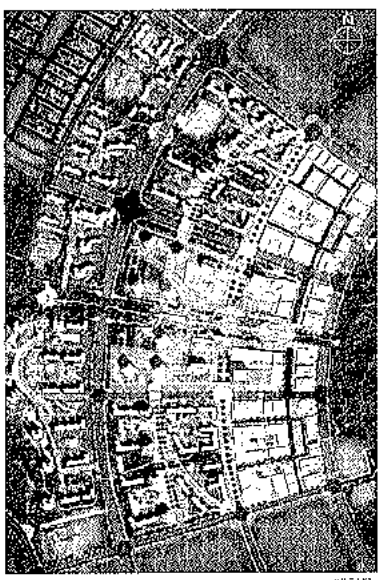
복합센터 공간구성

중앙에 위치한 녹지축에 의해 크게 2개의 존으로 구역의 분리가 가능하다. 상업지역의 남쪽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가족 중심의 상업공간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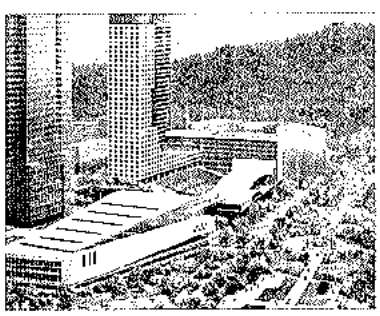
계획대상지의 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환상형 도시골격으로 남북방향의 선형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를 활용해 남북방향의 중심상업지를 4~5개 존으로 구분하여 각 존별로 특색 있는 상업공간을 조성하였다. 또한, 녹지축 주변지역의 복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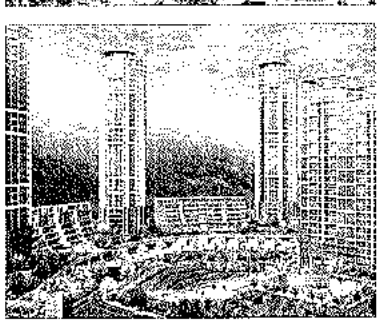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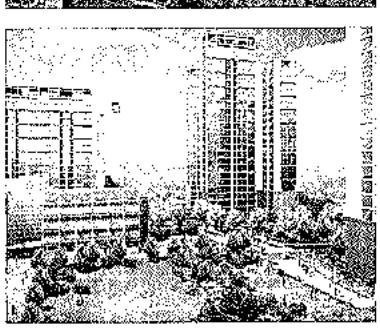
도 및 블록형 상업지 입지를 고려하여 핵심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다양한 활동의 공존을 유지하고 제안해 보았다. 특히, 생활가로, 중심지내 보행로 등이 남북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여 가로와 특색있는 광장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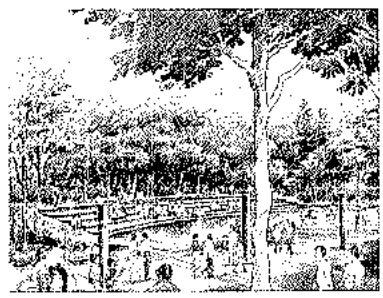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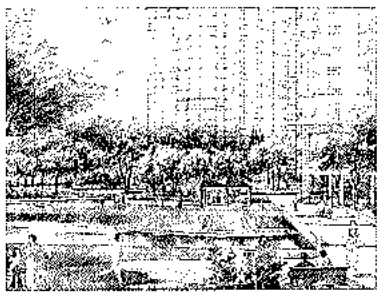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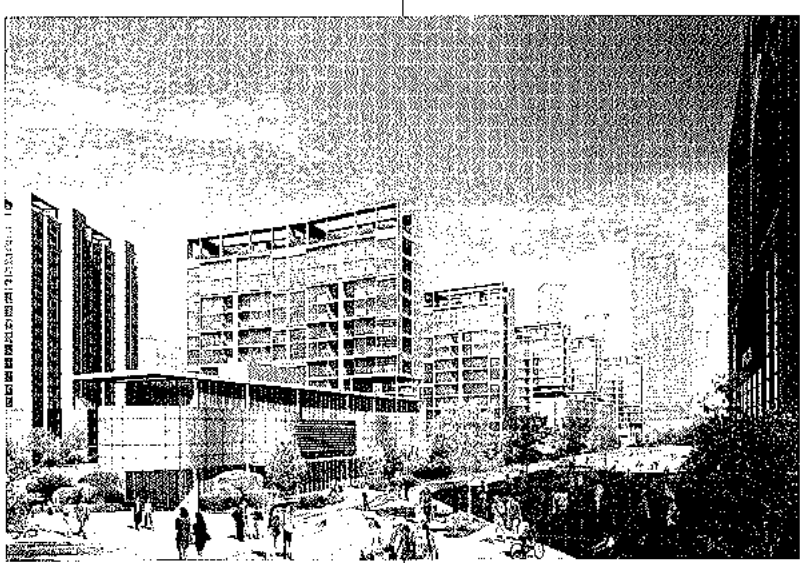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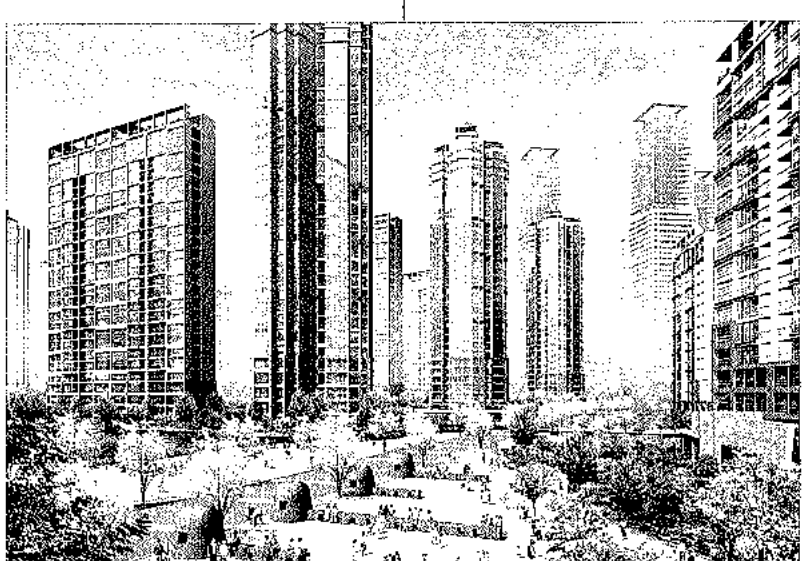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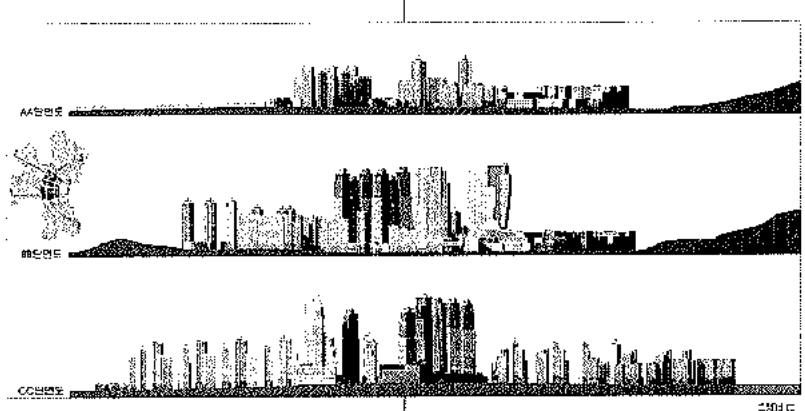












단면도

장부없는 자영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2003년 5월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는 2003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종전의 표준소득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금년부터는 종전 표준소득률처럼 경비를 자동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게 되며
- 주요경비이외의 보조적 경비만 정부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되는 비용

▶ 표준소득률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나머지는 전부 비용으로 자동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함.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표준소득률은 1955년부터 운용해 온 제도로서 그동안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장부에 의하지 않더라도 비용을 자동으로 인정해주게 되어, 근거과세와 거래투명성을 저해하고, 업종별로 동일한 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 폐해도 적지 않았음,

※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제정하나?
- 기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총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율을 차감하여 기준경비율을 산정하게 되며,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됨.

구 분	표준소득률제도	기준경비율제도
개별 사업자의 사업실적 반영 여부	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자의 개별사업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불공평 발생 우기장사업자는 지출	부수경비로 자동인정되는 기준경비율외에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므로 개별 사업실적이 반영됨
지출경비 입증 책임 유무	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음 간단하게 소득세를 신	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지출사실을 증빙에 의해 입증해야 비용 인정
장부기장에 미치는 효과	고칠 수 있으므로 장부기장을 기피하는 경향발생	주요경비와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

예) ○○제조업의 기준경비율이 10%라는 의미는?
총수입금액에서 10%만 부수적 비용으로 자동 인정해 주고, 나머지 주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게 된다는 뜻임

■ 장부가 없더라도 소규모사업자는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게 됨

• 단순경비율이란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하게 장부나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말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을 두는 이유
-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사업자에게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제도를 적용함.
- 그러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소규모사업자의 기준을 앞으로 점차 축소해 나갈 것임.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업종구분 \ 연도별	2002년~2003년귀속	2004년~2005년귀속	2006년귀속부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업	1억5,000만원 미만	9,000만원 미만	7,200만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9,000만원 미만	6,0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서비스 및 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6,0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합니다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됨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10만원 미만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는 종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므로 세부담도 전년과 거의 같음.

•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춘 정도에 따라 세부담이 차이가 나게 됨.

-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전부 갖춘 경우 ⇒ 세부담 늘어남이 없음
-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금액만큼 소득금액이 늘어나므로 표준소득률 적용시보다 납부세액이 많아질 수 있음.

⇒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초기에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제도를 둠.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제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앞으로 장부를 하지 않는 자영사업자는 기장을 해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모두 수취·보관하여야 하므로

-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노력과 비용이 들고
- 특히, 일정규모이상(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반면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함.

• 앞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더욱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임.

- 기장세액공제를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최소한의 일정금액을 정액공제하는 방안과 무기장가산세를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397)
E-mail : ho25400@nts.go.kr